

건축사



칼럼 소통으로 융합해야 한다
시론 '만드는자'라고 믿고 있었다
건축 전문 이야기꾼이 필요한 이유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4

<http://www.kira.or.kr>
201006

소통으로 융합해야 한다

Homogeneous Convergence in Architect Community via Dialogue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방하는 흘러내리고 검은 원유는 깊은 바다에서 60여일 째 뿐어 나오고 있다.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곳도 믿을 만한 곳도 적당치 않다. 그간 담당 의사를 두지 않고 수천만년을 지내 온 '디 플트' 옵션에 걸어 놓은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이 행성을 살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려기에 수십 년 전부터 지각있는 미래학자들은 우리는 하나요, 하나가 되어 대응하자고 와치지 않았는가. 기초 시장 질서를 하나로 하여 융합하기를 등구가 봉고되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릴 때 이미 선포한 것이다. 이 위대한 선언이 서로의 체계와 경제적 이득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 올곧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통의 장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 삶의 터인 건축계의 몸 상태 역시 별로다. 여러 진단을 받아 치료책을 내놓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절대 강자의 힘이 필요할 때인데 그만 민주주의의 논리에 잡혀 다시 월절으로 돌아갔다. 많은 건축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혼들리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진실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다수의 의견 전달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진보적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다.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논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의식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정말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건축계는 이제 화학적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공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결정에 절대적인 명분에는 반대하고 본다. 우주가 Big Bang으로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평범한 문제의 호불호를 각자가 선택하도록 놔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대부분의 선택은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누가 선택한 것 보다는 본인의 선택이 현명하다는 가정을 한다. 이러한 선택과 가정을 우리의 건축계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융합 논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살아 남기 위해 제 닭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좁은 시장에 많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융합하여 질서를 바로 잡고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근창 / YI Kun-Chang, KIRA
(주)엠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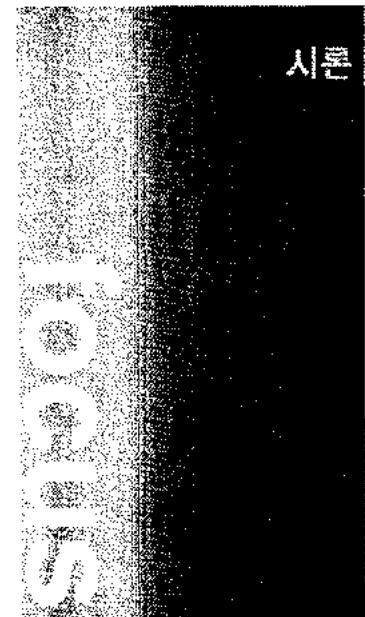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제1기 건설환경경영자 과정 수료
- 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전 아시아건축시민협회 회장
- (주)엠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부회장

이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에 우리 건축계의 사명인 것이다. 아니 우리가 깨치고 나가 우리의 후배에게 물려줄 유명적 업보인 것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일찍한 숫자에 의해 지엽적인 사실을 확대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절대적 사실은 양심의 미명 아래 배척하고 신념을 빙자해 자기 주장만 한다면 몸이 불편한 우리 건축계를 어떻게 치유하겠는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다수의 식견과 신뢰는 소통과 상생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간의 사실에 궤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속세를 채우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필요에 의해 분열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며 진화한다. 지금은 융합해야 하는 모든 이유들이 모두 입력이 되었으니 Enter 기능 키를 눌러야 할 때다. 새로운 단계의 진화를 위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융합해야 한다. 우리는 융합으로 결말을 내고 건축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남겨진 숙제를 문을 닫고 충실히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어뢰에 의해 건축함도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만드는 자’라고 믿고 있었다

We have believed we are makers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건축설계자는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낙관적이어야 할 미래가 안 보인다. 사회를 바꾸고 도시를 만들 것으로 굳게 믿던 시절과는 너무나 단차가 크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건축사들은 본래 ‘만드는’ 행위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은 형태와 공간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만드는’ 행위를 결정해 주는 저 밖의 다양한 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으니, 만드는 행위를 결정하는 저 다양한 제도를 바꿀 만한 힘도 당연히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건축사는 정작 ‘만드는’ 일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 건축사는 내가 설계한 집, 내가 ‘만든’ 집이라고 말 하지만, 건물은 건축주가 만들게 한 것이고, 건물은 시공자가 만든 것이지, 건축사가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건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렸을’ 뿐이다. 어떤 이는 그리는 것이 곧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겠지만, 그 말은 건축사라는 전문가 올타리 안에서만 맞는 말이다. 건축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못되었고, 친환경의 장본인인데도 내가 과연 친환경을 ‘만드는’ 자인가 하며 자신 없어 하고 있다. 오히려 건축사들은 ‘그리는’ 행위 안에 닫혀 가고 있었다.

이 사회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과 나부라는 물질로 구성될 때,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는 건축사가 건물을 만든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만드는 자는 건축사가 아니라, 시공자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시공자를 상대로 수주하고 있으며, 건물을 만드는 시공자는 건축사와 계약하여 건물을 그려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건축법도 설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그리는’ 일로 규정한다. 건축법은 설계란 사상(思想)을 통하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물질과 공간으로 구축하고, 평범한 땅을 생활이 짓드는 장소로 만들며, 공동체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건축사는 스스로 ‘만드는’ 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라도, 그는 달한 안에만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을 뿐이다.

건축사는 만드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사회적인 통념도 법이 지시하는 바를 벗어날 수 없다. 도면을 그리는 것을 설계라고 정해 두어서, 종종 ‘디자인’이라는 말로 위장해 보기로 하지만, 그렇다고 디자인이 ‘만드는’ 일을 뜻해 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우리 건축계의 유명한 식자일수록 ‘건축’과 ‘건물’을 지나치게 차별해 왔다. ‘건축’은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건물’은 ‘만드는’ 형이하학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이에, 건축사들은 더욱 더 만드는 행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건축사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건설의 프로세스 전체를 통괄할 때이다. 이때 건설은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프로세스 전체’란 건설 공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설의 공정을 훨씬 넘어, 건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세스 전체’인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 전체 속에서 통괄하여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기만 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듯 소중한 위치를 잃어 가고 있다. ■



김광현 / Kim, Kwang-Hyun, HKRFA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의학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이사 및 특별 회원

건축 전문 이야기꾼이 필요한 이유

A reason why need architecture specialized raconteur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건축사」에 글을 써 달라는 원고 청탁 전화였다. 어떤 내용을 담든 상관없단다. 그저 편집장의 한 마디 정도로 생각하고 쓰면 된다고 했다.

나를 소개했다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하니.

“상희 씨는 인문출판사에서 건축 관련 단행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

책은 누군가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간접 경험을 하며 울고 웃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때우기 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우리 출판사뿐만 아니라 몇몇 학술전문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판사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지명도가 있는 필자를 찾는다든지, 분야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적절한 선에서 자극해 주는 이야기꾼을 찾는 일에 주력한다.

건축 분야 단행본을 만드는 나도 마찬가지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블로그, 잡지나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 검색, 외국 책 검색 등. 업무의 상당 시간을 투자한다. 이야기꾼이 될 만한 필자 한 명이 분야에 인식 전제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와 같은 책 한 권이 우리의 답사 열풍을 이끌었듯이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건축 분야의 이야기꾼이 많지 않다. 전문가는 많이 있는데 이야기꾼은 많지 않다. 일반 대중이 건축에 관심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닌 전문 용어가 많이 쓰여서, 학창시절 건축을 배우지 않아서 등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굳이 이야기꾼이 필요하겠냐는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궁금하면 궁금한 사람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전문가 그룹을 따라와야지 굳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인지 건축 관련 단행본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하다못해 예술분야에서도 상위 10위권에 드는 책이 많지 않다.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책의 목적이 지식 자랑이 아닌 소통이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집을 설계할 때 그곳에 살 사람의 생활패턴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써 내려 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도입한다면 일반 독자들이 건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타다오 안도나 렘 콜하스와 같은 건축사의 강연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지식 욕구를 제대로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건축 전문가들 밖에 없다. ‘우리들끼리의 소통’이 아닌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책을 이용해 좀 더 많은 대중들이 건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떨까. ■

이상희 / Lee, Sang-hee
도서출판 동녘 문화예술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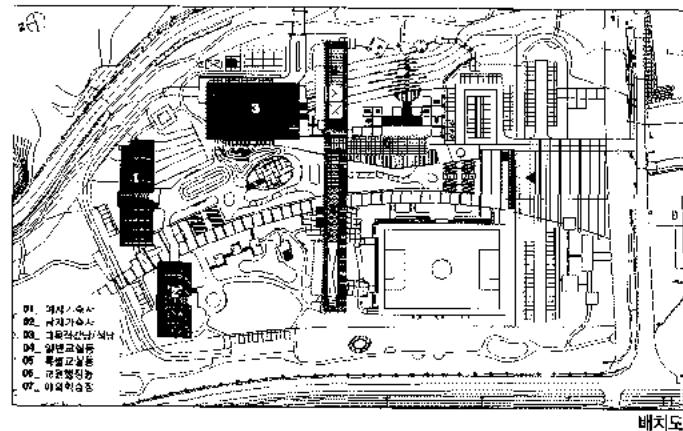
- 덕성여자대학교
- 월간 C3 편집부
- 『한국건축 임시수첩』, 『한국건축 용어사전』, 『강각의 단면』, 『건축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덕수궁』 등 기획 및 편집

강원외국어고등학교

Gang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김영찬 / 정희원, (주)업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chan, KIRA



배치도

1. 예술가수사	2. 국제기숙사
2. 국제기숙사	3. 그린아트센터(남부)
3. 그린아트센터(남부)	4. 일반교실동
4. 일반교실동	5. 특별교실동
5. 특별교실동	6. 운동장
6. 운동장	7. 아동학습장

7. 아동학습장
6. 운동장
5. 특별교실동
4. 일반교실동
3. 그린아트센터(남부)
2. 국제기숙사
1. 예술가수사

CONTEXT / MAX COMPLEX

굽이굽이 산으로 둘러싸인 국토의 정중앙 양구.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계획될 대지는 북쪽에 양구선사박물관, 서쪽의 청정호수 파라호, 동쪽의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길게 굽어진 경사진 대지이며, 그곳엔 맑은 공기와 투명한 햇빛,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교육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도는 교육의 랜드 마크로서 이곳 양구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외국어 및 다양한 문화를 교육,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공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신개념의 학교를 계획하였다.

GREEN DECK / CAMPUS STREET / LIGHT ATRIUM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설계 초기부터 주된 개념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구상되어졌다. 대지 내 경사진 레벨차를 이용하여 그 위에 바람 길을 만들어 건물에 배치하였다. 파라호와 산의 흐름에 평행으로 놓인 Green Deck는 남북방향으로의 주된 보행축이 되어 각 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층의 Campus Street는 실내에서 행정 및 공용시설, 선운을 잇는 전천후 보행공간이며 2층의 Green Deck는 교실동 및 기숙사, 다목적 강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길, 광장 그리고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다목적 전망공간이 된다.

일반교실동과 기숙사동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교육 및 거주의 쾌적성을 고려하였고 데크와 중첩된 각 동은 이트리움 공간으로 통합되며, 이 공간은 실내 깊숙이 자연 채광되어 활기찬 커뮤니티와 다양한 흐름이 공존한다. 외부공간은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 공간 사이사이에 중국, 일본, 영국 등 다문화 테마정원으로 조성하여 이벤트와 전시, 축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정문과 일반교실동의 형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통일성 있게 표현하여 강원도 최고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이미지로 부각시켰으며, 내외부의 친환경 재료사용으로 친숙한 자연친화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2010년 3월에 개교한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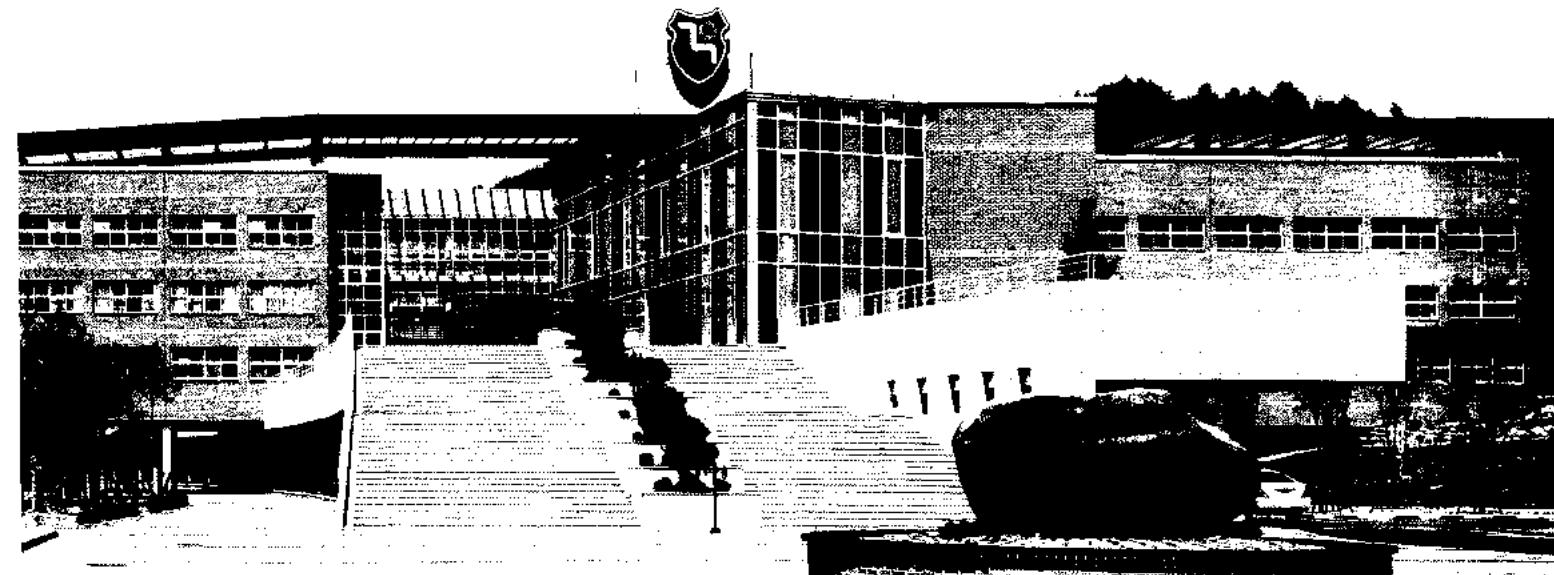
자연의 품안에 놓인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 도약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지역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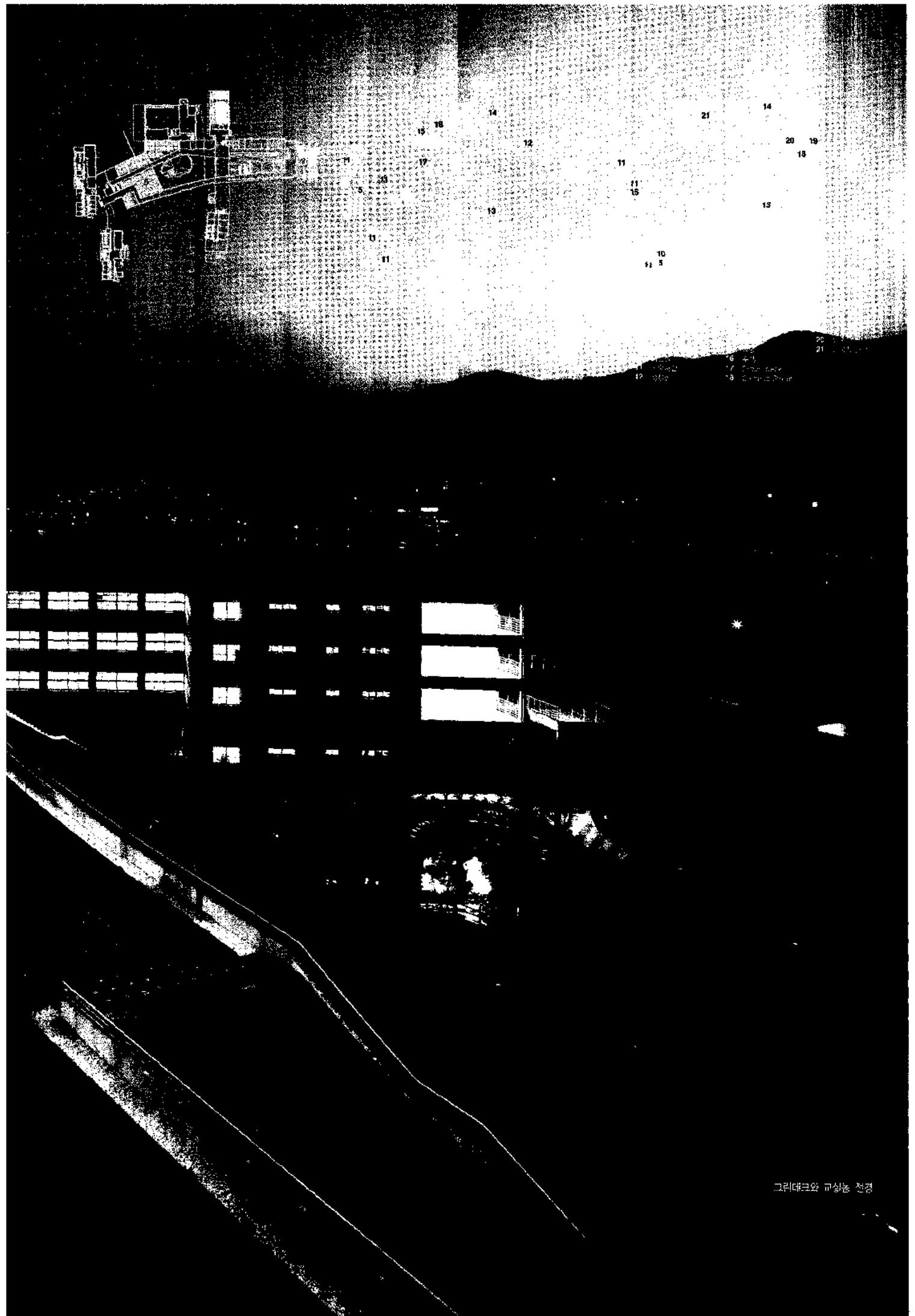


미국 뉴저지 주 브루클린 기술사 전경

정문에서 바리 쿤 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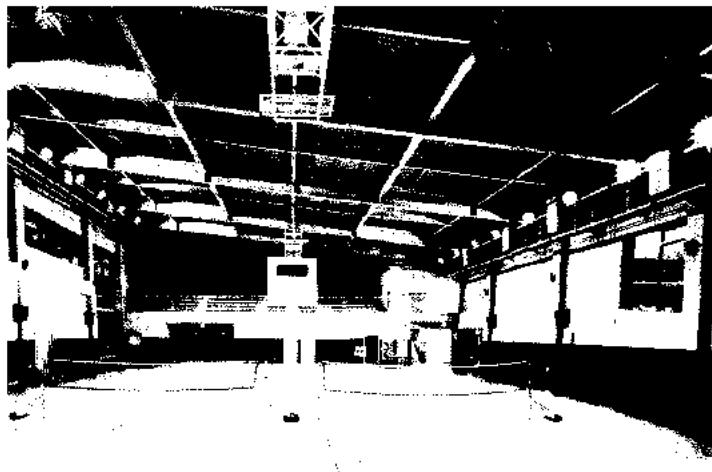
그리대크와 교상동 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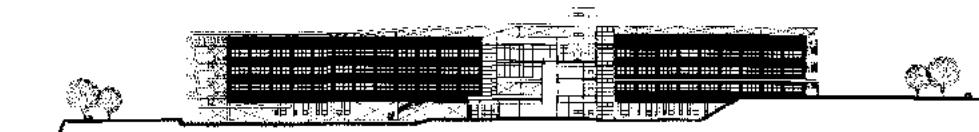
석당 내부 전경



선蝼파 교실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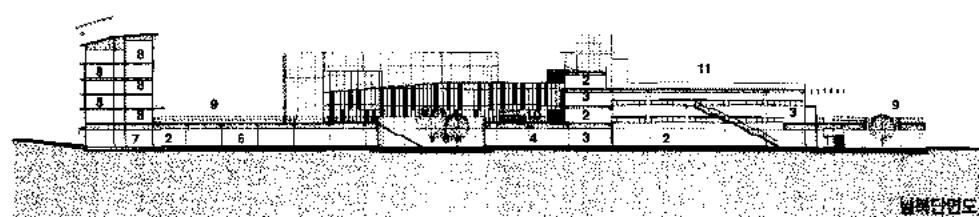
Campus Street



남쪽면도



서쪽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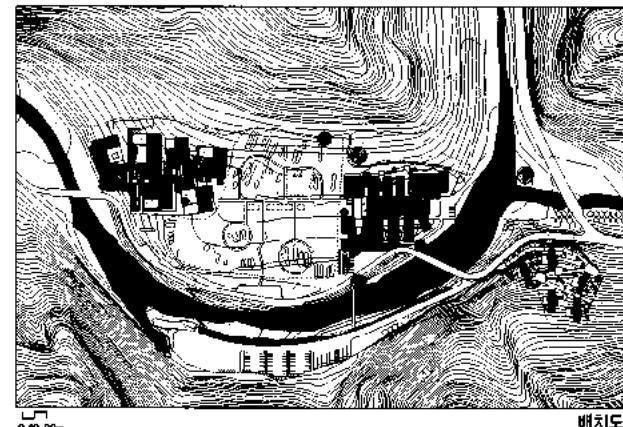
- 01. 출입구
- 02. 산사동
- 03. 풀
- 04. 명랑실
- 05. 선관
- 06. 관리실
- 07. 카트리니스룸
- 08. 기숙사
- 09. 휴게대크
- 10. 문화관광장
- 11. 옥상휴게경원

전통 불교 통합지원센터

Traditional Buddhism Center

승호상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지

by Seung, H-sang, KIRA



0 10 20m

배치도

대지면적	총넓이 6,700m ²	구조	지상 3층
기수면적	500m ² 향토	구조설계	한글판 크리트조+풀널조
기수면적	개장면적 100m ²	외부마감	현무암, 복층유리, 목재, 티타늄
주요면적	교회, 수원, 치원	내부마감	아크릴, 페인트, 합판, 철도, 목재, 아크릴, 페인트
대지면적	14,007.00m ²	구조설계	서울구조
건축면적	8,745.93m ²	기계설계	세이밍
당면적	9,000.46m ²	전기설계	우월전기
감세율	30.8%	사용사	평등연방
등록률	64.8%	설계담당	이기태

전통 불교 통합 지원 센터

불교건축이 현대건축에서 공백으로 기록된 까닭에 조선시대의 승유배불정 책의 시유가 크긴 해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불교계의 옛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불교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이 건축의 건축사로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힘든 과정이 지나서 조계종의 지도자들은 진보를 택하고 이 건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불교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비움이었으며 불교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비움은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의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했다.

대지는 설계 전에 이미 조선시대 기와 가마터가 다량으로 발굴된 터라 가운데 많은 부분이 건축금지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불교계로서는 불행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히려 다행이었다. 타의에 의해서지만 대지의 중앙부분을 크게 비울 수 있었기 때문이며 자연스레 건축은 끝 부분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비움의 드라마틱한 사운드가 시작될 수 있었다. 대단히 많은 마당들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건축은 그 마당을 한정하는 요소일뿐이며 이곳저곳의 마당들은 스스로 존재방식을 가지며 서로 연결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거주의 혼적을 담는다.

재료 또한 나무와 돌과 흙이다. 결국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들이다. 남는 것은 비움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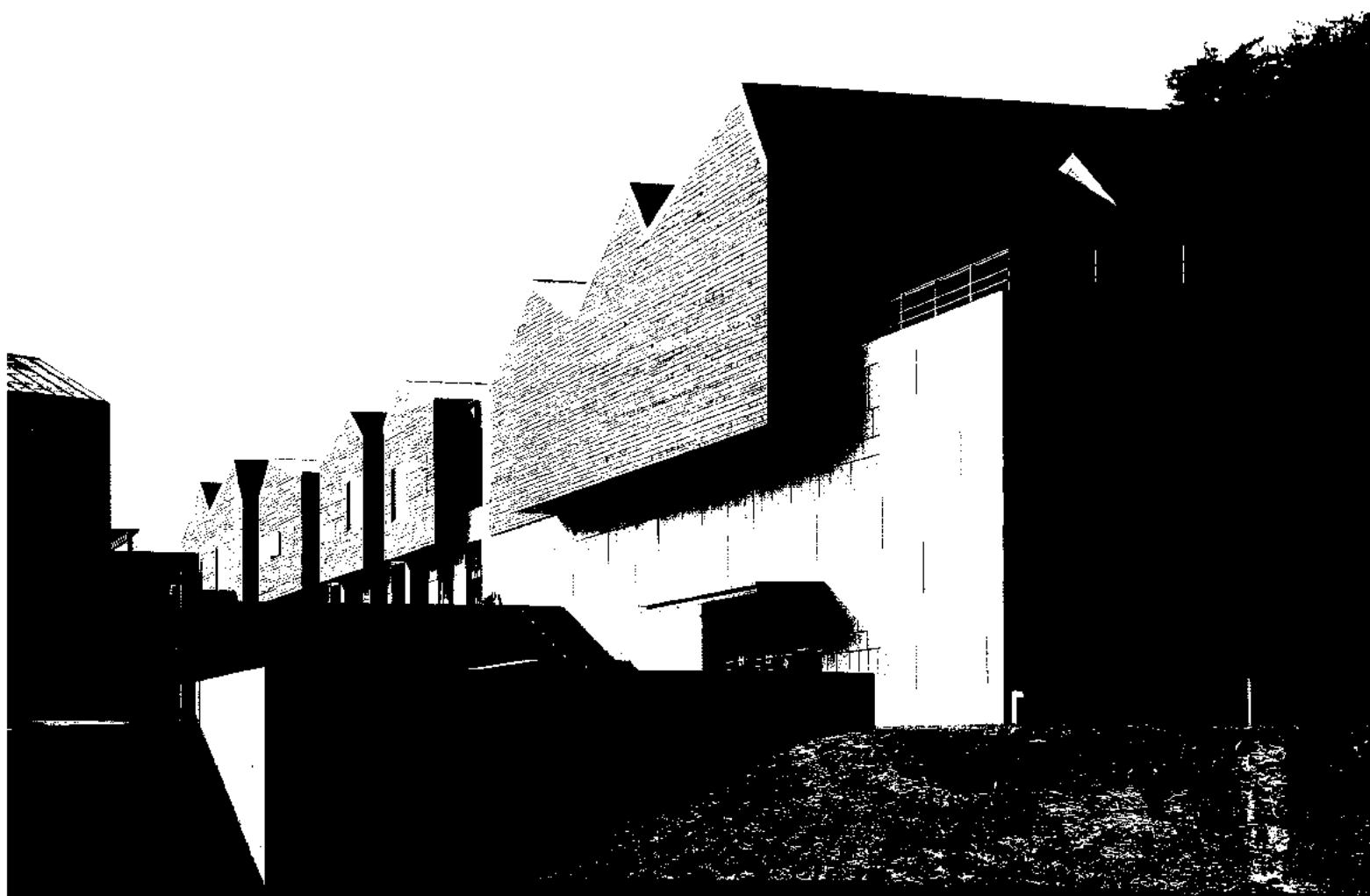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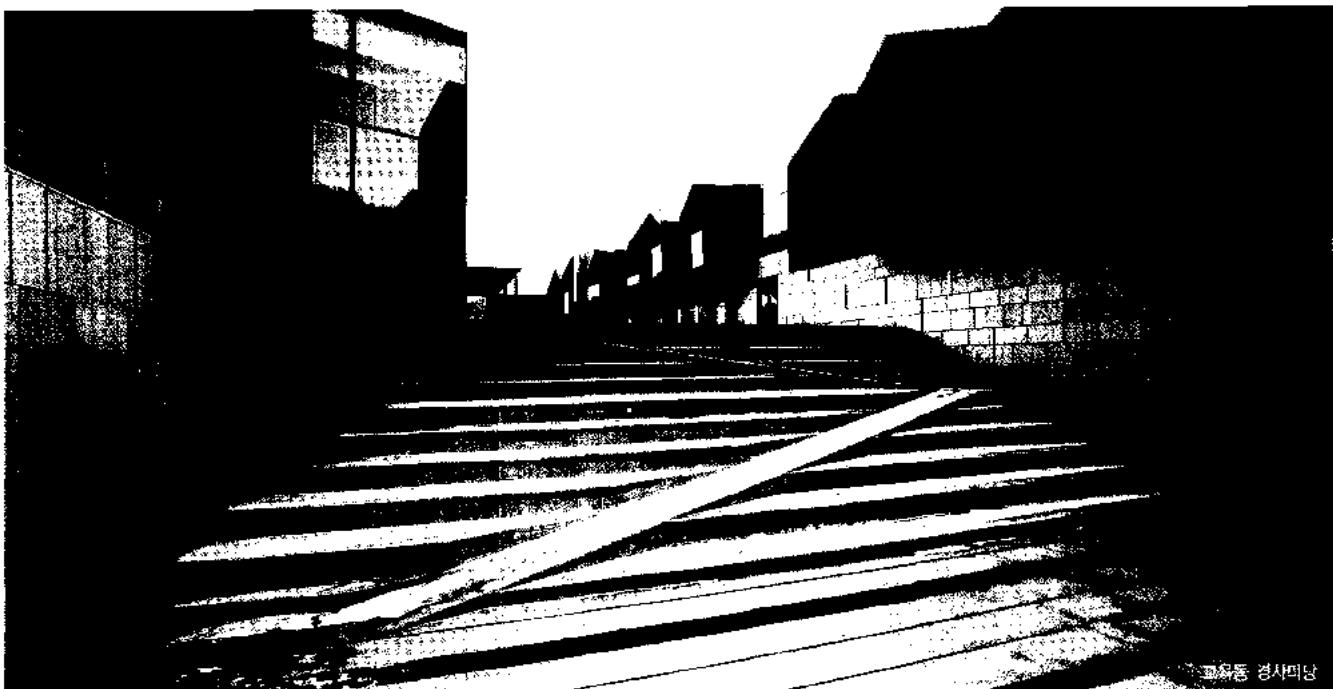


전경



교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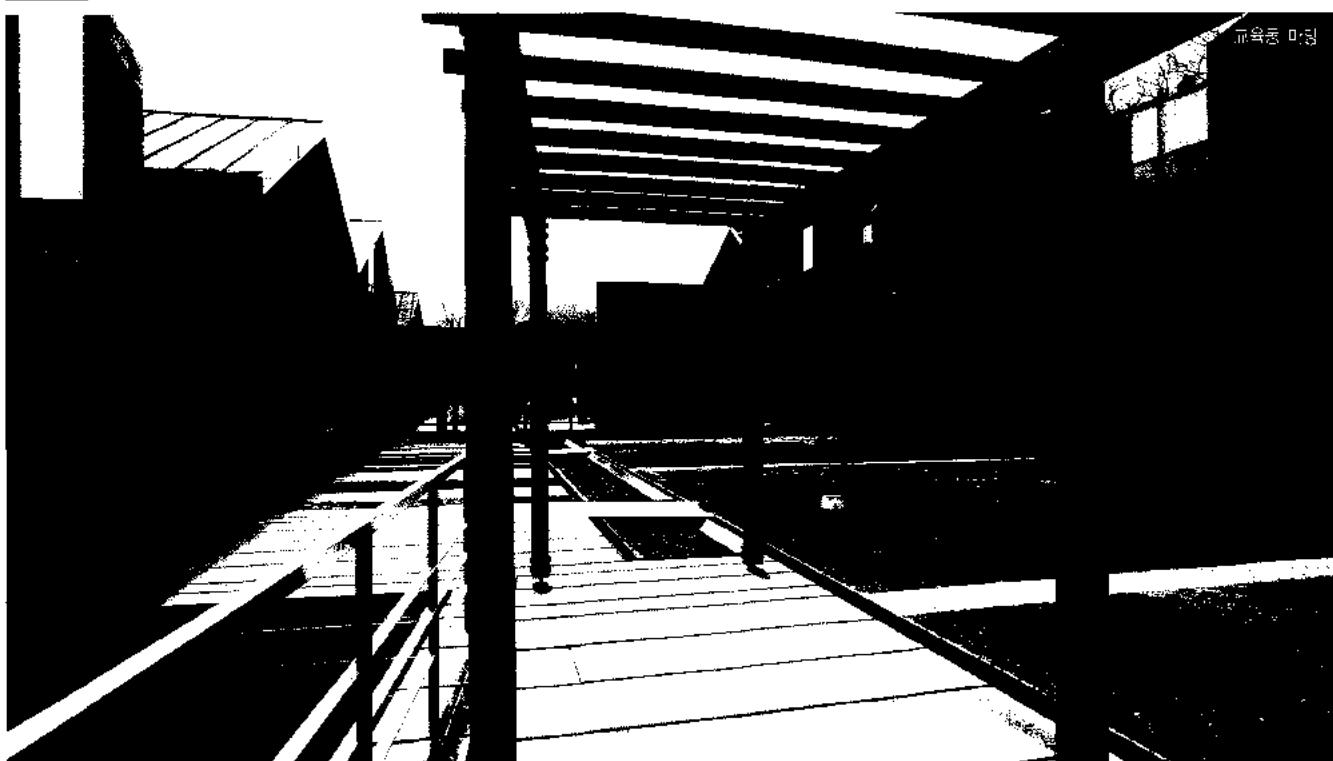




교육동 경사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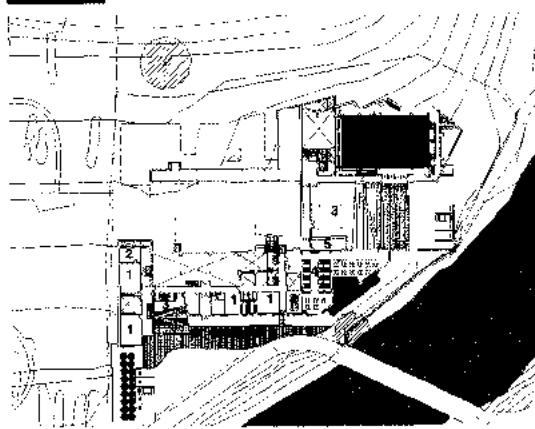


교육동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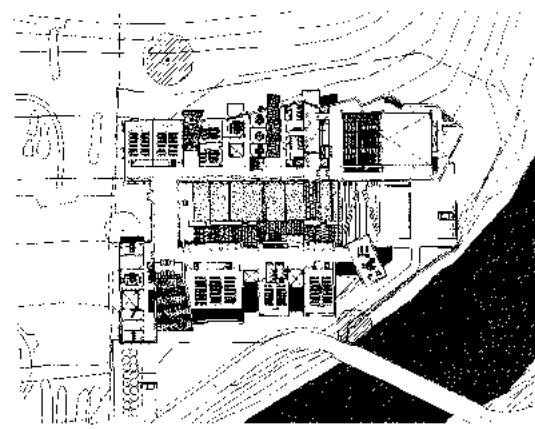


교육동 마당

교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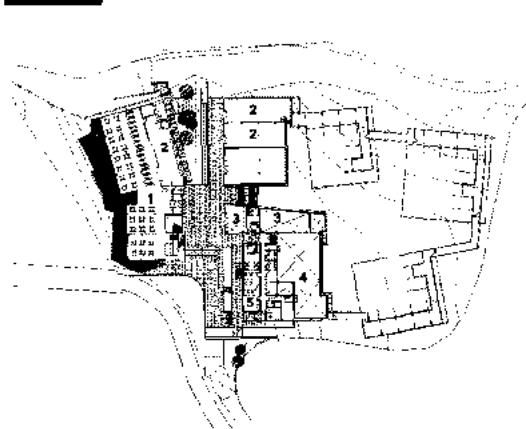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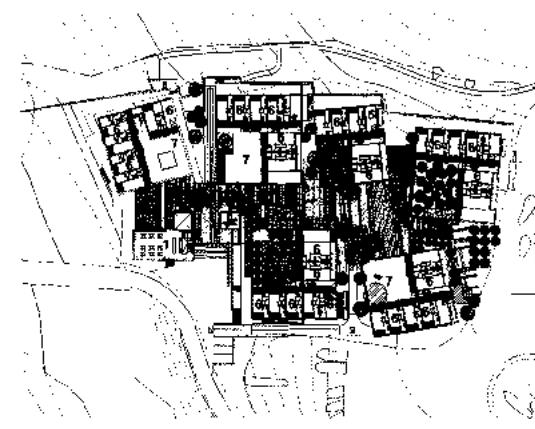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사무실 04_ 레스토랑 07_ 접수처
02_ 컴퓨터실 05_ 누일 08_ 회의실
03_ 광고 06_ 다크호 홀 09_ 조정실
10_ 강당(大) 11_ 강당(中)
12_ 강당(小)

숙박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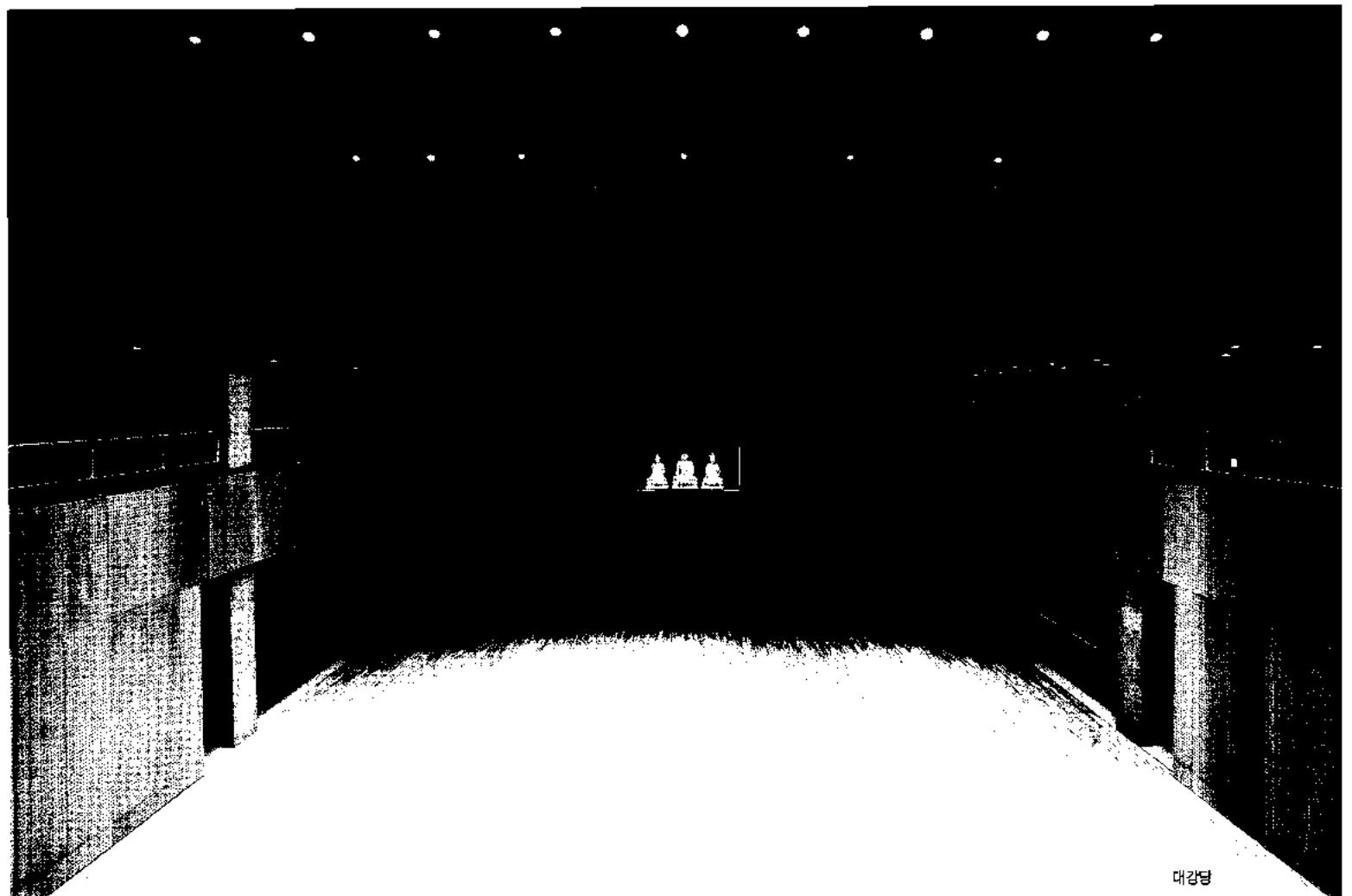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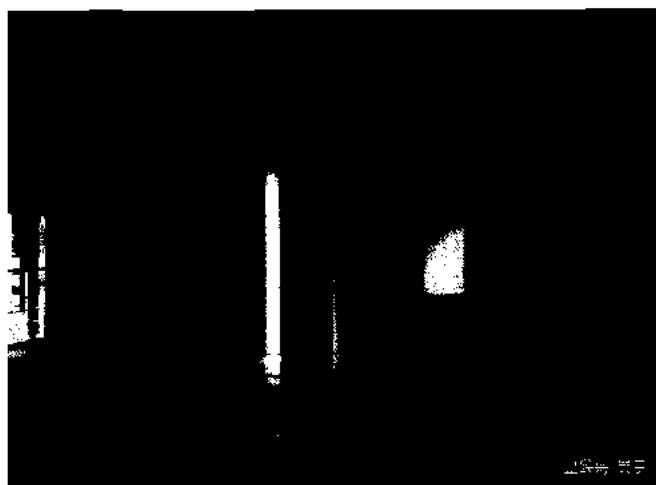
01_ 카페터리아 04_ 기계실 07_ 암굴
02_ 난방 05_ 경수처 06_ 숙소
03_ 한기실



숙소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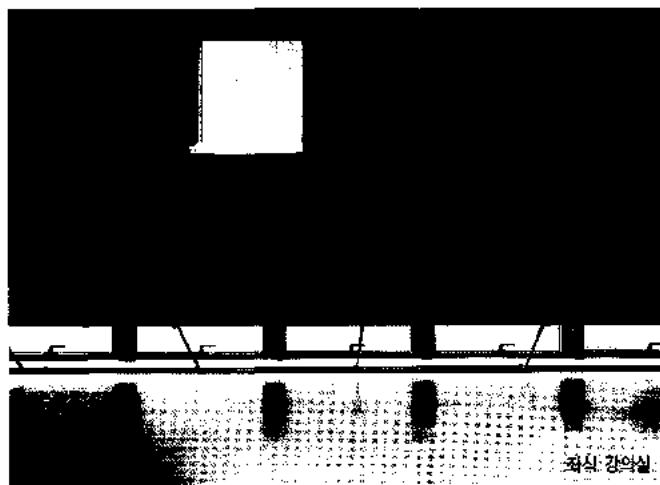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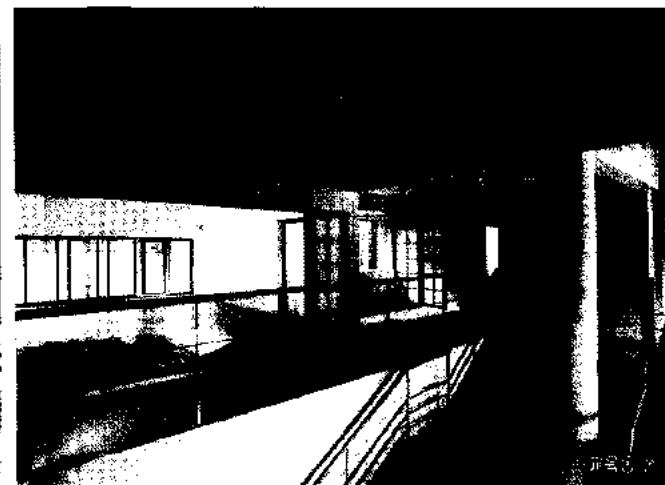
교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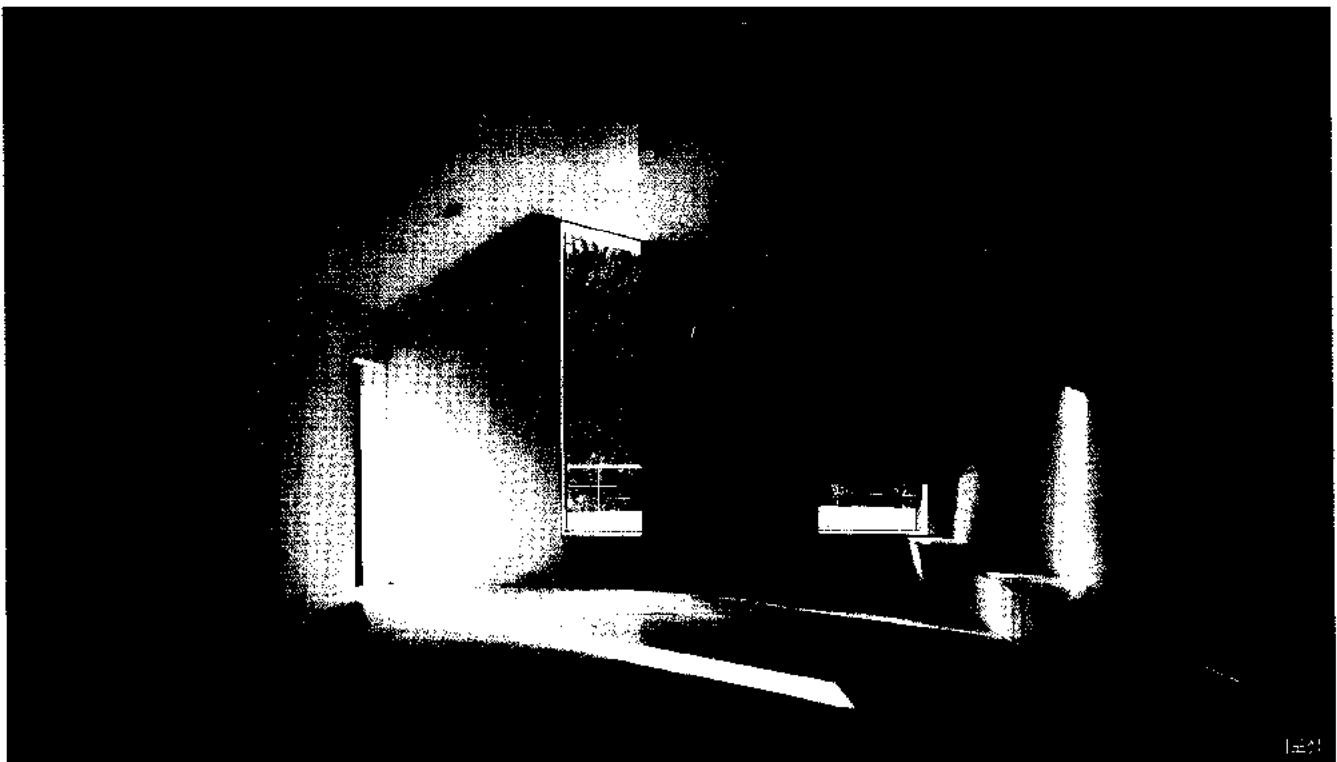
중강당



작시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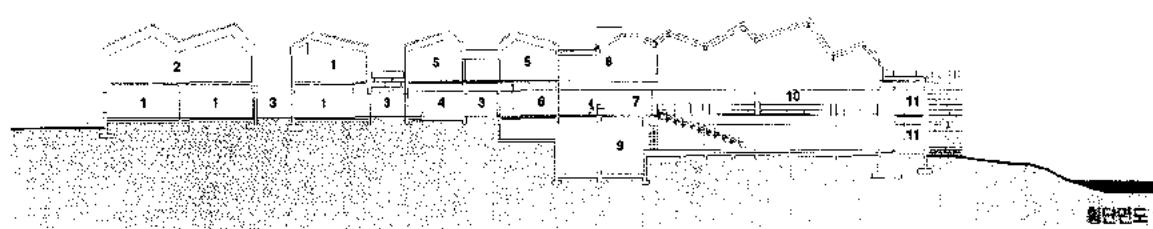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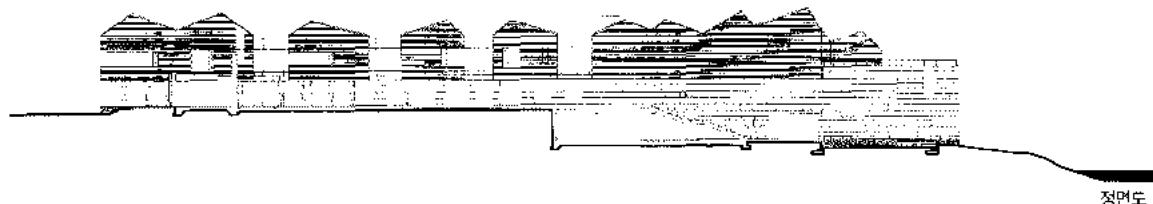


교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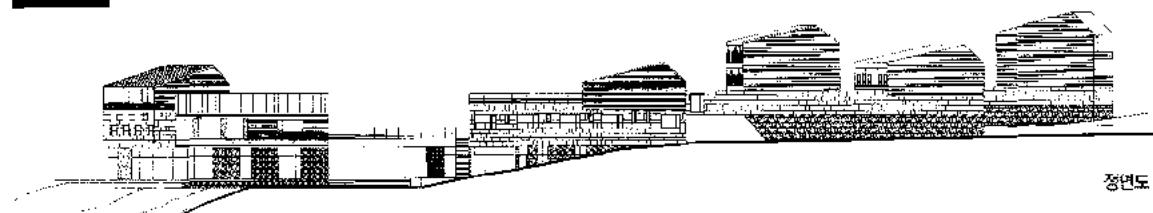
[도식]

교육동



- 01_ 중앙(小)
- 02_ 중앙(大)
- 03_ 마당
- 04_ 회의실
- 05_ 대설(tea-room)
- 06_ 회장실
- 07_ 갤러리
- 08_ 창고
- 09_ 기계실
- 10_ 디스플레이
- 11_ 순如果说

숙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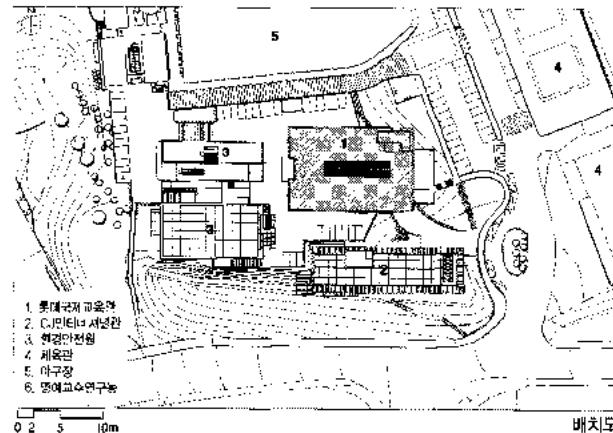
- 01_ 카페테리아
- 02_ 부엌
- 03_ 마당
- 04_ VIP 숙소
- 05_ VIP 카페테리아
- 06_ MICE홀
- 07_ 생활 편의시설
- 08_ 인물

롯데국제교육관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 Hall

안우성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by Ahn, Woo-sung, KIRA



대자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895.659m²

건축면적 1,345.19m²

연면적 5,290.27m²

건폐율 0.03%

용적률 24.16%

규모 지상 6층

구조 R.C조

외부마감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미송널마감,

내부마감 천정_콘크리트면처리, 외이어메쉬, 이스
칼텍스 / 벽_플라카보네이트, 자작나무,
노출콘크리트 미송널마감 / 바닥_화강석,
목재클래이어링, 디렉스터일
구조설계 (주)미래에스디지
설비설계 (주)H&C기술사무소
전기설계 (주)한양전기
사공사 (주)롯데건설
설계담당 신현준, 이종민
외부마감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미송널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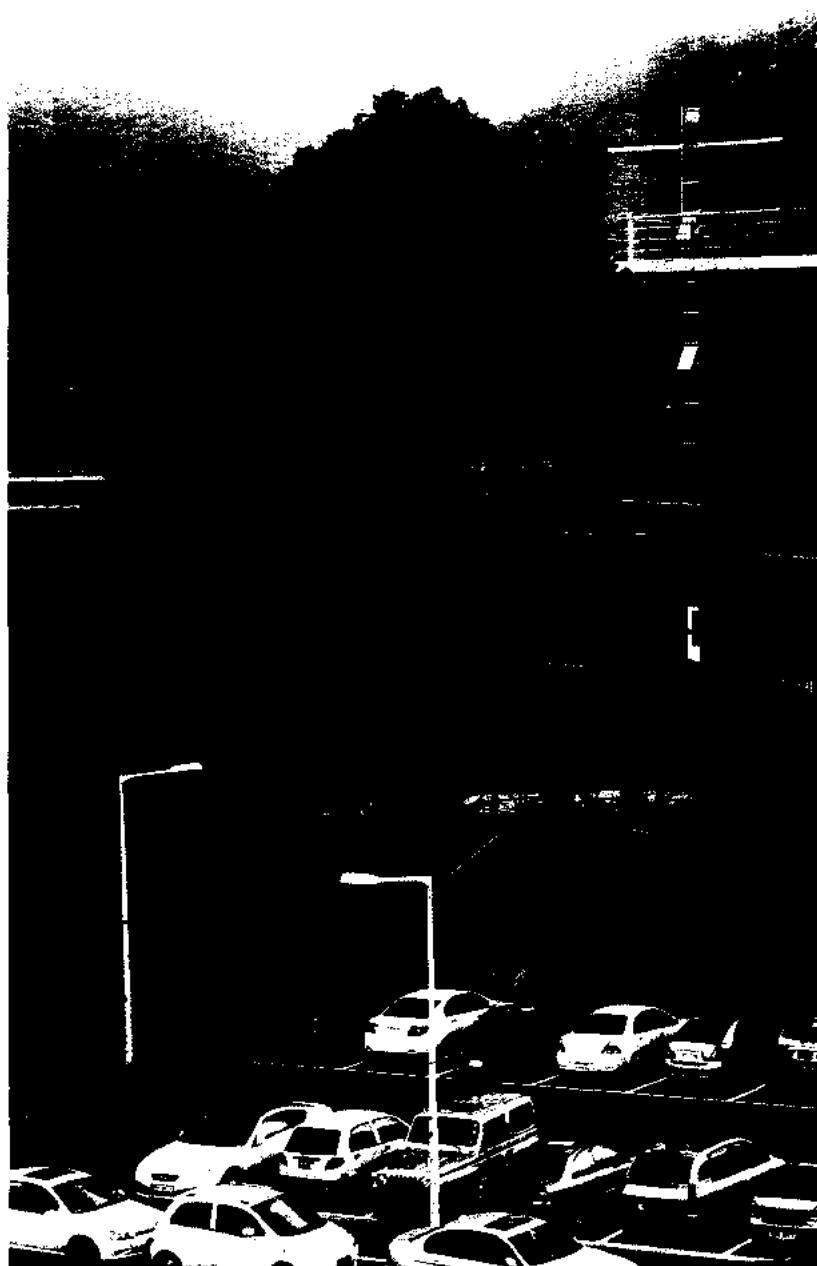
대자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200여동이 넘기 바忤되어 있는 도시이다. 1970년대 말에 1차 완성된 캠퍼스는 학생수의 증가와 연구시설의 유치로 초기 조성면적의 2배에 가까운 건물이 들어섰으며 고노세한 등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공간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편의한 사설을 짓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순환도로에 면하여 있는 CJ인터넷내셔널 건물 북측에 위치하여 정문과 멀지 않은 곳이지만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아니다. 당시의 고저차이는 약 6m이며 주변에 운동장과 체육관, 명예교수 연구실 등이 위치한다.

부지의 남쪽에 위치한 CJ인터넷내셔널은 2층이므로 남쪽으로 개야산 소방이 가능하며 북쪽으로는 야구장과 봉천고개의 녹지가 관찰된다. 주변에 남아있는 기존 수목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서쪽의 낮은 곳에 주차장을 배치했다. 주차장으로의 접근은 기존 북측의 접근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의 접근은 CJ인터넷내셔널 건물과 농축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계획으로는 CJ건물 기능이 확충되는 것으로서 서로 브리지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 서측은 레벨이 낮고 환경안전원 건물이 위치한다. 주변의 건물들은 주로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 서울대 롯데국제교육관은 외국인 교수와 우수 학생들을 유지하고자 조직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네장학재단이 출연한 기금으로 건립되게 되었다. 다양협력본부를 중심으로 국제학회 사무실, 외국인 교수 연구실, 세미나실, 글로벌커리어지원센터 등이 들어가며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을 유치하고 한국과 학교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념 몇 해 전 브리지 네트워크 빌딩을 완공하고 건축잡지에 개념에 관한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학교건축 유형을 탈피한 건축형식에 관한 것과 지형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수직적 비율으로 극복하는 사례였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여지는 학교건축의 유형이란 작은 병들의 나열이며 주로 중복도, 단복도 혹은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학교건축은 표준설계에 따라 수없이 같은 건물을 압신했으며 뒷막이 저렴 똑같은 교실에서 다복식으로 송한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학교건축은 청의적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학교안에서 창의적인 교육으로 인재가 길러지는 것이다. 물론 건축 자체만으로 그럴 수는 없다.

브리지 네트워크빌딩을 설계하면서 학교건축의 유형을 탈피하고 학교를 고성하는 개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지하공간에 놓을 노입하고 유형을 탈피한 노력은 좋았으나 불행하게도 전면의 왜소함과 후면 대수의 단순함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





롯데국제교육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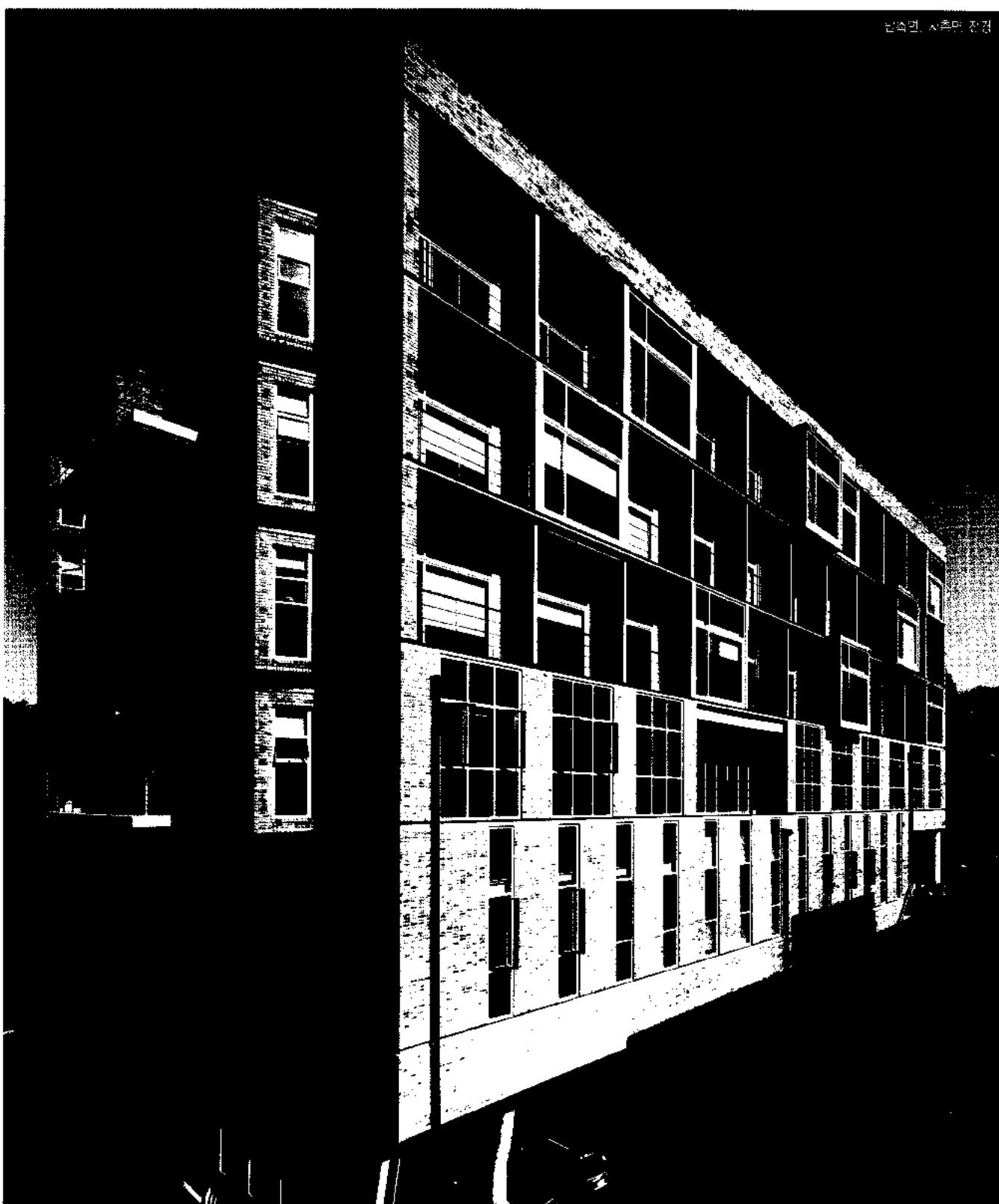
서울대 국제교육관은 브리지네크워크 빌딩과 개념이 비슷하지만 공용공간과 개별공간의 구분법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각 개별공간의 위계와 크기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같은 교수실도 크기를 다양화하여 매스를 둘출시키고 여러 개의 교수실사이에 공유되는 라운지를 마련하여 교수들 간에 카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공간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의 영역이 서로 융합되고 영역을 교환하여 다원성을 살렸고 일률적인 개별공간이 나열되는 것을 피하였다. 공용공간의 중요성만 강조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개별공간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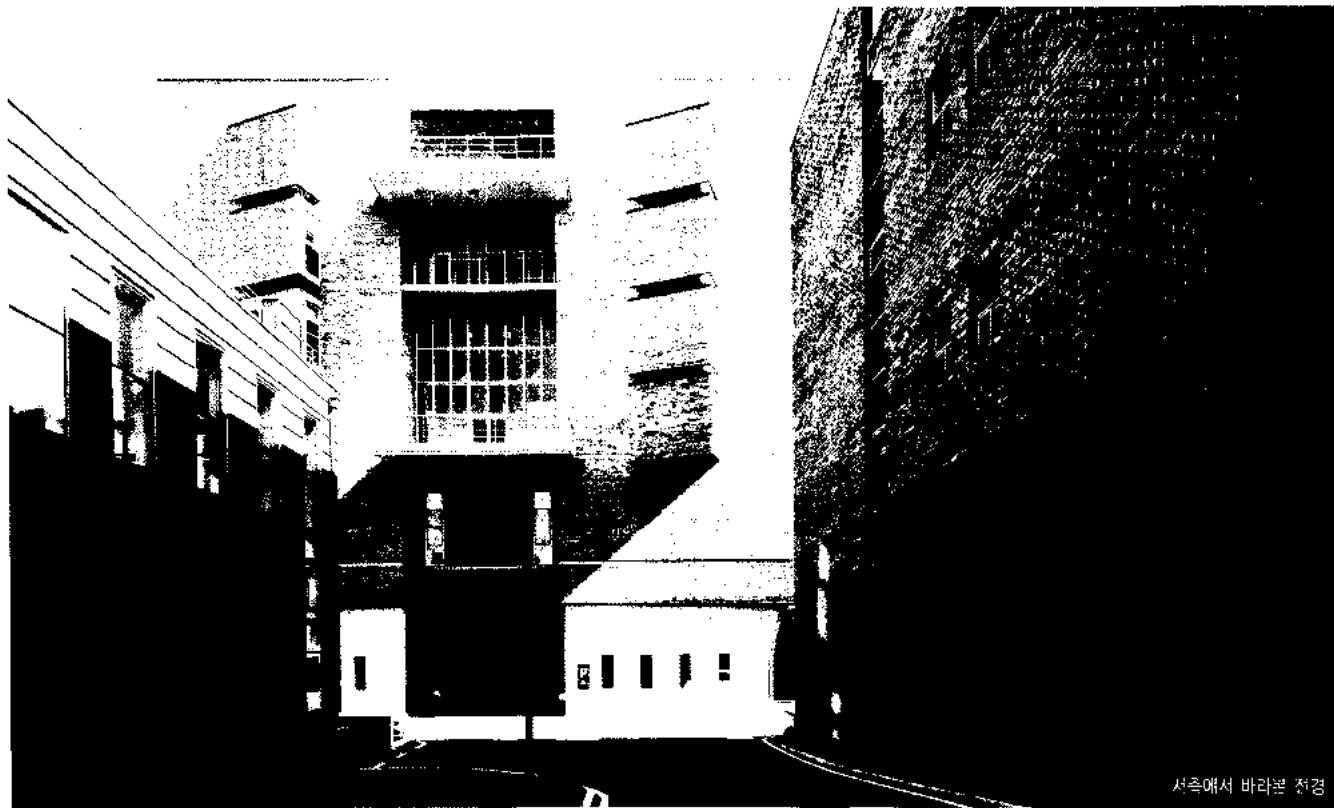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수간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며, 국제교육관에서는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 출발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아내기 위하여 교류와 소통을 주제로 삼았다. 즉 교육의 본질은 전달과 교화가 아니라 교감과 지식의 공유라고 정의하였다. 공용공간에서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의 교차가 물리적으로 관찰되고 이것이 곧 건물을 구성

하는 모든 개체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프로그램과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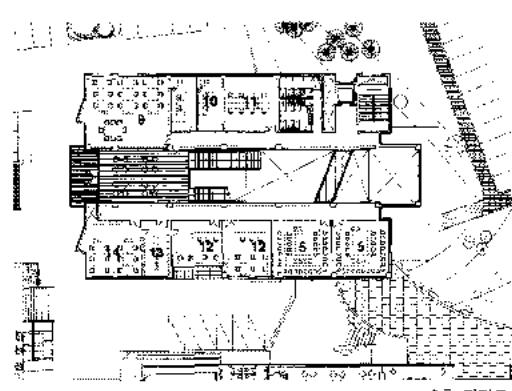
또한 공용공간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천장을 가진 아트리움을 중간에 두어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두 개의 분리된 매스를 연결하는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인 계단을 모두 아트리움에 배치하여 시각을 열어주었다. 공용공간에는 개별공간인 연구실이나 세미나실이 들어가기도 하고 커다란 라운지가 위치를 달리하며 배치되었다.

재료_주변 건물이 주로 벽돌로 되어 있고 계획초기에는 기존의 CJ건물과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외벽재료를 결정하면서 주변 건물의 외벽재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장기계획(2007~2011)을 참고하고 권역별 성격을 반영하여 벽돌로 정해졌다. 내부는 노출콘크리트와 폴리카보네이트, 자작나무합판이 충별로 나뉘어 쓰였다. 예산의 한계와 감리업무를 보지 못하여 일부재료 및 디테일이 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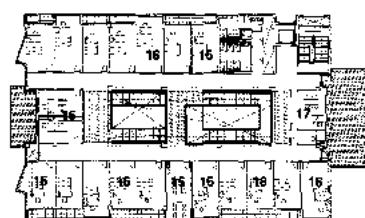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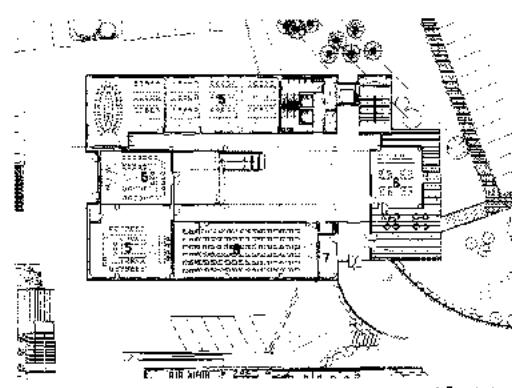
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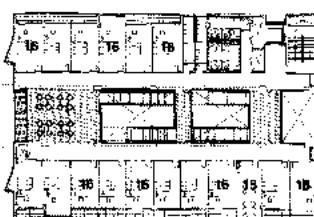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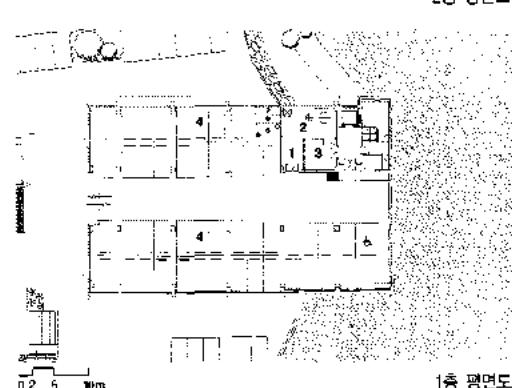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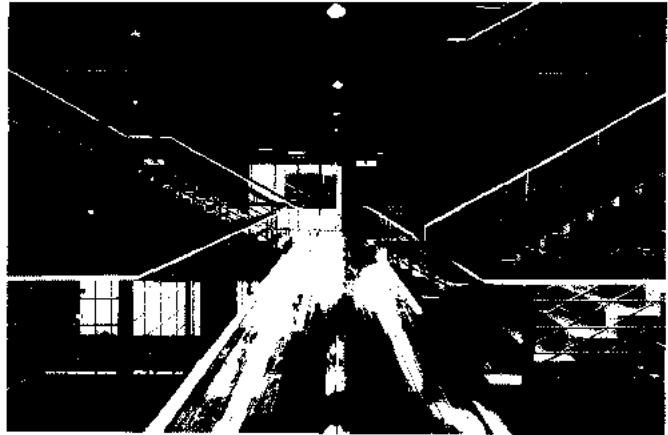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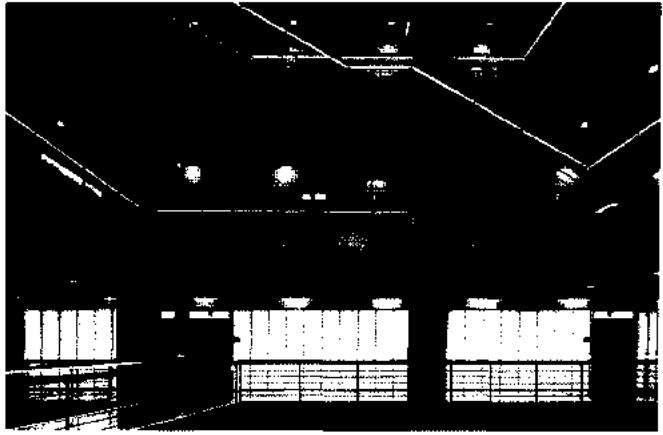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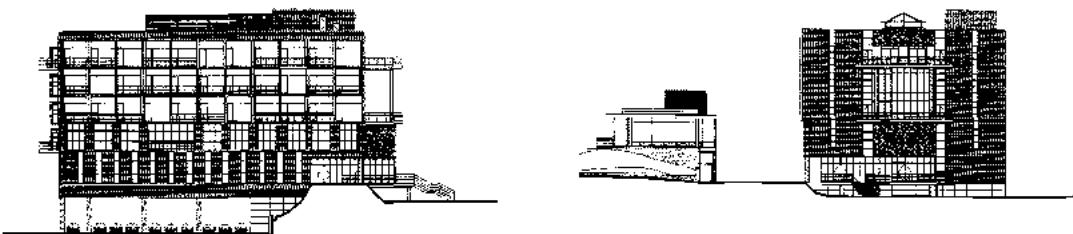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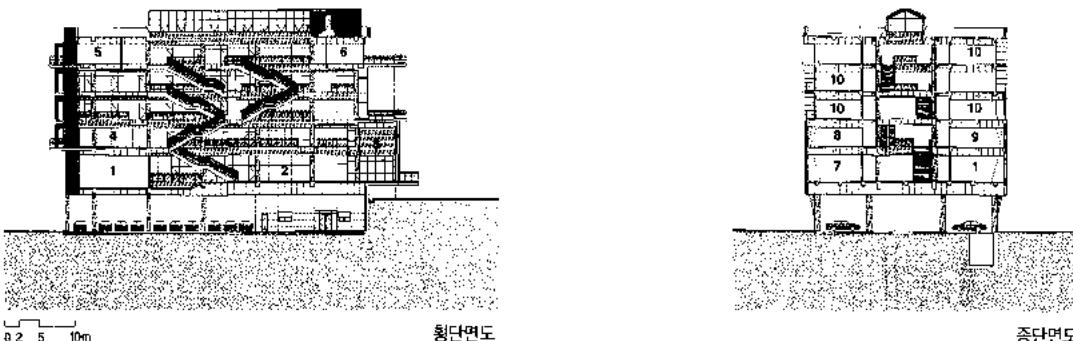
- 01. 전시실
- 02. 기계실
- 03. 창고
- 04. 주차장
- 05. 세니터숍
- 06. 카페테리아
- 07. 팔리아
- 08.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실
- 09. 사무실
- 10. 국제학회 사무실
- 11. Asian Research Center
- 12. 임포대회 사무국
- 13. 자료실
- 14. 대하동우동 예비실
- 15. 휴게실
- 16. 조성교수실
- 17. 일정실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 | | |
|-----------|---------------------------|
| 01_ 시미나실 | 06_ 원장실 |
| 02_ 로비 | 07_ 대학본부총 예비실 |
| 03_ 카페테리아 | 08_ 외국대학 사무관 |
| 04_ 강당지 | 09_ Asian Research Center |
| 05_ 층별교수실 | 10_ 군자학회사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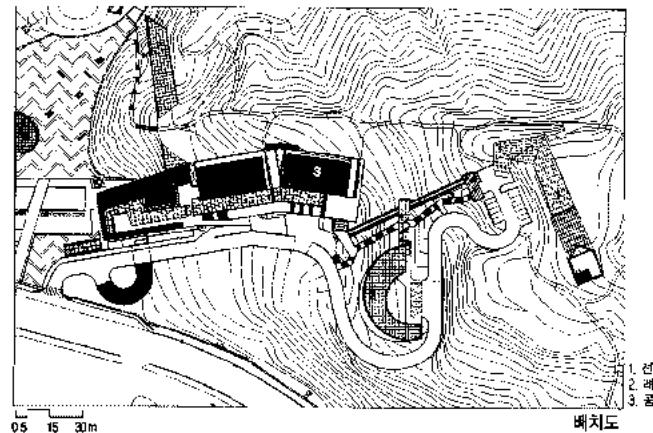
3층 대강당

북서울 꿈의 숲 문화센타

Dream Forest Art Center

박유진 / 정희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간

by Park, You-jin, KIRA



대지위치	서울시 강북구 우편 번 20-6번지	대지면적	1,616.76m ²
사면지구	도로, 산지, 철도, 통신설비기지와 일반비정지구	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주조물도	종류: 지상	외부마감	비단, 화강석, PVC타일, 바닥강화재, 카
내지면적	662.82m ²	페티밀 외 7개 사업, 석고보드와 페인	트, MDF와 김워 우드 외 / 현장 쟁고
건축면적	10,487.97m ²	보드와 페인트, 매립마루 외	
전 면적	22,283.61m ²	구조설계	(주)단구조
전 평면적	1,586m ²	설비설계	(주)세이엔지니어링
총 평면적	2,236m ²	전기설계	은세기술(주)
기타	관련설계자 2명, 자산 3명, 콘스트, 시공사 제작사 1명, 운송업체 3명, 공사 소재제공업체 1명, 자산 3명, 이 용권자 1명, 자산 3명, 관리자 1명	시공사	(주)한성상사

공원건축_과거 드림랜드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세우하던 이곳은 추억의 장소로만 기억될 뿐 디 이상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전에 몇 차례의 변신을 시도하지만 결국 총돌스러운 모습으로 폐쇄되어 방치된 이곳은 과거의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인문적 환경을 토대로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원으로 될 비꿈하기에 이른다.

국제 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Open Field'라는 개념의 공원 마스터 플랜이 채택되었다. 이는 단순히 폐허로 비워져 있던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시설로 채우기보다는 도시의 여백으로서 지역과 주민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쓰임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주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 'Open Field'라는 개념은 건축 프로그램과 공원조경의 자연스러운 조합으로 완성되었다. 전체공원 제작 안에서 '건축'과 '조경'이 분리된 재료는 공원의 통일된 개념 제작의 완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사을 동북지역의 공원과 문화시설의 부족을 고려하여 공원이 가져야 하는 기능으로서의 확대된 역할까지 고려하여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내 적절한 장소적 의미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곳에서 각각의 건축물을 그 장소의 오브제가 되었다.

오브제로서의 건축물_환경속 개체로서 독립된 오브제 성격이 강한 건축물들이 공원 전체를 애션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존재의 의미들을 보여준다.

각 건축물들은 공원의 중심축에서 비켜선 채 공원 외곽들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중심축과 교차하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쪽에 의해 연결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소영역을 형성해 중심에 서기도 한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공원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건축물들이 일종의 공원 내 거대한 조형물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에는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이야기 거리가 존재한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고려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된다.

공원 CONTEXT의 수용_공원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역사성과 지형적 특성 그리고 공원마스터 플랜에서 보여주는 문화공원으로서의 Context는 궁원과 건축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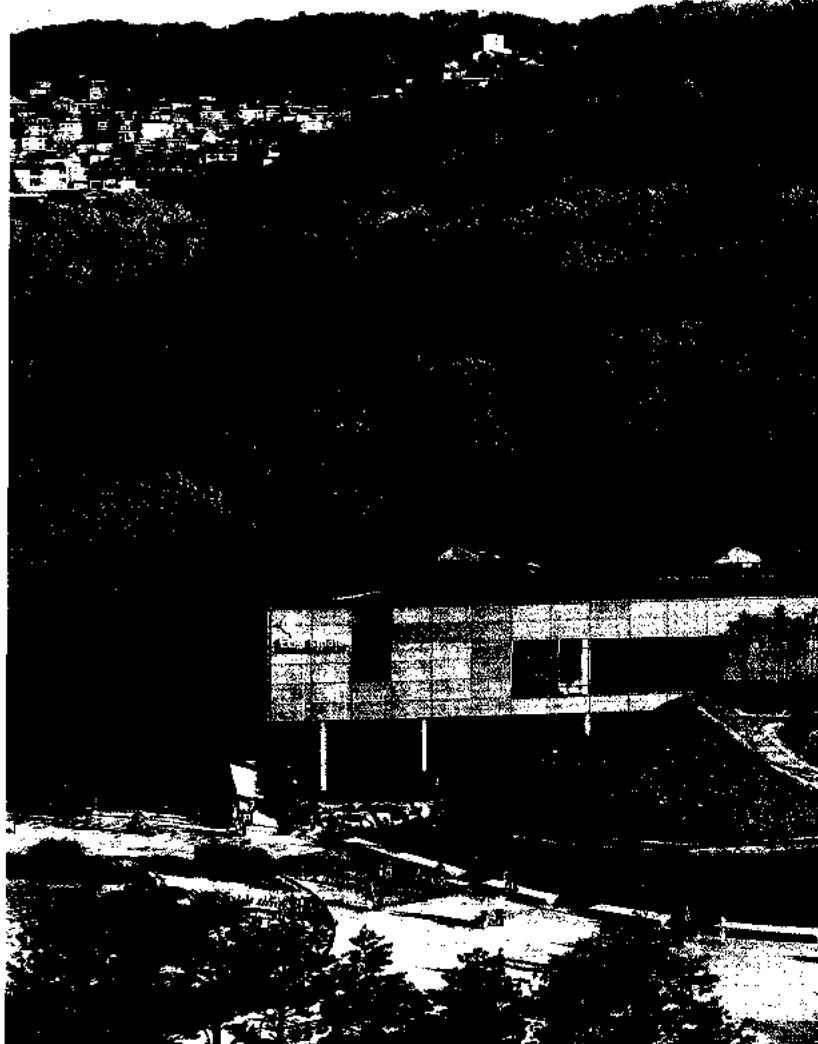
공원내의 지표면들은 경시지의 표고높이에 따라 생동감있는 다양한 굴곡을 지니고 있으며 진입로에서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시작적인변화 뿐만 아니라 동선의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건축물들은 터를 잡는데 있어 동일한 조건을 가질수 없음이 계획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변화구성한 패시드(Facade)의 구성이 없이도 독특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Open Field'의 중심공간인 청운담원 미당의 대광간의 외곽에는 건축물의 존재가 공원의 조경공간과 융합 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 공간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다.

그 중 글래스파라미온은 초승달 형태의 점자작업으로 지중형 시설로 계획하여 지붕선이 보이는 아는한 외부공간을 가지게 되었고 조경공간에 원진히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 건축물은 내부에서 이용자들에게 외부의 풍광을 척극적으로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단절된 내부와 외부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있는 통합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또한 미술관은 청운담원 미당의 한 편에서 그 존재를 은은하게 보여준다. 진입로에서 동선의 흐름에 따라 미주치게 되는 청운담원 미당과 미술관의 모습은 마치 공원내 상징적인 조형을로서의 표징을 보여준다. 이 미술관의 데크공간에서도 공원의 외부모습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으며 정면의 신자리에 감추어져서 살짝 드러나 있는 전망대 상





경시울 꿈의숲 문화센터-2



주광더

북서울 꿈의숲 문화센터-1



부의 모습은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은 공원 구석구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공연장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문화센터는 과거 눈썰매장이었던 급격한 경사지형에 배치하여 경사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단면계획을 구성하여 도심지에 있는 공연장 단면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지형에 최대한 순응하여야 하는 이 과제는 계획적 측면과 시공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동선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문화센터의 파사드의 전개는 다양한 형태와 표정을 보여주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과의 동선유입이 자유롭게 구성되어 일서 말한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선의 최종 정점이 되는 전망대는 산의 정상에서 살짝 비켜서 있어 정상의 자연을 헤손하지 않고 산의 정점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공원 전체와 북한산 등 서울 외곽의 수려한 배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때문에 전망대로서는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기준의 경사지형의 상징성을 가진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매스와 형태의 전개는 과거 눈썰매장의 전체 지형을 따라 공연장의 진입 출에서부터 전망대에 이르기 까지 지형에 완전히 융합되어 자연과의 통합적인 전개를 주 개념으로 하고 있다. 건물의 일부가 때로는 대지에 묻히면서 때로는 대지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정점에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한 채 하늘로 비상한다.

이러한 건축적 언어의 전개는 자연과의 소통을 고려한 절제된 질감과 색상을 보여주는 재

료를 선택하게 한다. 아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융합과 전개 이외 시각적 또는 관념적인 통합의 전개를 보여준다.

이 전망대는 드림랜드라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줄서 기다리면 과거의 추억을 회고할 수 있는 장소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용자들은 동선의 흐름에 따라 공원 전체에서 보여주던 최정점의 호기심을 해소하기위해 모여들게 되고 그 곳에서 과거의 추억을 회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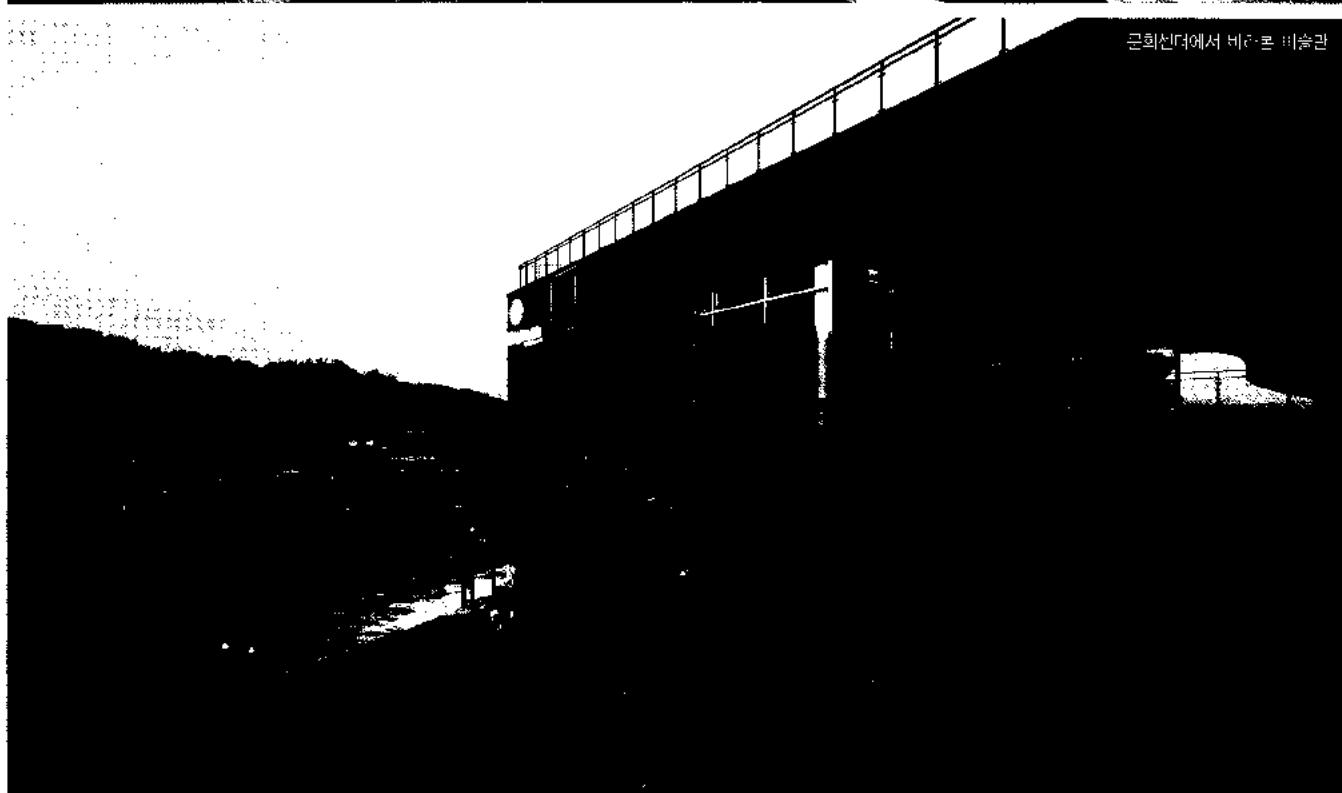
EPILOGUE(프로그램의 변화) 공원 내 건축물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어진 치성이 없었고 공원과 조화되는 시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과 주변의 강북시민들이다. 설계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원구조와 전체 개념에 맞도록 설정하였다. 저인된 설계안에서 공사 중에 일부시설의 기능이 변경 보완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현수요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건축사가 의도한 시설물의 기능은 대부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둘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원이라는 공간에 필요한 기능과 적정한 규모를 예측하고 실현시켜서 실제 사용상황을 보는 일련의 과정은 이 프로젝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열린 공원과 공원내 여러 건축물들이 날이 갈수록 제 역할을 다하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심에서의 여유와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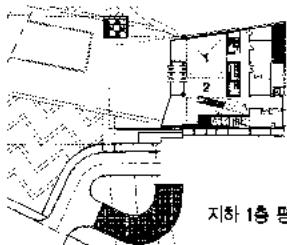


문화센터에서 비하론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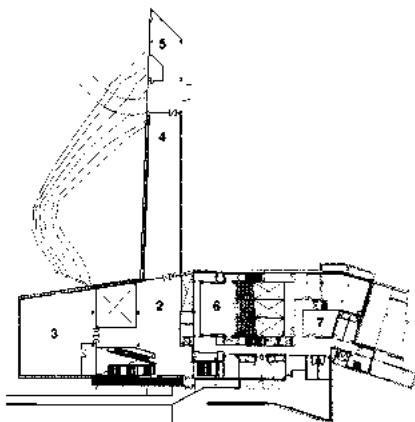


공연장

- 01_ 슈퍼마켓 05_ 전망대
02_ 음식점 06_ 공연장
03_ 다목적 풀 07_ 연습실
04_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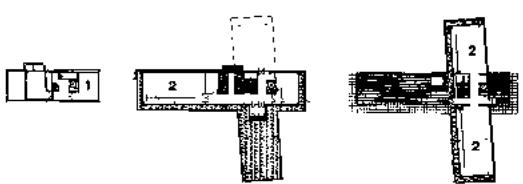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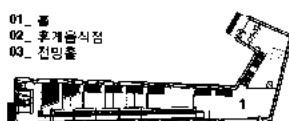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_ 수경고
02_ 전시실
03_ 옥외전시실

전망대

- 01_ 풀
02_ 휴게음식점
03_ 전망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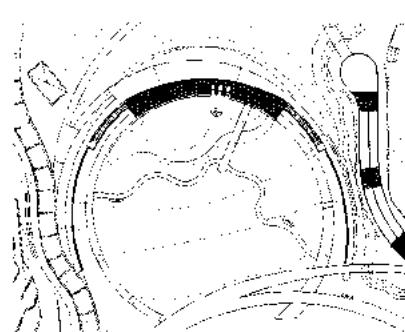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글래스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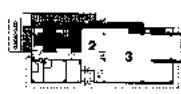
배치도

방문자센터



2층 평면도

- 01_ 기계실
02_ 음식점
03_ 전시장
04_ 회의실
05_ 카페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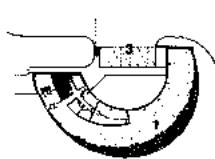
- 01_ 레스토랑
02_ 옥외데크
03_ 주차장



옥탑동 평면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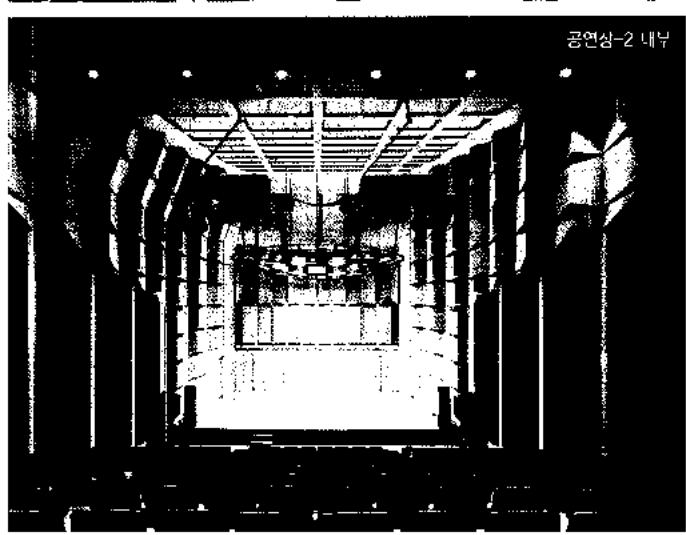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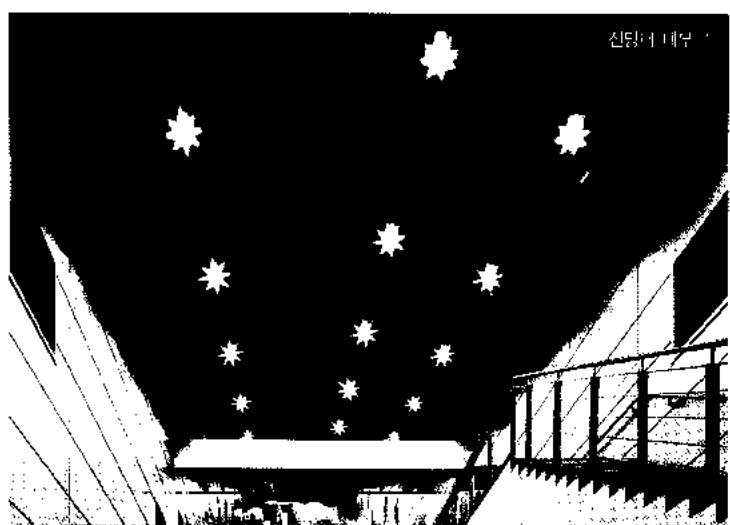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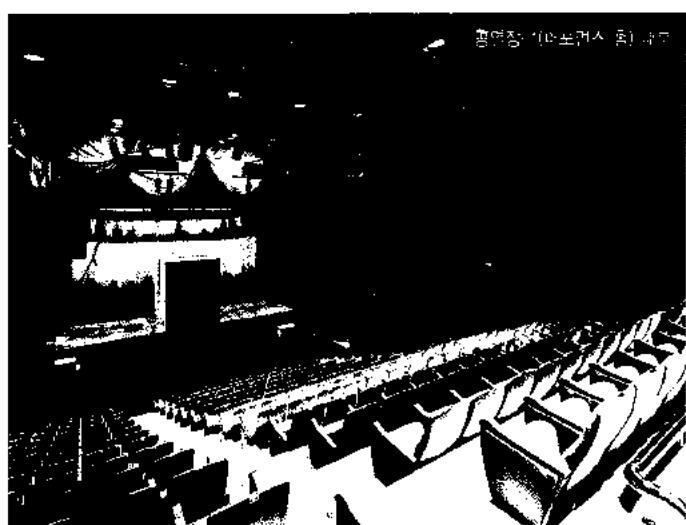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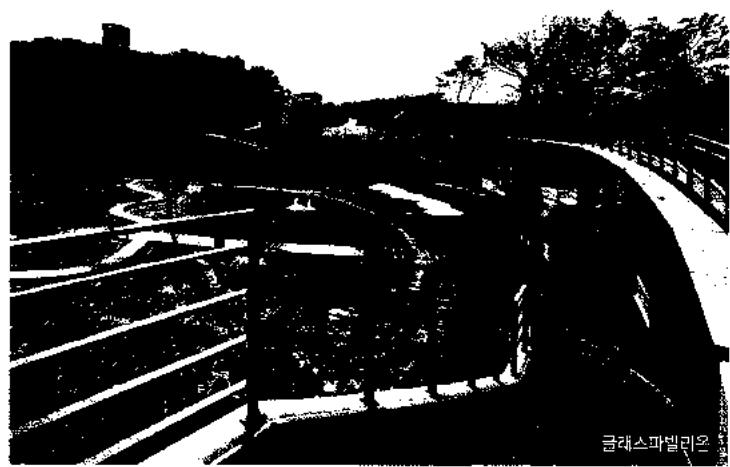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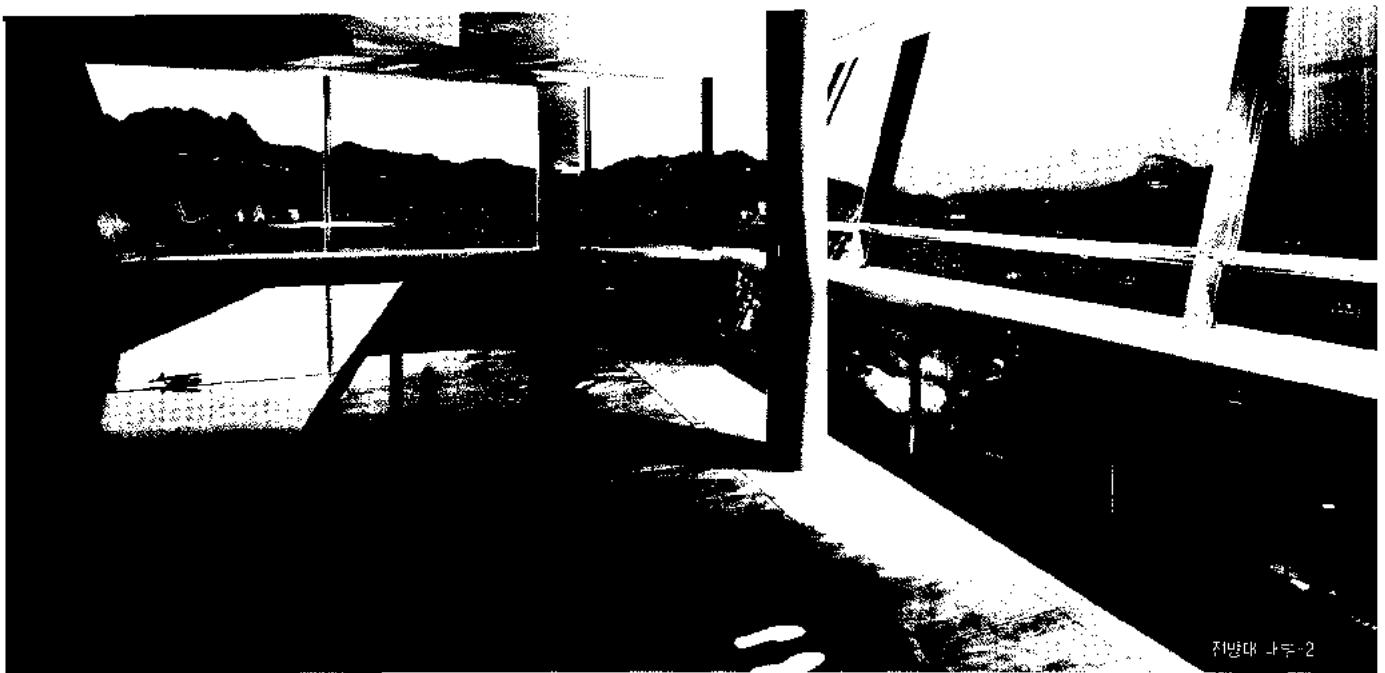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기계실
02_ 카페데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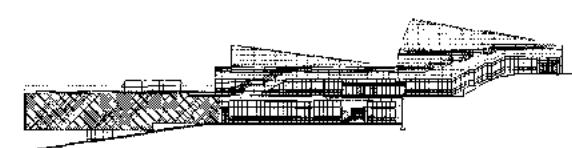
02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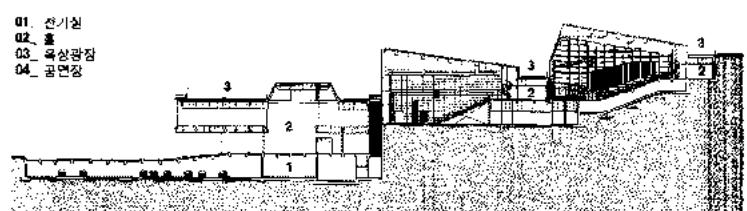
공연장



02 5 10 20m

- 01. 전기실
- 02. 흙
- 03. 육상광장
- 04. 공연장

정면도



횡단면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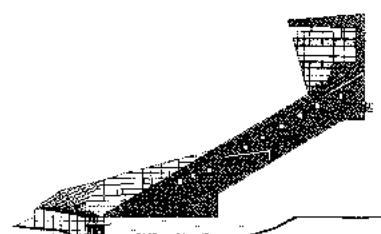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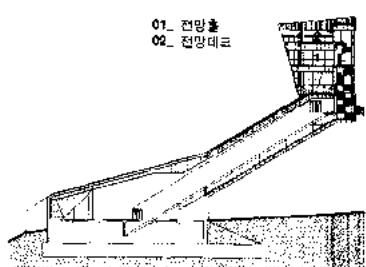
횡단면도

- 01. 수장고
- 02. 전시실
- 03. 연구실
- 04. 흙

전망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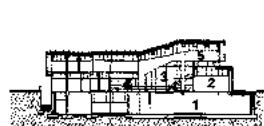
횡단면도

- 01. 전망홀
- 02. 전망미로

방문자센터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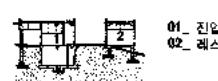
횡단면도

- 01. 기계실
- 02. 전시장
- 03. 전시실
- 04. 흙
- 05. 카페

레스토랑



정면도



종단면도

- 01. 진입홀
- 02. 레스토랑

글래스파빌리온



정면도

- 01. 복수기계실
- 02. 광리실
- 03. 카페테리아
- 04.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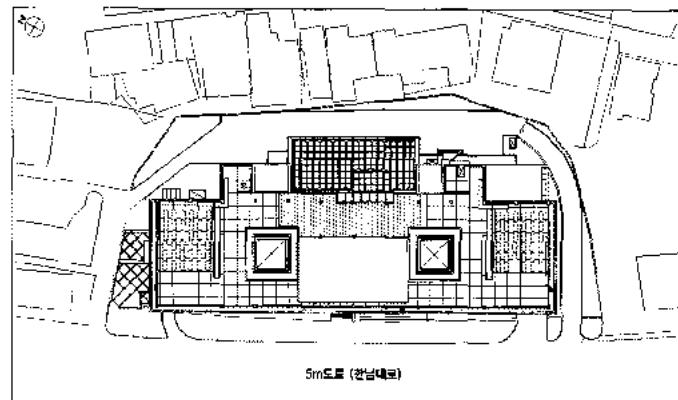
횡단면도

일신 한남동 '10

Ilsin Hannamdong '10

우사용 / 정희원, 건축사사무소 시공건축

by Wooh, Si-yong, KIRA



총면적: 1,060.85m ²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타면적: 100m ² , 창호 면적: 100m ² , 밖면면적: 100m ²	T25, 목재유리, T100, 단열압판, 알루미늄
높이: 27m	베이스판넬
주차대수: 10대	내부면적: 대리석, 블루마루아, 디중홀等情况
내부면적: 1,060m ²	구조설계: 서울구조,
외부면적: 1,000m ²	설계설계: 개별, 산수면이자, 소설, 향토재민자나, 이정
면적률: 65.0%	연기설계: 우림건축현장
면적률: 100.0%	시공: 대신건설
면적률: 100.0%	설계발행: 우진우, 송수연, 홍석경, 체소진, 채현우
면적률: 100.0%	사진: 박영재
구조: 철근 콘크리트, 바닥: 타일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터널로 가는 한남대로의 우측에 위치한 대지는 남산 기슭이 능쪽으로 흘러 멎춘 곳에 있다. 이 대지에서부터 남산경관보호구역이 적용되어 총수의 세한을 받는다. 이 도로변에는 공관, 학교, 대시관, 외국인 아파트 등이 있어 사람의 통행보다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밤 시간에는 도로변이 어두운 편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그냥 소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건물의 변화 있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시에 건축들은 본래의 길이보다 짧고 굵게 느껴진다. 이러한 매스가 나타내는 힘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매스로 단순하고 강하게 표현하는데 외부디자인의 초점을 맞췄다. 그 힘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건축공간에 적용하여 사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건물은 남북으로 긴 형태의 대지에 전면도로에 접하여 길게 배치한다. 길거, 보이는 건물의 전면에 주출입과 공개공지와 위한 비워진 공간을 두었다. 건물의 외피는 유리로 하되 입면의 패턴이 수직수평으로 정리되는 일반적인 창호 패턴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 건축의 창호의 빗살문실 패턴을 차용하여 대로변에서 그 춘 창호들과 다른 느낌을 스피드감 있게 보여준다. 낮에는 주변의 환경이 빗살문실 창의 유리면에 비쳐 입면이 되고, 밤에는 빗살문실 창의 일루미네 프레임에 숨겨져 있는 조명과 실내 풍경이 힐쳐져 입면이 된다. 조명은 빛 시간에도 건축물의 힘일체로 유기체로 건물에 생명력을 넣어 넣는다. 외부 입면의 빗살문실 창의 패턴은 공개공지의 찬장과 바닥으로 이어져서 내부로 관입되어 내외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속성을 갖는다. 외부 패턴이 연결된 출입부분을 떠나 내부로 진입하면 수평적인 등선은 유리계단과 글리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수직적인 아드리움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각종의 복도와 연결되어 건물 내부의 구심성이 되고 있다. 아트리움 공간과 연결하여 여기에 컬러리와 음악회를 위한 작은 푸르트홀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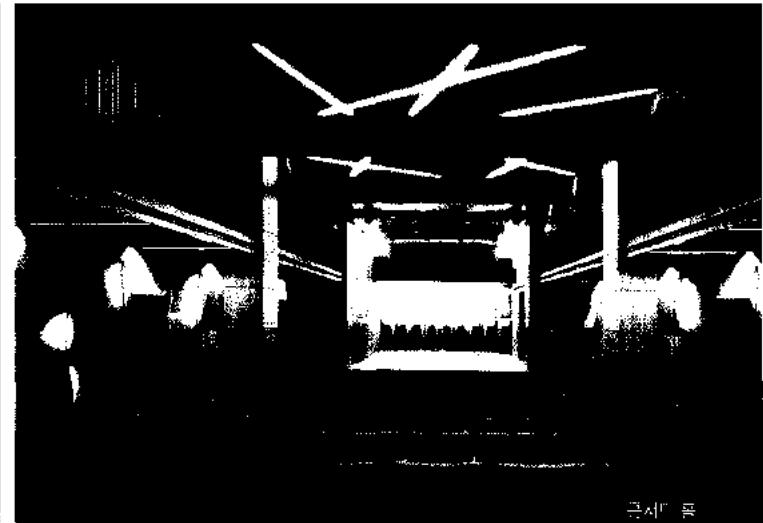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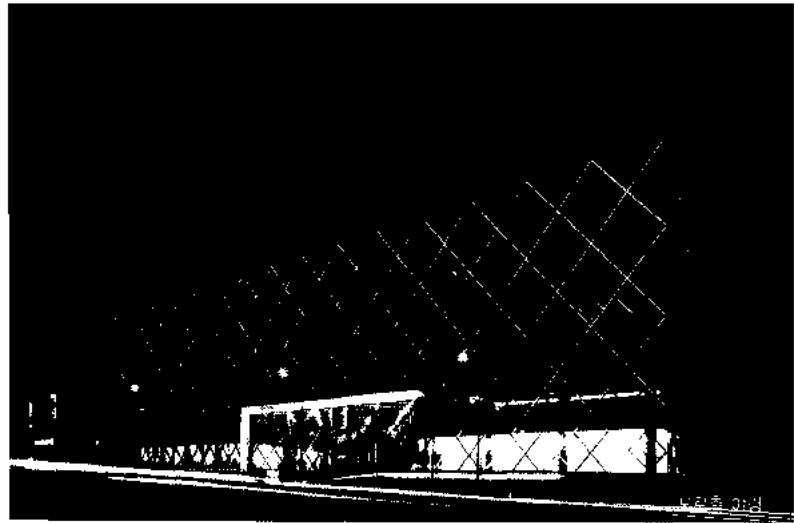
건물의 내부 바닥과 천장은 외부의 이미지로 패턴을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적용하여 역동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미경재는 천장, 벽, 바닥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유리를 사용하여 건물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부분 부분에 숨겨져 있는 조명은 어둠에서 존재가치를 발현한다.

비워져 있는 아트리움 공간은 낮 시간 동안은 햇빛으로 채워져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밤 시간에는 유리계단, 글리스 엘리베이터와 숨어있던 조명으로 채워져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붕에 있는 하늘마당은 남산의 정상에서 남서 측의 아이아트 호텔로 전망이 연결되어 좋은 악장을 제공하며 이곳은 건물 내 입주회사들의 모임이나 음악회 등의 옥외 파티 장소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 휴게공간은 건물 내의 입주자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어 문화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촉진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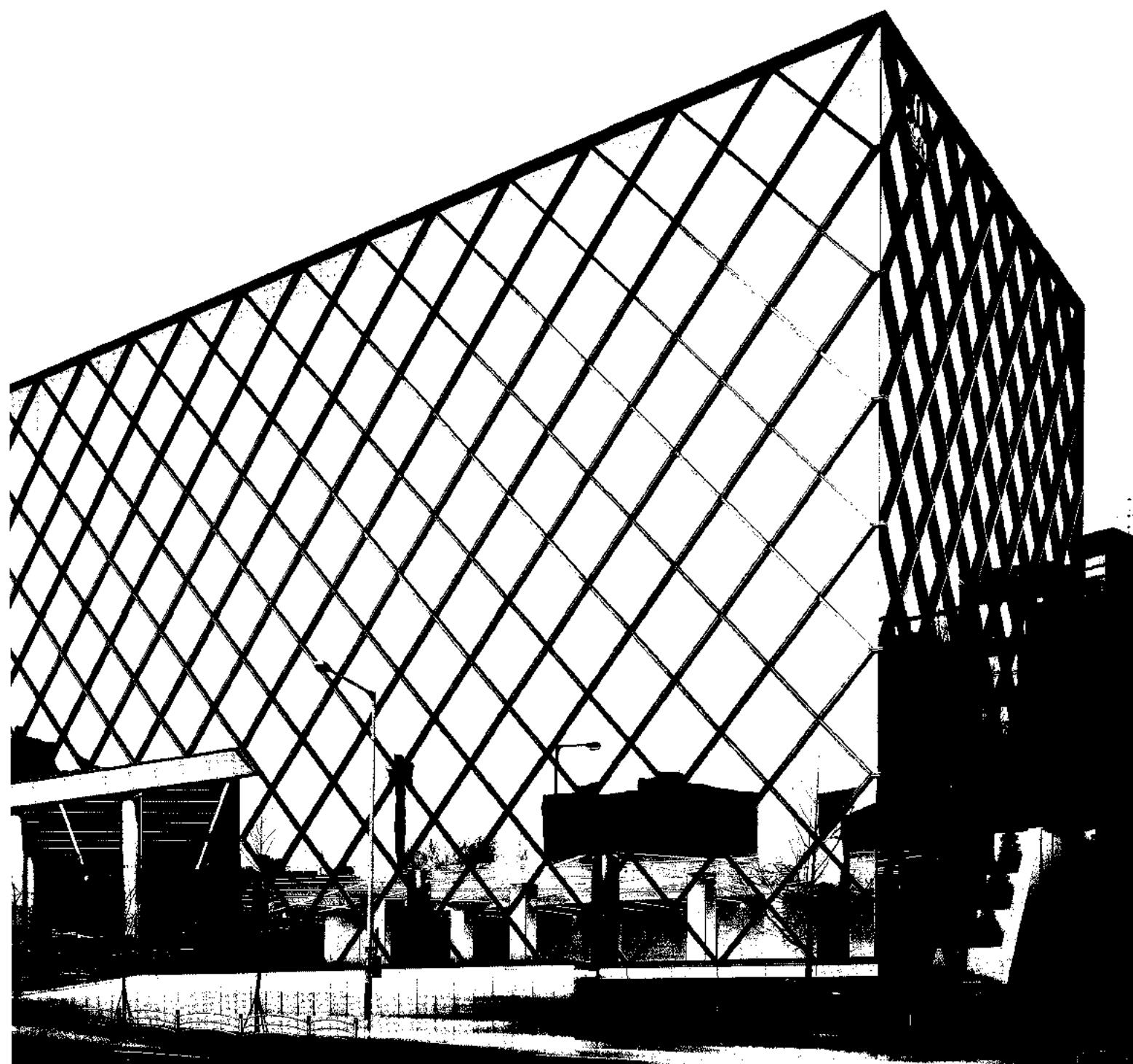
건축주는 건축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좋은 예술품으로 채우는 높은 안목이 있어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을 이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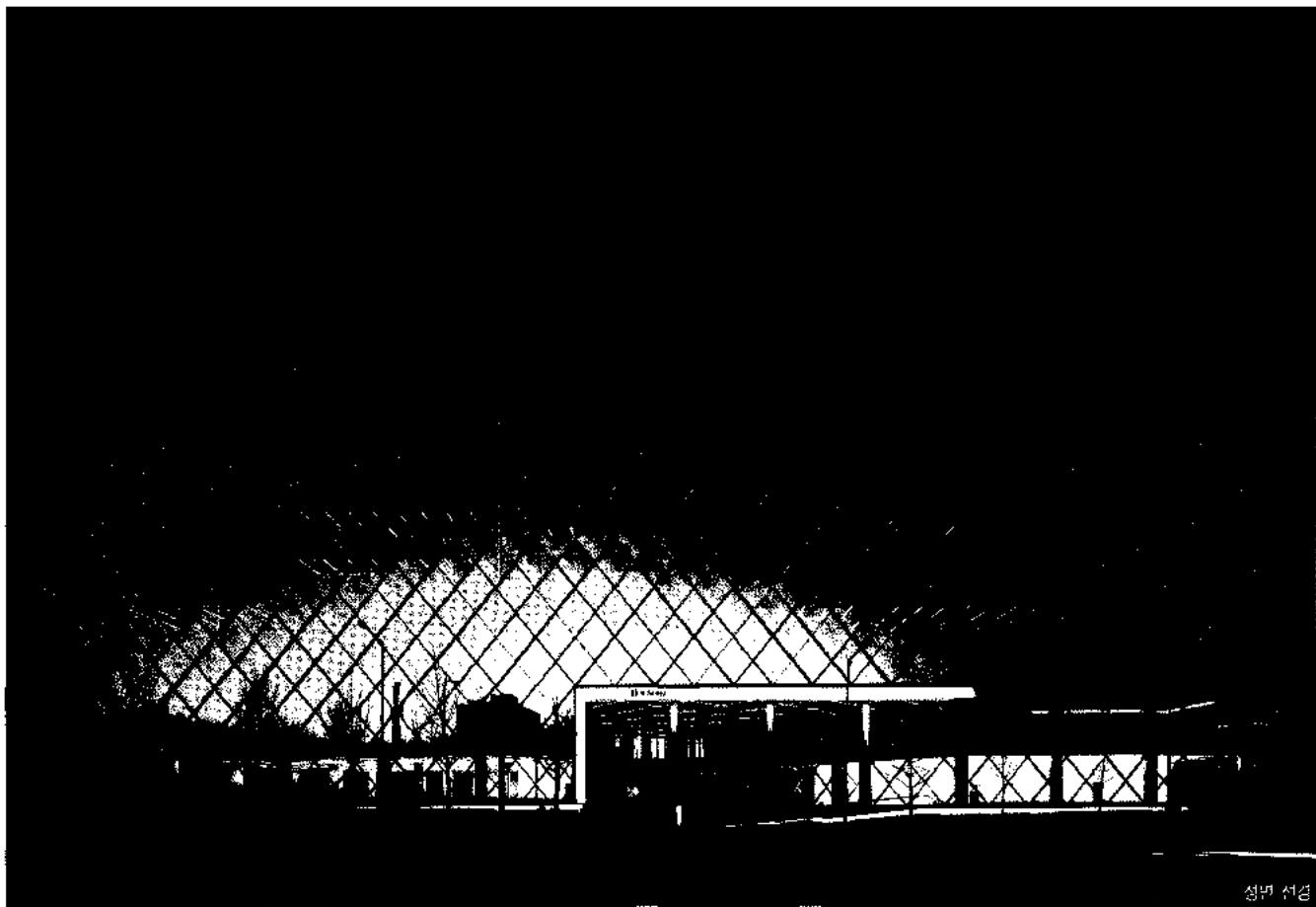




도로측 야경

도로측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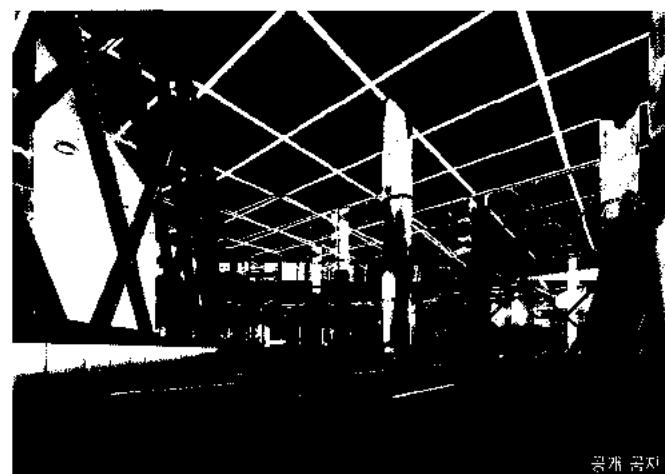




성면 선경



주출입구 야경



공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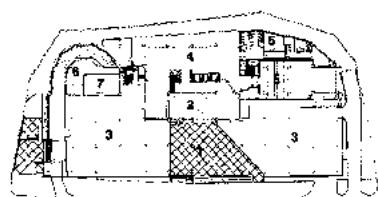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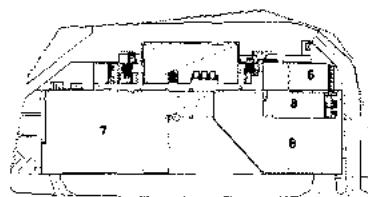


아트리움 전시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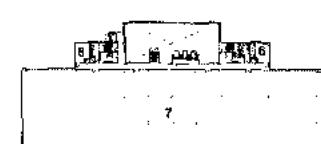
- | | |
|----------|----------|
| 01_ 공개공지 | 05_ 소길당 |
| 02_ 졸 | 06_ 굽조심 |
| 03_ 전시장 | 07_ 사무실 |
| 04_ 전시홀 | 08_ 레스토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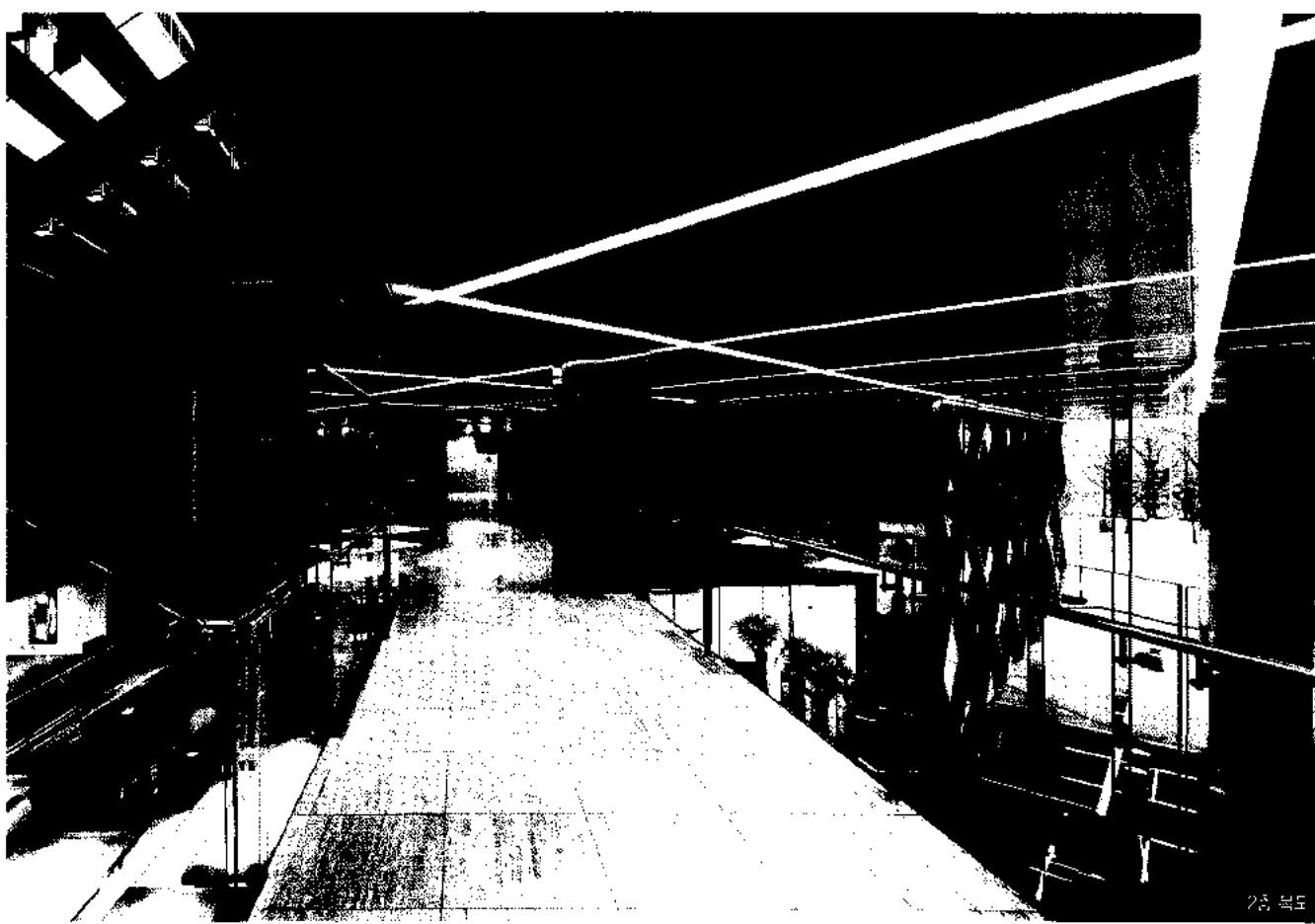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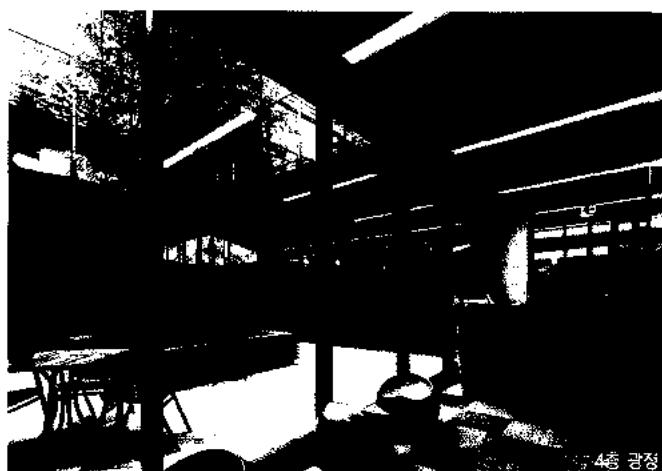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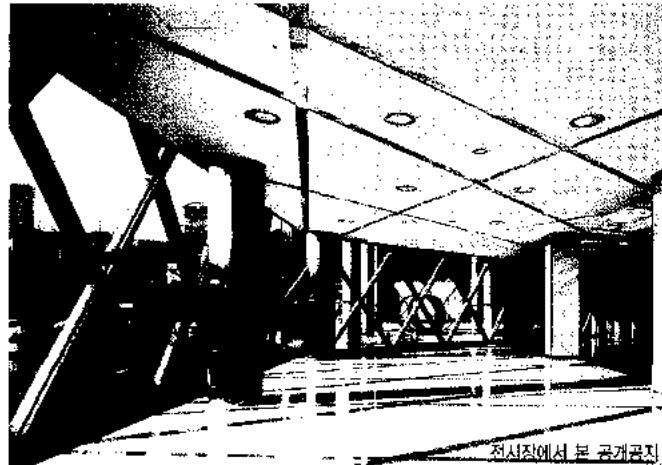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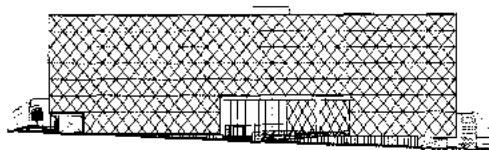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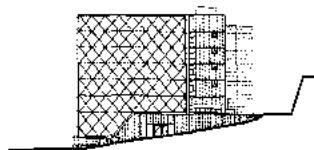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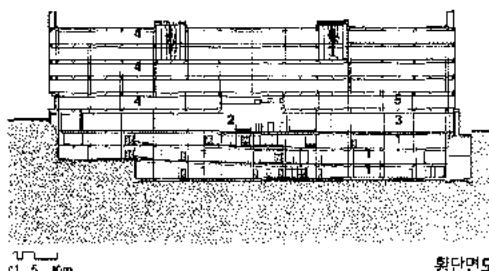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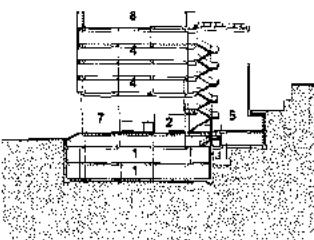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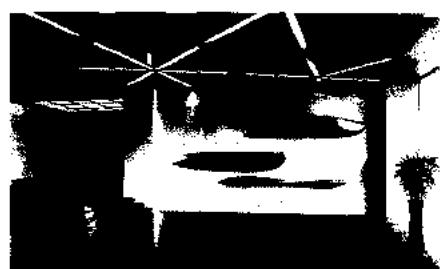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흙
- 03. 전시장
- 04. 사무실
- 05. 레스토랑
- 06. 광경
- 07. 경계공지
- 08. 하늘마당



전경



양주혜-꽃의 시



자작하디드-BenchEri312 with 2 Ap's 2003



Berner Vener-Tree indeterminate vine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최삼영 건축사 | 주, 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사는 공간에서 근무하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양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였다. 대지를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또 목구조에 관심이 많아 일정 성과를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

어아기하는 동안 최 건축사의 진작한 자세를 계속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제도가 갖는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담담함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해쳐 나가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앞으로도 최 건축사의 작품을 기대하며, 또 그가 원하는 건축이 있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회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유정훈(이하 유) : 네. 저는 대전에서 박인수 건축사와 대전에서 건축 때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계로 만나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이르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자에 이렇게 인터뷰 코너가 마련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터뷰 코너를 즐긴다는 분들의 연락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터뷰인데, 저에게는 좋은 건축사분들을 만나는 멋진 기회도 될뿐더러 현장 실무에 대한 자극을 받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 최삼영(이하 최) : 좋습니다. 건축계에서도 이렇게 건축과 건축사의 흥미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유 : 수퍼스타급(?) 건축사를 다룬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많은 건축사를 선택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 각 건축사가 도약의 발판을 삼길 바랍니다.

● 박 : 사실 저희는 건축사자에 실렸던 건축물 중에서 편집위원들이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건축사자에 실리는 작품들은 자천에 의한 것 보다는 편집위원들이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 : 또 인터뷰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첫 질문을 드리자면 사무실의 위치와 환경이 매우 특이한데 가와건축이 언제 그리고 왜 이 장소에 자



● 최 : 이전에 강남의 신사동에 있다가 2002년 월드컵 무렵에 이리 오게 되었으나 이제 8년 되었네요.

● 박 : 개업은 언제 하셨나요?

최 : 1994년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국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공간에 9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무실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전시와 건축을 함께하는 안건사라는 회사에서 제가 주로 건축을 맡아 처리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1996년에 신사동에서 개업을 하였지요.

● 유 : 이 동네로 이사 오신 것은 서울에서도 여러 장소를 살펴본 후에 정하신 것인가요?



인터뷰 일자 2010년 5월 28일
장소 가와건축 회의실

촬영자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사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 최 :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더난출판사를 라노베이션 하였는데, 그때 이곳을 오가며 동네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흥의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던 터라 낯익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강남의 스케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곳이 정감이 가더라고요. 특히 저희 직원들이 이곳을 많이 좋아하죠. 가까운 곳에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 박 : 신사동 사무실은 어디였나요?

• 최 : 지금은 꽤 유명해진 가로수길 어떤도로의 근생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자그마한 곳이었죠. 주변에 원도시건축 등이 가깝게 있었고, 또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순대국밥도 시장에서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는 강남에서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 유 : 그동안 가와건축 건축사사무소의 규모가 어떻게 변모되었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와 가장 적었을 때를 비교해서 본다면.

• 최 :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원의 문제는 언제나 zero sum 게임 같아요. 인원이 많을 때는 사무실의 힘은 좋은 반면 아무래도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원이 적으면 변화에 대한 순발력은 좋은 반면 체력이 부족하지요. 몸집에 대한 내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큰 사무소 출신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작은 사무소이고 유연성은 좋은데 힘은 약하지요. 최근에 좀 늘었는데 거의 10~2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 유 : 신사동에 개셨을 땐 몇 명 정도의 인원이었나요?

• 최 :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 유 :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셨군요?

• 최 :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참 힘들어요.

• 박 : 최 건축사께서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고 생각하시는 인원수가 있으신가요? 한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요?

• 최 : 제가 혼자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쟁기면,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7~8명 정도면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기르치고 키우며, 또 적당한 일을 주고 성장시키고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또 일정수준이 되면 언젠가 독립도 시켜야 하고.

• 박 : 지금 독립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 최 : 들이겨 보면, 전 사람들을 제 손으로 내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화위기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조직원 중에서 저를 살 따르고 이해하였던 사람들이 자라서 성장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승화 건축사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동노인복지회관

식으로 독립을 하였고, 번정석 소장도 내부에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생각과 스타일이 유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면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을 함께 쓰고, 직원들이 간혹 바쁠 때 서로 돋고 그렇습니다.

• 박 : 그렇군요. 가와건축이란 이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 최 : 제가 지은 이름이지요. 무엇보다 어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나다 순(順)으로 보면 언제나 제일 앞에 오는 이름이었죠. 지금은 좀 밀렸습니다. 가야건축(최문규)이 있고, 또 부산엔 가가건축(안용대)이 있습니다. 하하. 여기에서 가(家)는 '장이', artist를 뜻하였고, '와'는 with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 박 : 이름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 최 : 제가 일본 와세다대학에 잠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회사이름을 영어로 KAWA라고 썼고 이는 발음상 일본말 천(川)과 발음이 같아서 작은 오해가 있긴 하였지요. 또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싹 다 가 와라 (모두 가셔와라)'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 박 : 공간에 계시다 독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최 : 흔히 말하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공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거기에 제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공간이 한참 어려울 때 못 그만둔 것이 무능을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아직 배울 것을 다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하겠다고 그만 둈 것은 아니었고, 더 공부를 해보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최 건축사는 미술을 공부하다 군 제대 후 건축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이 많아(최 건축사는 술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생활에는 늘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 : 공간이 첫 직장이셨나요?

• 최 : 그렇습니다. 9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고할 자료가 '공간' 밖에 없어요. 가끔 운영을 하다 막힐 때에, 또 저 스스로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제가 공간에서 균무를 하여서 그렇구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사무실 출신 별로 사무실 운영방식에 특징이 있지요.

• 박 : 설계를 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축학과 졸업생들, 그들에게 첫 직장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 최 : 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방향하고 헤매지요. 성공한 사람이나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자신의 철학과 생각과 사고를 결정하게 돋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와 건축 직원들에게 그러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려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조그만 설계사무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건축적인 자산을 나누는 것이 큰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 : 최 건축사님에게는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하였겠군요.

• 최 : 입사해서 처음 봤었던 김수근 선생님의 인상, 또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던 한 마디 한 마디들, 당시 만났던 선배와 동료들과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각인되었다고나 할까요?

• 박 : 그래서 가와건축이 시작된 지 어느덧 14~15년은 된 것이군요.

• 최 : 그렇습니다.

• 박 : 그 기간 동안 가장 나빴던 것 또 가장 좋았던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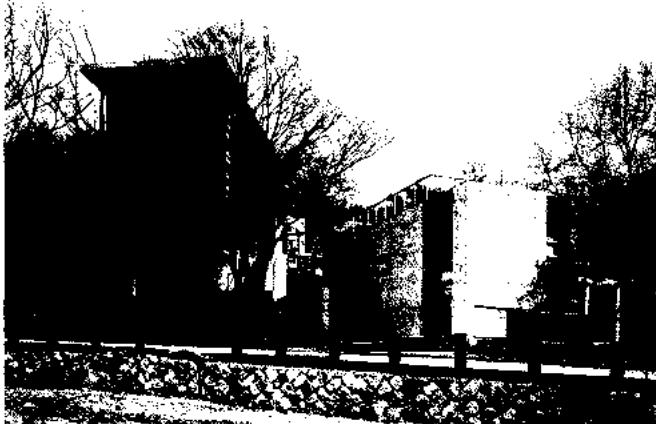
• 최 : 사실 사무실 운영하면서 별의별 일이 왜 없었습니까? 전 대하 소설을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일이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사무실 내 구성원 각각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직원간 관계도 뜯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내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과 회사 운영 같은 것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저에게는 공간에서 본 것이 전부였지요. 송호상 선생님 같은 분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멀리 있어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사무실 차리고 처음 응모한 현상설계에서 징타를 날렸던 경우인데요, 고양시 덕양구청이 당선 되었어요. 당시 곧 진주시청사 현상설계가 나온다고 해서 연습 삼아 해본 것이었는데 당선한 것입니다.

• 유 : 그게 언제 이야기인가요?

• 최 : 1996년도입니다. 지금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대단히 컸던 것인데 당시 건축주인 공무원들과 문제가 생겨 제가 당시 '건축사' 지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건축주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서 건축에 대한 의지를 살현하기 위해 건축주에



소소갤러리



마마루

게 참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현상설계에서 떨어져도 시원할 때가 있어요, 만일 먹고 살 일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떨어져도 시원한 면이 있는 거죠. 사실 현상공모는 떨어져도 걱정, 되면 이제부터 시작될 힘든 일 걱정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간 사무실 운영하면서 참 나빴던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일은 제가 일산에 체 집을 지은 것입니다. 또 헤이리에도 자그만 화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운이 다가온 경우인데, 당시 IMF외환위기 때였으나 스스로 건축주가 되고, 건축사가 되어서 직접 손으로 짓고, 일한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깨우치고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헤이리의 소소갤러리는 목조와 콘크리트조를 혼합하여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구조인데,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목조 워크숍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설계를 하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복잡했으나, 이를 통해 저는 목조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목조 기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유 : 목조 건축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시죠.

• 최 : 저희가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목조를 연구한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의 목조에 대한 저변이 너무도 없었어요. 세계의 목조를 보러 다니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들에 목조로 제안을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여주 간이 휴게소와 진주 휴게소를 목조로 제안 하여 당선이 되

었어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일반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목조 부재들은 모두 공업화 생산이고, 엔지니어링이 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설명을 해도, 관련자들이 모두 '화재에 괜찮나?' '유지관리에 문제없나?' 하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여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의 도네이션으로 지어진 헤이리의 소소 갤러리가 그런 목구조 건물인데, 한복 입은 목구조가 아니라 양복 입은 목구조인 셈이죠.

• 박 : 만일 어떤 분들이 목조가 화재와 유지관리에 대해 취약하다고 말씀하실 때,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을 가보시라고 하면, 궁금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송례문은 사실 방화니까요. 아마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 유 : 혹시 목조를 하는데 동침하는 다른 분들은 안계시나요?

• 최 : 건축가로는 조남호 선생도 목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STUGA의 김갑봉 사장이 좋은 파트너지요. 목조계에서도 내공 깊은 이로 정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공간 후배이기도 합니다.

• 유 :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신의 임장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을 배울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학생들의 경향은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큰 사무실, 조건이 좋은 사무실로 지원하고, 또 설계를 하려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 : 최근에 만나는 학생들의 진로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잘할 것 같은 학생이 갑자기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아는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다양하게 떠지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 : 질문을 조금 바꿔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좋은 직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 최 :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일을 재미있어 하며 노리더라도 꾸준하고, 똑심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 박 : 현재 진행되는 건축의 제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 : 아무래도 제가 현상설계를 많이 하니까, 심사실명제, 심의실명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도 제도가 완벽해 질 수는 없겠고, 다만 설명을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기릴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지요. 심사 중에 책임 없는 말들을 마구 던지는 수가 있고, 거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 하자면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지요. 설계자가 감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지만 감리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집니다.

• 박 : 현상설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상안을 뽑는 경우와 건축을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어떨까요?

• 최 : 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면, 지역의 설계사무실의 지원을 받아 공모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참여자들의 생각보다 공모지침의 수준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별 필요 없는 가치, 즉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순서가 잘못 정렬되어 최우선 순위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 박 : 이제 이야기를 '경상대학교 해양연구소'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언제부터 통영에 있었나요?

• 최 : 사실은 통영수산대학교가 경상대학교와 통합된 것이고, 좀 정확히 하자면, '국립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 유 : 이것도 현상설계에서 당선 된 것인가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유 : 건물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 최 : 제가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물의 형태보다는 이것이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해줄까? 혹은 어떻게 내부를 비워 넣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그랬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 집 앞에 내가 있었고, 뒤에 산이 있었지요. 또 안채가 있고, 사랑채도 있는 그런 집이었죠. 여러 차례 이사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한 한국적 주거환경에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주변의 자연여건과 학교시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통영 앞바다를 만나게 되고, 북쪽으로는 산을 만나는, 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주된 출입구와 주 도로에 접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교실과 연구실의 내부 상황보다는 이들이 복도나 마당으로 나왔을 때 보게 되는 바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다, 그 다음에는 바다와 만나는 마당 등 이러한 관계를 처음부터 생각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배치하고, 그 하부를 필로티로 뛰워, 마당에서 바다로 향하는 경관을 열어 주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의 매스를 분리하되, 브리지로 연결하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세팅을 통해서 바다와 마당과 산이 서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 유 : 통영시 전체로 볼 때 이 건물은 어떠한 위치에 있나요?

• 최 : 통영시의 바닷가 쪽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시내입니다.

• 유 : 실제 지어진 건물이 현상안과 거의 동일하게 실현 되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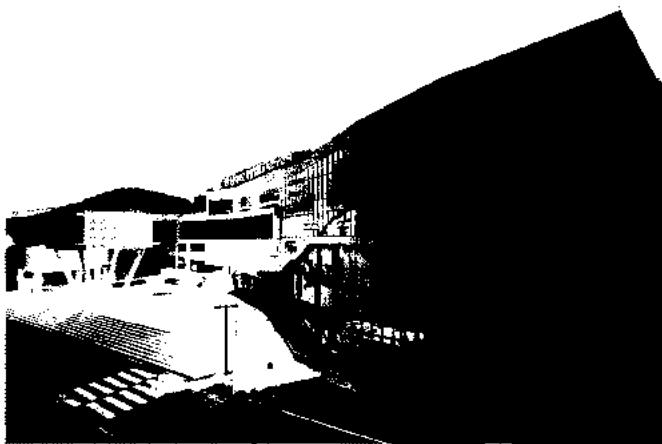
• 최 : 공간 및 구조 등은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재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 박 : 바꿔게 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최 : 우선 대형 강의실 부분 외벽으로 티타늄 아연판을 계획하였는데, 공사비에 맞추느라 콘크리트 노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체적 구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원경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전경

성으로 당초 저층부는 단단한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 유선형의 상부는 티타늄 아연판, 그리고 산 쪽으로는 목재 등을 사용해 보려했는데, 공사비 관계상 모두 콘크리트로 바꾸었지요.

• 박 : 재료의 변경을 최 건축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바꾼 것인가요?

• 최 : 그 쪽(발주처)에서 비용이 오버되었다고 변경을 요청했고, 그러기를 몇 차례 거친 뒤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콘크리트로 권유하게 되었지요.

• 박 : 설계를 다 끝내고 견적을 하셨을 때, 이것이 예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 최 : 예상 금액에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처도 용인하는 분 위기였지요. 그간 현상설계에서 예상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건물의 공사비가 초기 단계부터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박 :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하였나요?

• 최 : 오래되어서 정확한지가 자신 없지만 대략 400만원/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약간 우려도 했었지요. 또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등의 주거시설이 추가로 포함되게 되어, 일반 학교 보다 공사비가 올라갈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비 공사에서도, 그리고 지침에 없었던 업무 영역인 해수를 학교까지 끌고 들어오는 시설과 인근의 도로정비 마저도 본 공사비에서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건축공사비는 계속 줄어든 셈이 되죠.

• 박 :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새로운 스코프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본 공사비에서 충당하였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건 설계변경 계약을 별도로 하고 진행하셨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최 : 사실 공사비가 늘어나면 예산 산정상 설계비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기준 금액 내에서 계속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맞춰진 결과가 되었죠. 지하공간의 수영장도 없어지는 등, 주요 아이템들이 없어 졌고, 설계기간만 4개월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박 : 그럼 설계변경 계약이 있었나요?

• 최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체상환금을 물어야 했죠. 매우 얹울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했어요. 법정소송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다시 깊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승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소송은 이긴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잃을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건축사의 입장에선 참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 박 : 그래도 자체상금이란 것이 계약상의 내용이기도 하시만, 발주처와의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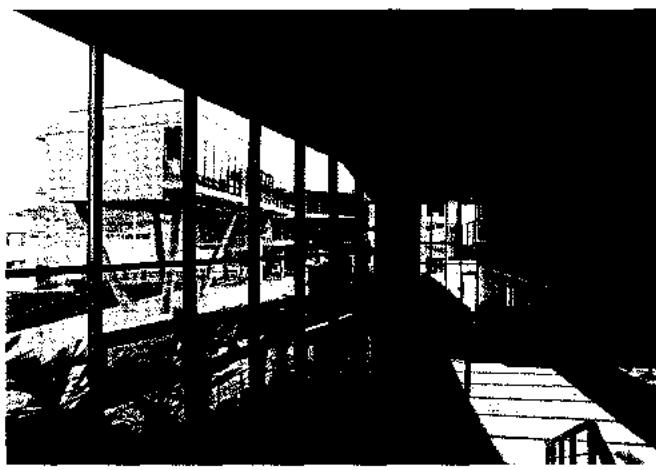
• 최 : 관계를 잘못한 것이 크겠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가고, 원만한 소통의 틀을 유지하였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내 탓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내가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았습니다.

• 박 : 뭐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건축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 : 네. 제가 알고 있거나 지금 나주의 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끝내고 설계비를 다 받았지만, 설계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설계비를 더 지불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좋은 사례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좀 더 나아지겠죠. 경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므로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변경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예산이 잡히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불찰이지요. 사실 심의위원이나 발주처 쪽의 인사들이 그런 업무를 알아서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리한 기대겠지요.

• 박 : 혹시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시는 사람이나, 기타 도움된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최 : 글쎄요.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산도 맞추고, 힘드나마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연구동 총

목표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현상공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면, 건물이 거의 박스 타입이 될 것입니다. 또 예산에 맞추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맞추다 보면 끌어지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지는 간과되거나 마련이지요. 그러니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상을 발주하면 합리적인 예산이나와야 하고, 치밀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진행되다 보니, 막상 설계할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담당승무원들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 박 : 이 건물에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프로그램 때문에 현상 안이 바뀌거나, 틀들리지는 않았나요?

• 최 : 다행히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간 조정은 하였지만, 건물의 큰 흐름을 바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 박 : 계약하실 때 현상 공고시 나왔던 설계비보다 낮아셨나요?

• 최 : 잘 기억나진 않네요. 사실 심하게 깎았던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생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마 비슷하게 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것이 공고에 나온 금액을 왜 그대로 주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 : 제가 알기론, 현상에 당선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선되고 나면, 이름도 생소한 수의시답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가격을 다시 흥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제 현상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툴립없는 것은 이중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해서도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현상은 건축사에게 저작권이 있고, 국내현상은 발주자가 저작권을 갖고 그랬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박 : 계약서 작성하실 때, 건축사협회에서 만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 최 : 물론 발주처에서 제공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 박 : 혹시 계약서 내용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소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최 :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문제가 다소간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검토한다고 그 내용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박 :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폭력적인(?) 계약이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세세하게 읽어왔는데, 참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군요. 창피합니다.

• 최 : 많은 건축사들이 오래 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 반발하거나 도전하였으면, 지금쯤 바뀌었겠죠. 하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업체들은 자신들이 별도 발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쪽에선 계약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 박 : 공공의 현상을 통해 당선된 건물이다 보니, 계약이나 진행방식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기 힘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정해진 제도상 제약과 문제점들이 주로 논의되는 느낌입니다.

• 최 : 뭐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 : 이 건물의 시공은 누가 하였나요?

• 최 : 지역 업체였습니다. 입찰에 의해 결정 된 것 같습니다.

• 유 : 어떻게 제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나요?

• 최 :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한 이 건물의 감리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감리업체도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감리를 할 수 없었지만, 간간히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자인 저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밤 12시에도 전화가 온 적도 많습니다. 저희는 일일이 모두 대답하고 협조하였습니다. 물론 무보수였구요. 애쓴 사람이 있어 결국 건물이 이 정도라도 지어진 것입니다. 그 문의 덕입니다.

• 박 :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최 : 국립 경상대학교 시설과의 최옥근 계장님 덕분입니다. 이 분은 소신도 있고, 대쪽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공무원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어,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찾거나, 찾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였을까요? 아니면,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관계상 생기는 문제였을까요?

• 최 : 그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재료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니, 실제로 이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한 보다 한 차원 높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을 함께 가보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느낌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해서, 배재대학교와 대전대학교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고민을 함께 한 것이죠. 물론 공사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내부를 모두 노출로 하다 보니, 유통적인 문제도 있겠죠. 진정성이 있는 공무원이셨고, 진정성이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 박 : 이 건물이 마스터플랜 상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캠퍸스 내에선 어떠한 곳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최 : 캠퍼스 내에선 외곽에 있지만, 정문에 가깝고, 산과 바다에 가깝게 접해 있습니다.

• 유 : 이 건물이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시설이 되길 바라셨겠네요. 울타리가 있나요?

• 최 : 울타리가 없어 사람들이 산책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단에도 걸터앉을 수 있습니다.

• 유 : 아까 설명하실 때, 이 건물의 중점이 캠퍼스 전체 공간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중점이 열린 쪽이 바로 대학의 중심 공간입니다. 바다 쪽으로 필로티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학교는 오래되었고, 시설의 수준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 박 : 혹시 최 건축사님이 설계하신 건물 가운데, 이 학교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거나, 유사성이 있거나 한 건물들이 있을까요?

• 최 : 전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체로 유사한데요. 대지의 어디를 마당으로 비울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능이 다른 것들은 채를 나누고, 연계성이 있으면 연결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를 맺어 갑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이 건물이 도심에 있지 않고, 도시의 언저리, 캠퍼스의 언저리, 바다와 산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충실히 하려 합니다.

• 박 : 이 건물의 주재료가 노출 콘크리트인데요. 사용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 최 : 아직은 제대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학장님의 이야기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의 일반적 사용자들의 관점은 건물의 외형에만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려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는 공간만 생각하는 경우에 다른 것이 보일 수 없죠. 왜 건축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 외부적 조건과 기타 건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큐레이터나 도슨트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 건축은 일반인의 감상 대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직선 계단도 있고, 이 계단에서 바다를 파노라믹하게 볼 수 있고, 높이에 따라 다른 시각을 만들고, 내부 창문에서 프레임을 통해 바다의 조망이 되는 것 등이 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실제 그렇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크게 느껴지는 데…



경남교육종합복지관

• 유 : 세월이 흐르면 밤늦게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겠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최 : 공간적 자유로움이 심리적 자유로움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자들이 활짝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나? 이게 주된 것입니다. 최근에 산위에 한 현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떨어지기 했습니다만, 숙소, 전망대 등이 서로 다른 기능들이 어우러져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입니다.

• 박 :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만, 다 지어진 이 건물에서 아쉬운 것, 남은 것 등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최 : 사실 어렵게, 어렵게 일이 진행 되어서, 설계하고 그리고 지어지는 순간부터 많은 아픔을 일기에 제가 마음을 많이 접습니다. 정말로 공공시설물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아무래도 경제적 제약이 많으니까요. 최근 '효화청사' 다 해서 언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잘 짓고, 수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도시 문화 수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경상대학교 건물도 몸체는 유지 되었지만, 껍데기는 벗겨진 형편인데요. 매우 아쉽습니다. 현상공모에서 당선되고 난 후에 당선 안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부족한 기획으로 공모된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 더 정리되고,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부족한 조건 때문에, 현상 당선 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진행하면서는 여러 환경적 예건과 저의 무능들이 있었음에도 공간적 개념은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의 컬리는 아직도 아쉽습니다. 건축주의 주관과 문제가 있었지요. 결국은 건축주가 원하는 색상으로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 유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하다보니 웠다 갔다 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모두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조 성 풍

(주)건축사사무소 조성통 도시건축

1944년 5월 동경 생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66년)

부친의 제도책상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부친께서는 디자인을 하는 기계설계엔지니어였다.

집안에 있는 제도판 아래가 내 놀이터였고 소케일, 긴 자 등을 가지고 놀았다.

어렸을 때인 데도 기계도면들이 아주 근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림 그리기나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 있어 미술반노 둘락거리고 그림, 학창, 영화 등에 관심이 많은 어린 시절 이었다. 어머니는 영화를 자주 보려 다녔다. 아버지는 20살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모친을 만나 결혼하신분이다. 1930년대에 일본에는 이미 유럽영화가 들어와 있을 때인데, 엄청난 양의 영화를 보신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시절 어머니와 손잡고 학생출입금지 영화관도 많이 다녔다. 그 영향으로 나는 지금도 영화를 무척이나 많이 본다.

대학진학을 미대로 가려고 하나 집에서 온통 난리였다. 절대 반대라 부친은 차라리, 기가설계나 금속공학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내게 금속과 진학은 관심 낮아었다. 담임선생이 좋은 방법을 제의하셨다. 공대도 가고 예술도 할 수 있는 건축과를 기라고 제안하셨다.

부친께서 1959년드에 일본건축편람이라는 책을 구해 보시면서 슬라브적으로 설계하고 지은 것이 생각난다. 한양공대 건축과 진학이 뜻대로 안 되어 인하공대 금속과에 입학하여 이학년에 건축과로 전과하였다.

캠퍼스의 허허벌판이 근사하게 느껴졌다

마침 부친의 공장이 인천에 있었다. 당시 인하공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이기는 하나 학교건물은 창고 비슷하게 느껴지고 캠퍼스리기보다 공장이었다. 한 학기 다니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나. 그러나 전과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건축공부를 열심히 했다.

196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장교 훈련을 마친 뒤 대전에 배속되었다. 그 후 대방동 공군본부에서 4년간 설계실에 근무하며 군복부를 마쳤다. 당시 공군은 비행기 기종이 팬텀으로 바뀌는 무렵이라 부대의 모든 시설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였다. 내무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럽하우스 까지, 온통 다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로 콘크리트 부강불력조에 슬라브를 치고, 미군 원조지재로 짓는 것이다. 설계하고, 견적하고, 현장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도 전기, 토목, 기계설비 담당 장교 등이 같이 의논하여 작업하는, 이를테면 종합사무실의 시스템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1975년에 사무실을 차리고 독립하다

1970년에 공군제대 후 우일건축에 가서 6년 간 근무 후 1975년에 독립하였다.

우일에서는 그부하면서 서강대학 안의 교실과 체육관, 수도원과 수녀원, 구로공단에 짓는 폐어차일드 반도체공장 등을 설계하였다. 반도체 공장도 면은 전부 영어로 되어있고, 영어시팅서, 영어로 된 계약서 등인데 당시에 미군공병단 사무실 빼고는 영어로 된 일을 하는 낯이 드물었다. 수로 그래픽 스탠더드 책을 참고하고, 스위츠 카탈로그 보고 설계하였다.

1975년에 우일건축에 있을 때 김종성 교수님이 IT공대 부학장으로 안스년에 오셨다. 교수님은 흥대, 서울대 등에 강의를 나가고 나는 두 개의

설계경기에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정립간죽과 경쟁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 김종성 교수님은 미스 반 데어로어의 기와 마지막 저자로(미스는 글도 안 써서 남아 있는 것이 작품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을 통해 미스의 건축을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용마루 모임 등 동호인 모임에서 건축에 대한 갈증을 풀다

사무실을 빨리 차리고 독립하고 싶었는데, 일찍 한 셈이다. 막상 '우월 건축'을 차리고는 후회를 많이 했다. 인하공대는 다른 대학보다 늦게 생긴 학교이고, 나는 3회 졸업생이다. 그러니 선배사무실이 있을 턱이 없다. 동호회 모임인 '용마루' 모임을 결성하고 건축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찍 독립한 것이 마치 둘풀같이 비바람 맞아가면서 많은 공부는 되었지만 경험을 쌓고 녹립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오래 놓안 머릿속에 있었다.

첫 번째 사무실은 지금의 광화문 옆 피맛골 근처에 있었는데, 5년 동안 있다가 교보빌딩으로 들어서면서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종로 1번지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게 된 셈인데, 강남지역 개발이 진행되던 때다. 이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수원, 대구, 부산지점 등을 설계하였다.

운이 따랐는지 부산지점은 22층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사장이 바뀌면서 김수근 선생이 신용보증기금의 일들을 맡게 되어 나는 그 일에서 손을 떼기 되었다.

계획이 아시아선수촌 당선까지 이어지다

그동안 한 일 중에서 계속 맥을 이어가는 일이 있다. '김포뉴타운1970' 이란 타이틀로 졸업설계(1965~'66)를 해서 국전에 출품까지 하여 특선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시에 우리에게는 뉴타운 개념이 없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영국에는 여러 군데 모범적인 뉴타운의 효시들이 있었다. 그려한 정보를 토대로 시금의 발산역 일대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벌판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세운 것이다. 30층이 넘는 초고층 타워 형으로 하고, 전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가장도 세우고 미래비전을 세운 것이다. 특선 당시 심사위원이 김승업 선생이었다.

아직 아파트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1977년쯤 누기 찾아왔다. 서울외곽지역에 연립주택을 짓는 회사인데, 본격적으로 아파트 해보겠다고 했다. 자기 집으로 약서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다.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세워진 우성아파트 기본계획을 6개월 합숙하면서 작업했다. 당시에 전온배, O.종상 등과 같이 아파트 배치와 단위평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에는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 품평회도 했다. 그랬더니 일자형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었다. 6개월간의 합숙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성과의 인연이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6~7년 지난 후 아시아 선수촌(1983~1986)에서 우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시아 선수촌 설계경기에 서 우리가 합숙하면서 했던 요소들을 채택하여 낭선이 되었던 것이니 헛수고는 아닌 생이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내가 어디에 살았느냐 와도 관련이 있다.

강남 에어아이디 아파트에 살았는데 당시 영동백화점 사거리 근처이다.

7~8년간 살았는데 버스도 안 다닐 때였다. 강남에 일찍 와서 살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많아진 것이다. 당시 한국은 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경험 없던 시절인데, 일본말에 익숙하기에 도시주택 책들을 흥미로운 책으로 봤던 것이다. 당시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의 최고높이가 12층 정도 일 때인데, 주공에서 2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프로토타입 설계경기를 계획하여 당선된 적이 있다. 두 개 층을 하나의 입면모듈로 정리한 계획이다. 상계동 단지에 한 번 세워졌다. 공중에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했는데, 막상 주민들은 싫어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시아선수촌 이후로 일이 없어 주택시공을 하다

개업 후 한 일들 속에 기억나는 것은 인하대 학생회관(리노베이션 1984~1986년)이다. 원래 원정수 교수님이 설계한 건물인데 증축하며 리노베이션을 했다. 연면적이 3천 평이 넘어 이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학교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기에 현관 없이 곳곳에 출입구가 있는 마치 도시의 일부로 인식한 계획이다. 아시아선수촌 일을 끝으로 일이 없었다.

그 당시에 설계한 합정동주택(1986년)은 주인이 레비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콘크리트를 무리하게 시도했다. 청담동주택(1987년)은 적인으로 공사까지 맡아 직원 한명하고 들이 시공을 한 것이다. 마침 노태우 대통령이 이 백만호를 부르짖을 때라 자세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그리고 1988년에 지은 바로크빌딩은 노선상업지역에 지은 삼백평정도의 건물인데, 도시 디자인에서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유행을 따르고 루이스 칸 흉내도 내고 한 것이다. 사무실도 그 빌딩으로 옮겼다.

1988~1989년에는 일본에 있는 '갈러리 마'에서 '한국건축가 3인 전' 전시회 준비로 한참 생각이 달라지고 할 때였다.

'양재동287-3(1991년 건축가협회상)'은 그 당시 강남의 변화가 양재동 일대로 번지기 시작할 때이다.

해운대빌리지(1993년), 우성캐릭터빌(1994) 등이 후속타로 이어지게 된다. 해운대 빌리지는 빌라 19세대인데 경사지에 대응한 공동주택으로 제안해서 지어졌던 것이다. 도곡동 우성캐릭터빌은 주상복합으로 하층부에 오피스텔, 그 위에 아파트의 구성인데, 복층아파트 형식으로 2개 층마다 복도가 있는 층이다. 아워밸리스가 지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제일 높은 주상복합타워였다. 강남의 주거형식이 변화하는 파도를 탄 셈이다.

1995~1999년도 까지 종합사무소제도 때문에 고생했다

1992년에 종합사무소 제도, 소규모 건축설계, 설계분리 등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활동을 하였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났다. 종합사무소 제도가 없을 때였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삼풍백화점과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는데, 건축사 면허와 관련 없는 다른 협회에서(지금도 애 그랬는지 모르지만) 종합사무소로 사고와 관련 있는 것처럼 밝혔다.

그 후로 1999년 의재미술관까지 별로 알아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1999년 의재미술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1999년에 의재미술관(2001년 준공,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수상)으

로 다시 건축계에 등장할 때까지 서울건축학교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다음 해에 선유도공원(1999~2002, 김수근문화상,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을 끝냈다. 2003~2004년에 해인사 산행문화노량의 설계경기에 당선되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실변경 승인이 안 되어 미루어지다가 해인사·체 문제가 생겨 없던 일로 되었다. 현대적인 재해석의 사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아쉬운 일이다.

비슷한 시기의 시엔아트스페이스(2004~2008년 준공)는 백남준미술관과 관계가 무척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 후로 동대문디자인프라자(2동, 2007년), 행정중심도시 공동주택(3동, 2006년), 태권도공원(2동, 2008년) 등 국제설계경기에 지명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겨우 당선된 고암 이승노기념관(당선, 2008년)은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

전시관 면적이 심백 평량 되고 기념관까지 오백평 정도 되는 일이다. 화가의 생가와 연결된 풍경 개념으로 풀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작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

건축사의 작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기도 모르게 흘리기고 있을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강남의 부동산 불, 초고층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의 변칙인 빌라 등은 결국 건설사의 영리목적에 건축사들이 맹목적으로 부응한 것이라지만 성찰 없이 떠리간 필자도 되돌이보면 마찬가지다.

그동안 미술관 건축 몇 개하고 지내왔지만 건축사의 수명은 권력과 자본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직원은 8명 정도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의 변화라면 큰 프로젝트는 계속 실패한 상태에서 개인사무실이 공공프로젝트를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설계원을 만들었다.

개인 일은 사무실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김영섭, 정기용 두 교수와 함께 대학원 과정에 설계원을 만들어 공공건축의 설계와 가버넌스 과정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수행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 것이다. 현재 3년째 학생들과 더불어 작업 중이다.

서울건축학교 등의 활동에 몰두한 이유

1960년대 대학교 졸업하고 뚜렷한 생각 없이 사무실 다닐 때 "건축사사무소는 무엇을 하는데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건축사협회는 건축시늉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알았다.

지금 직능교육으로 5년제 인증제도는 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사무실들은 그에 맞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를 책임 것이라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막상 건축주에게 제대로 할 일을 못해주고 하는데, 설계비 문제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형사무소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작은 사무소들에게도 제공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단지 큰 일을 한다고 욕먹지는 않

인터뷰 후기

옛날에 한동안 건미준 서울건축학교 초창기에 조성룡 선생 등과 같이 모임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 저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나의 의아함은 자연히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건축계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하는 의심도 하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와 대면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뚫렸고, 한편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런 후일을 생각하고 서울건축학교 등의 일을 꾸준히 할 해안이 있었나 싶어 놀랐다. 그는 글 중간에 밝힌 것처럼 장기간 일을 못하면서 내공을 쌓아 의제미술관으로 건축계에 화려하게 재등장한 것과 하나님나의 건축에 혼신의 힘을 쏟는 정인정신을 가진 건축사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시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을 것이다.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건축수들이 교수라고 해서 비시니스맨 보다는 다르게 봐주는 정도라고 할까?

구청에 가면 구청장 옆에 앉게 한다는지, 그럴 때는 교수노 상당히 대접 받는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4.3그룹, 건미준, 서울건축학교 등 소위 뜻있는 건축사그룹과 활동하면서 사회적 운동을 할 필요는 있지만 시간이 들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을 기르자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이 서울건축학교이다. 10년 후에 나가서 활동할 사람들을 기르자고 한 것이다. 당시 한참 유학 갔다가 돌아온 건축사들이 많을 때였다. 그들을 위해서 활동할 터전을 만들 생각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학생들과 세대 간 격차도 적고 한국건축계에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서울건축학교 교장을 10년간 맡아서 했고 다행인 것은 그때의 컴퓨터선생들이 이제는 건축계의 중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육 그리고 건축사 소사이어티가 틈틈해지기를 원했다. 2003년에 교장을 그만두고 서울건축학교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갔으니 제도권에 편입된 셈이다.

공공의 건축활동으로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탄생에 도움을 주다

공공석인 활동으로는 2006년부터 8년까지 대통령사문 기축문화선진화 위원회(위원장 김진애)의 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그동안 건축기본법도 만들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책 건축도시연구소도 만들어졌다.

부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연구가 중요한데 이번 정권 들어 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안타깝다.

현재 시장에서 건축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사로 활동할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어떤 개념과 자세로 임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을 끊임 없이 궁리하는 것이 건축설계원의 목표이다.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영역을 느슨하게 넘나들며 다른 디자인 영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영역싸움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협동으로 발전시키려고 말이다.

후배 건축인들이 내가했던 활동들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후배 건축인들에게는 내가 그동안 참여해서 해왔던 운동들에 대해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해해주었으면 하고, 지금 이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한다. 시금에 와서 삶은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궁리하려면 전에 있던 상황을 신정으로 이해하는 신에서 출발하면 된다.

'열심히 일 하자'가 나의 좌우명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균형감 있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자, 그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10년 단위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미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나중이라 는 개념은 없다.

현재로는 69세까지 열심히 하고 또 잘되면 79세 또 89세까지 하고 싶다.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백 두 채, 도심인 청운동에 있다. 삼선동 성벽 옆 재개발 예정 지구에 오래된 불교사찰을 리모델링하는 작업과 정릉3동 구릉지를 재개발하는 작업인데, 저층아파트 1,400세대와 마스터플랜과 생비 계획은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건축단체의 통합이 어려우면 폐지는 어떤가?

한국건축계의 고질이라면 건축단체의 통합인데 통합이 안 되면 단체의 폐자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폐지되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심각하다. 어떤 방법이든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간 세대고 후배 건축인들을 위한 것이다. 미래의 건축사와 학생들을 위하고 건축사회 전반을 보고 미래를 직시했으면 한다.

우리 현 사회의 공공성은 과연 무엇인가? 전자 테크놀러지가 극도로 활성화된 이런 시대의 시공간에서 공공조직인 기纽니티를 위해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나.

개인적인 기축은 개인이 책임지만 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여 건축단체들이 후원하고 할 때만이 건축사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 도시에 일 뺏기고 조경에 뺏기고 건물마 책임지는 건축사가 된 셈이다. 1995년 까지 종합건축사제도 때문에 우월건축으로, 지금은 조성룡도시건축으로 책임진다는 선언을 하는 기분으로 사무소 개명을 한 것이다.

양극화문제도 모럴이 존재하면 괜찮다

양극화문제는 서로가 잘하면 된다. 잘못하니까 문제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은가.

결국 문제는 직업윤리이다. 내형사무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인사무소의 기여는 한계가 있고 대형회사는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 된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작은 사무소가 도저히 못하는 일들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의 노하우 등이 공유되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주해서 작은 사무소에 하청주고 그려다보면 같이 망한다. 수주라는 말 자체가 틀린 개념이다. 커미션 이 맞다. 큰 사무소의 자본의 흐름이 융합하여 턴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단기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결과는 어떤가?

이세는 B.I.L이라는 방식까지 나타나서, 이를테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타난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보편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으로 대형조직은 합당한 일만 하고 모럴을 지켜야 한다. 직업윤리를 지킬 때만이 대형사무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사무소간 작은 사무소간 규모의 논리보다는 건축사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확립되어 직업의 자긍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인체자원중앙은행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biobank of Korea

당선작 / 성진용 성진용 · 박기성 장현우
(주. 원양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3번지
지역지구	국가산업단지(오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대지면적	16,529.00m ²
건축면적	5,319.50m ²
연 면 적	12,225.20m ²
건 폐 율	32.18%
용 적 률	66.38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질병관리본부
설계담당	원양건축_박근우, 김경록, 김하영, 김종섭, 백철호, 김기범, 김차관, 정대영, 조문영, 서재원, 윤여진 시선건축_이종환, 김은한

미래 생명과학의 씨앗을 의미하는 마이오 시드를 계획개념으로 삼아, 천단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인체자원 중앙은행을 국책단지와 마주하는 넓은 진입광장과 녹지를 감싸 안은 최고의 친환경, 바이오 연구소로 만들고자 했다. 인체자원 중앙은행은 인체자원을 수집, 저장하고 관리와 연구, 분양이 이뤄지는 곳으로 주요시설은 연구-실험시설과 사원 저장시설, 행정·홍보시설, 공급시설로 구성된다. 사업대지는 국책단지의 전면 도로와 접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부지로 국책단지와의 연계와 22m 전면도로에서의 정면성 확보가 중요하며, 저장시설은 위한 냉동보리가 수시로 진입하는 시설인 만큼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진출입구 계획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험연구시설을 주 접근도로에 배치해 정면성을 확보했으며, 국책단지로의 연구원 이동 동선을 가장 짧게 했다. 지원공급시설은 부하의 중심에, 저장시설은 안전하게 대지 한쪽에 설치하고 전체를 난향으로 배치함.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 위의 분석과 배치방향을 바탕

으로 몇 가지 계획의 주안점을 도출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첨단 생명과학의 핵심연구소로 만들고자 하였다. 전면에 연구시설을 배치하고 바이오 연구시설의 개방적인 모습을 통해 강한 상징성과 인지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경관 녹지를 건물 양쪽까지 반야들여 밝고 폐쇄한 열린 종정을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완벽히 분리하고, 업무와 부대시설 이용을 위해 수시로 국책단지를 찾는 연구원들이 긴 거리를 돌아가지 않도록 주 진입 광장변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계획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량 동선은 질소가스 충전용 뱅크로리의 진출입을 고려해 12m의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했고, 순환형 차량동선으로 향후 유지관리와 저장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넓은 진입광장을 두어 전시, 홍보시설의 기능을 활성화 사겼으며, 경관녹지축을 받아들이는 커뮤니티 광장을 개방된 종정까지 끌어들이고, 옥상정원으로 연계시켜 입체적인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했다.



국가 중앙 바이오-뱅크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상징적인 연구소를 위해 인체 DNA를 형상화한 일면으로 청단 바이오 연구소의 조형미와 상징성을 표현했다. 위치성과 역동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으로 중정과 연계되는 개방적이고 나이나마한 경관을 꾀하였다.

두 번째로 시설별 영역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적인 연구소로 만들고자 했다. 각 시설들을 최적의 기능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조성하고, 업무연계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확보했다. 자상 1층에 통합형 로비를 도입하고 모든 사무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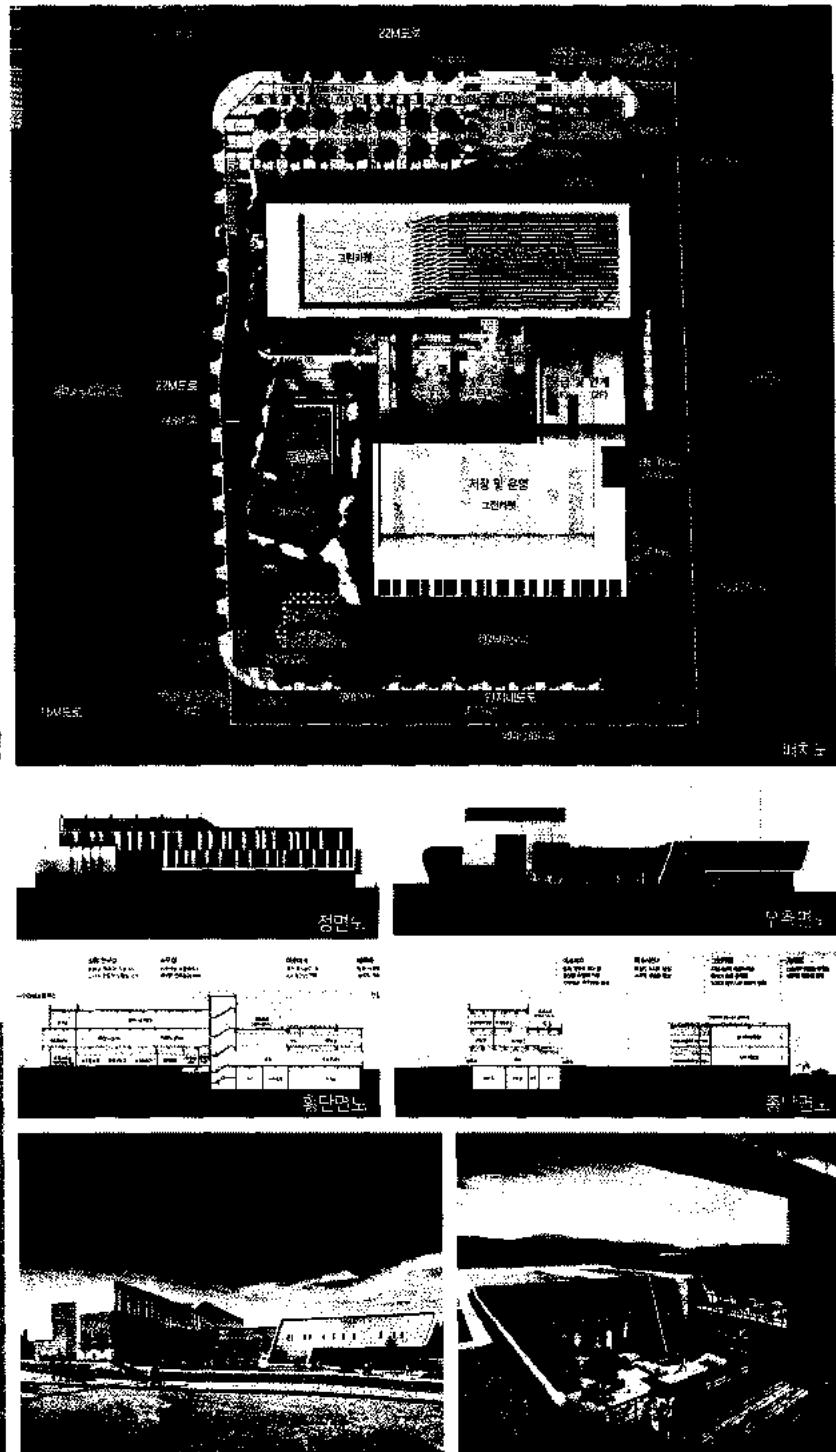
2층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 실험실을 집중시켰으며, 저장시설과의 동선 단축을 위해 네트워크-브릿지를 도입해 양방향 순환동선 체계를 구축했다.

3층의 실험 연구실은 근무환경을 고려해 남향으로 배치하고 빛과 바람이 스며드는 친환경 에코박스, 옥상정원과 연계된 에코테크 계획으로 내·외부가 연계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험실은 공동기기실을 중심에 집중시킨 오픈 플랜으로 다양한 가변성이 확보되며, 내부 복도를 활용한 실험대 확장, 개별실 구획에 대응하는 모듈계획으로 미래 실험환경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게 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사용과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저장 및 공급시설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연구원의 안전을 위하여 저장시설의 이격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급시설은 질소가스 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저장시설과 지워시설 사이에 베퍼존을 두어 이 중으로 차단했고, 공급시설을 부하의 중심에 배치하고 소음과 진동, 역전달 방지로 고려해

저장시설과 이격시켰으며, 벌크탱크 주변은 투시형 접이휀스와 콘크리트 방호벽 등 2종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연형 설계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연구소로 계획하고자 했다. 전면광장에서 중정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그린-네트워크와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 연구소로 계획하고자 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경춘선 별내역사

Byulnae Station

당선작 / 윤재일 책면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요용도	철도역사
대지면적	7,700m ²
건축면적	2,362.03m ²
면적	역사시설_2,362.03m ² 승강장_7.0mx185m(2개소) 총지붕_3,386.08m ² 진입광장_816.98m ²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규모	지상 1층
설계담당	정규식, 이세우, 이진수, 손태우, 김나람외, 전정철, 조혜영, 장은숙

계획개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 생겨나는 것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별내역사는 마을의 기억과 도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Archives_아카이브즈 :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역사적, 문화적 재산과 지역문화 등을 보존·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의미창출.

Ecology Station_생태역사 / Ecology Station : 생태 Station : (기차)역.
생태, 인간친화적, 자연과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공간창출.

평면계획

공간효율성의 극대화_여객공간과 역무 공간의 분리로 동선의 혼재를 막으며 공간 효율 증대.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의 승강장 이동 동선이 간결하며, 환승통로로의 접근이 용이.
역무시설과 지워시설의 구립배치로 역무자의 최단거리 동선 확보.
역무시설에서 Free Area와 Paid Area로의 별도 접근동선 확보로 관리효율성

극대화.

쾌적한 외부환경, 환경친화적 공간제공
주변 자연환경(불암천, 용암천)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 친화적 환경구축.

역무공간의 남향배치로 역 근무자를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제공.

동선계획

송객중심의 단순명료한 동선계획.
이동간의 열린조망 확보(불암산, 용암천, 불암천).

녹지, 수공간과 함께하는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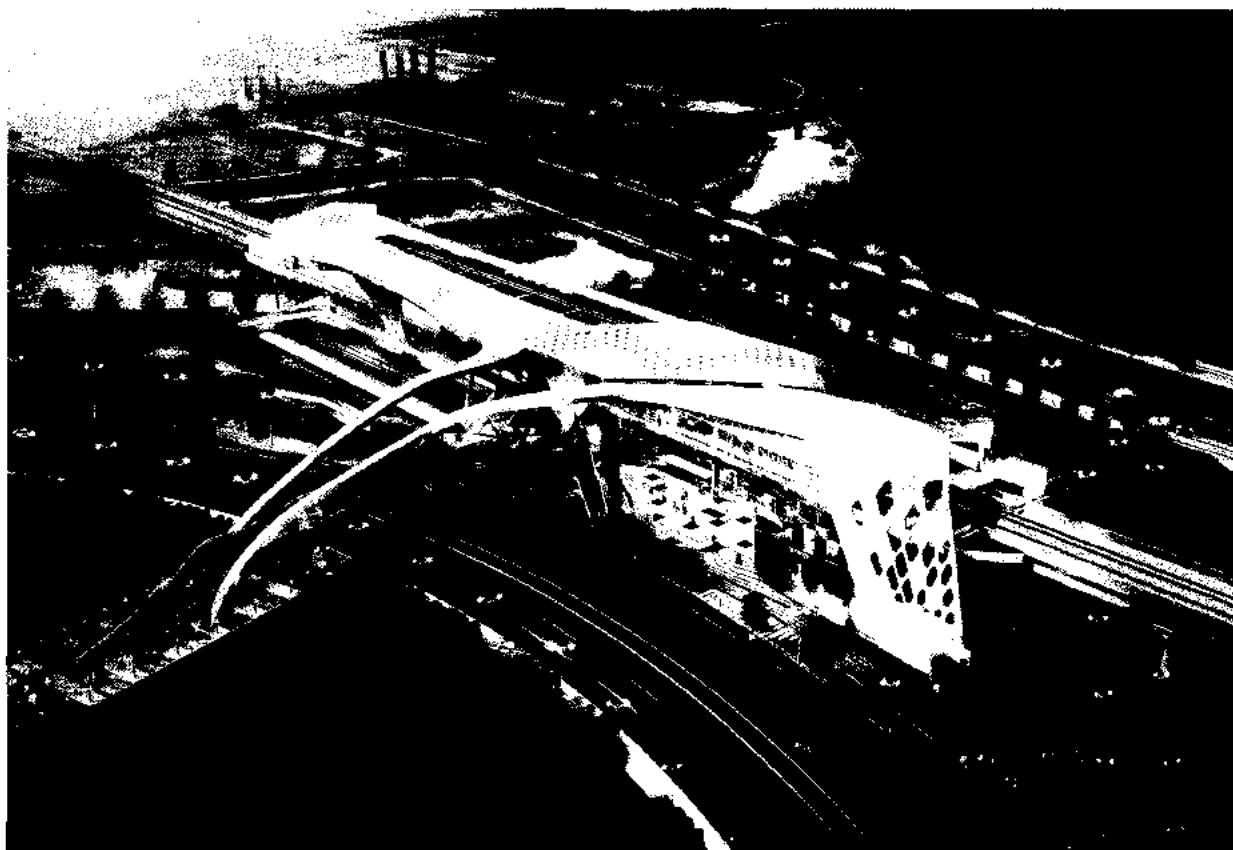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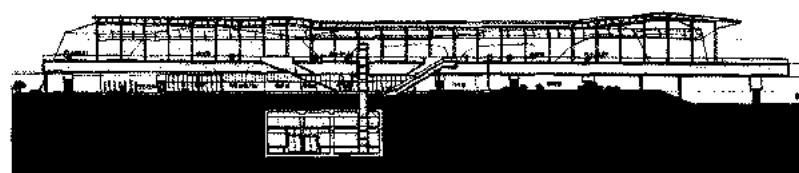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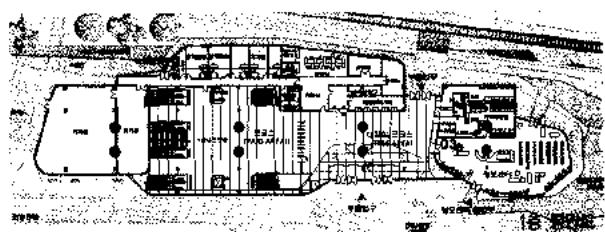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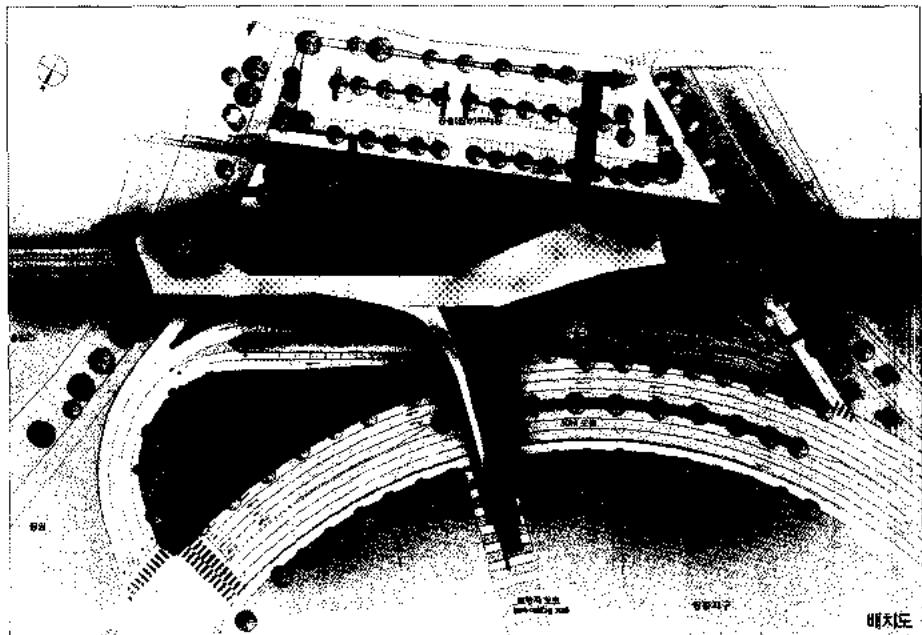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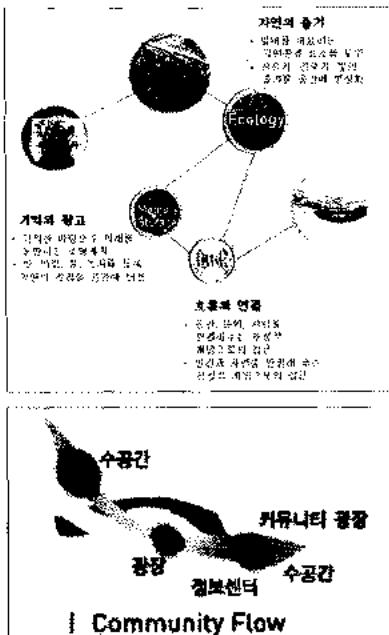
유기적 흐름_별내는 자연과의 공생도시이다. 별내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흔적을 찾아 현재를 이어가고, 역사를 공간화하는 주된 개념으로 자연의 유기적 흐름을 제안한다.

단면계획

동선의 흐름_단절된 두 지역의 동선연계와 동시에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

빛의 유입_내합실, 콘코스, 역무기능실의 채광성 확보로 자연의 빛 유입 ■





경춘선 별내역사

Byulnae Station

우수작 / 박재유 · 정 협
(주.제이유 건축사사무소)
+ 김계원 장현 · 김태우
(KMT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운수시설· 철도역사(선하역사)
대지면적 약 7,700.00m²
건축면적 2,378.57m²
연 면 적 2,391.31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구조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제이유건축_최 응
KMT건축_이기성, 박근일, 김민혜, 이성희

달빛에 비친 청호지를 통하여 물에 핀 '배꽃'
향기가 그윽하게 스며들는 별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별내가 '신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다.

미래를 향한 녹색 교통의 '흐름',
별내신도시의 '뉴아이콘' 디자인을 제안한다.

기본개념

역동성_지역과 소통하며 명쾌한 흐름 형성,
지역의 역동적인 모습과 미래지향적
인 형태 적용.

다양성_도시와 자연의 흐름을 대지 안에서
연결, 자연적 요소들을 공간 안에서
체험.

개방성_승강장 내에서 별내 신도시를 조망,
실내·외 천장변화로 개방성 확보.

지역성_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지역성 반영,
별내의 배꽃 이미지 형상화.

배치계획

- 별내신도시를 조망 가능한 열린 배치
- 장애인 4대를 포함한 22대의 넉넉한 주차
장을 배치하여 역이용의 편의성 확보

- 이슬광장, 약속광장, 배꽃광장, 이벤트그라
운을 전면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커뮤니티 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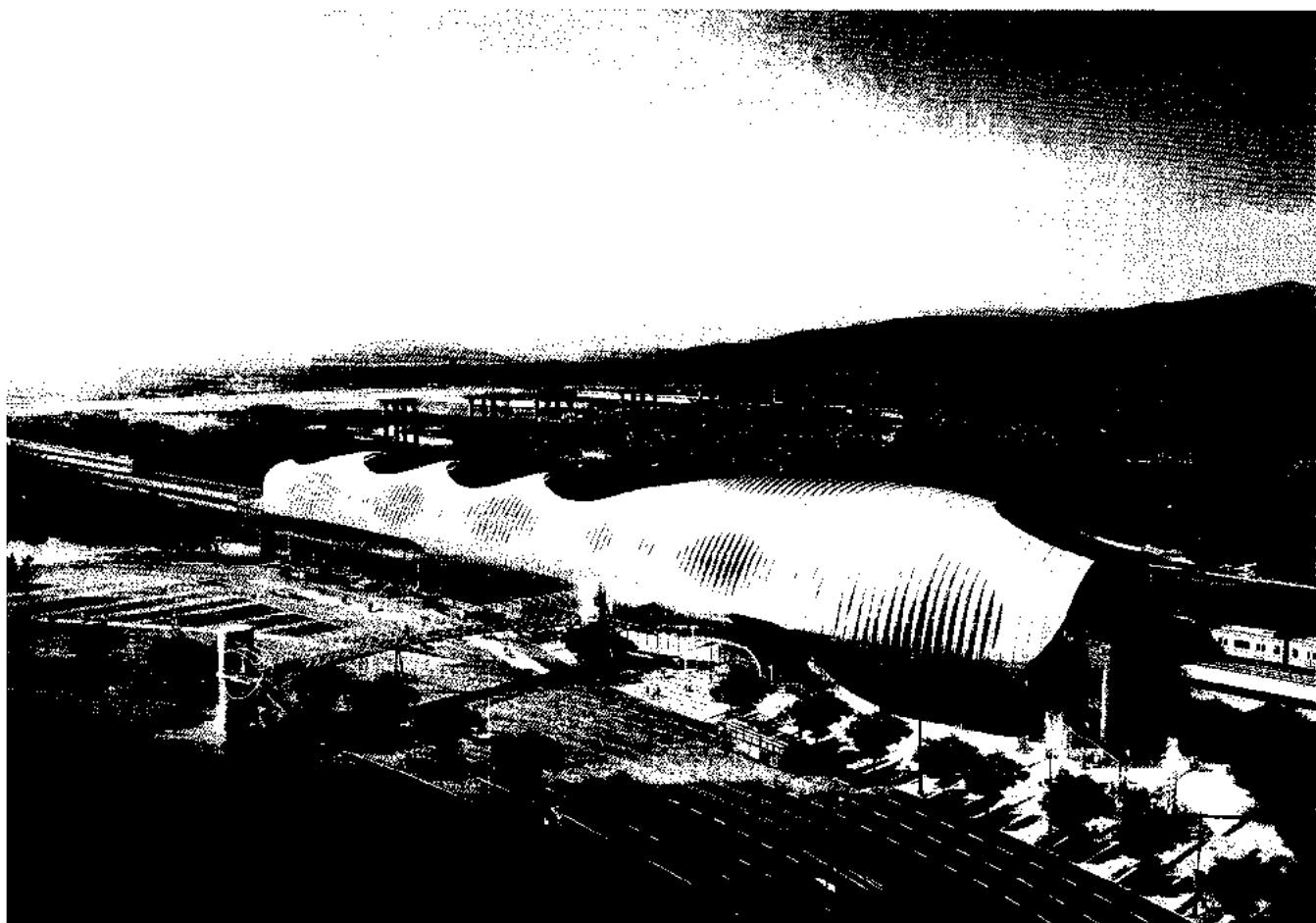
- 버스와 택시 Bay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
통을 이용한 역사의 접근성 확보

평면계획

- 전면 본코스로 개방감 확보
- 그린벨트를 이용하여 역사 내부로 자연유입
- 역무시설들을 남향 배치로 환경성 고려
- 전기실, 기계실 등을 분리 배치하여 소음으
로부터 격리
- 승강장 중심에 E/V, E/S를 설치하여 접근
의 용이성 확보
- 승강장 내외 환경성을 고려하여 승강장 흙
지붕 Open

단면계획

- 콘코스 및 대합실의 천정고를 최대한 확보
하여 개방감 증진
- 교각 상부가 낮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
용하여 대지의 효율성 극대화
- 실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계획으로 유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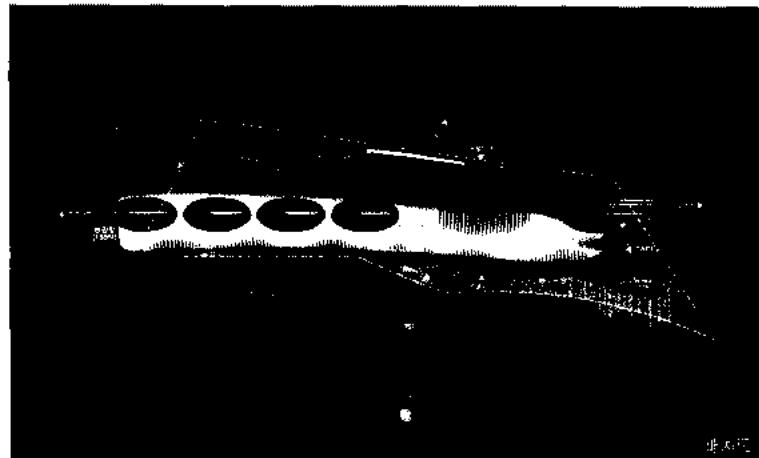
리의 편의성 극대화

입면계획

- 기능적 불필요감으로 전면의 주출입구를 강조하여 동선 유입
- 불규칙한 창호의 형태는 별내 신도시의 랜드 마크적 효과
- 매스 스킨은 승강장 내부의 다이나믹한 공간 연출

동선계획

- 콘코스 전면을 Open하여 이용객 동선의 단순화
- 승강장 전입동선의 집중화로 고객의 편의증진
- 역사 내부에 별내선과 연계를 위한 T자형의 환승통로 설치로 환승 동선 단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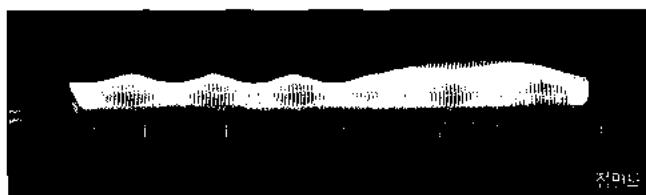
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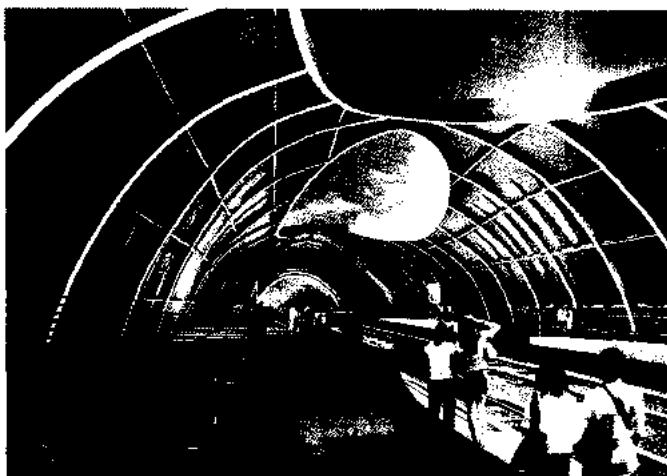
승강장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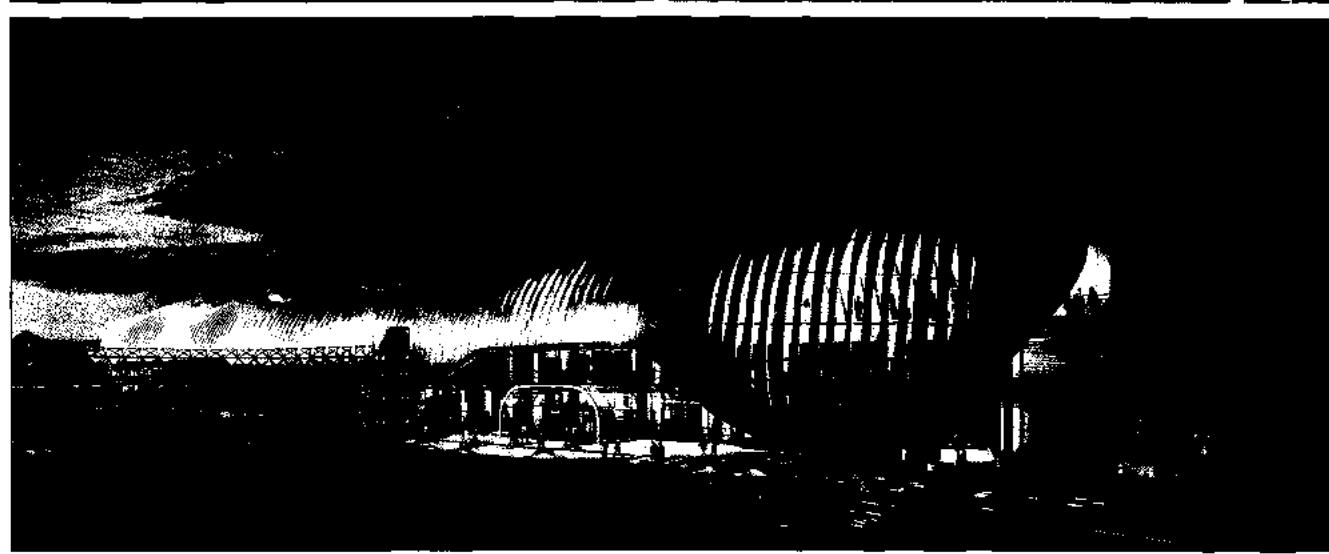
1층 출입구



전면도



승강장



경춘선 별내역사

Byulnae Station

가 작 / 차명호
(주)바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

대지면적 7,700m²

건축면적 2,433.77m²

연 면 적 2,433.77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구조(승강장)

규 모 지상 2층(1층:역사, 2층:승강장)/선하역사

설계담당 정주환, 남현우 외

나무와 나무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출발과 도착, 떠남과 돌아옴, 그리고 만남과 기다림의 긴 승강장.

그 기다림의 긴 벽면 나무그림자 사이로 드리워진 햇살.

어렸을 적의 역사는 늘 설레임으로 기억되는 장소다.

어디론가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기대감, 또는 누군가를 맞이하고 떠나 보내는 곳으로, 대합실은 늘 사람으로 붐비었고,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플랫트홈은 떠나고, 보내고, 돌아오고 그리고 맞이하는 희비가 교차하는 곳이었고, 시골 간이역사 앞 선로변에 길게 늘어선 포플러 나무 그늘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추운 겨울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플랫폼의 캐노피 역할을 대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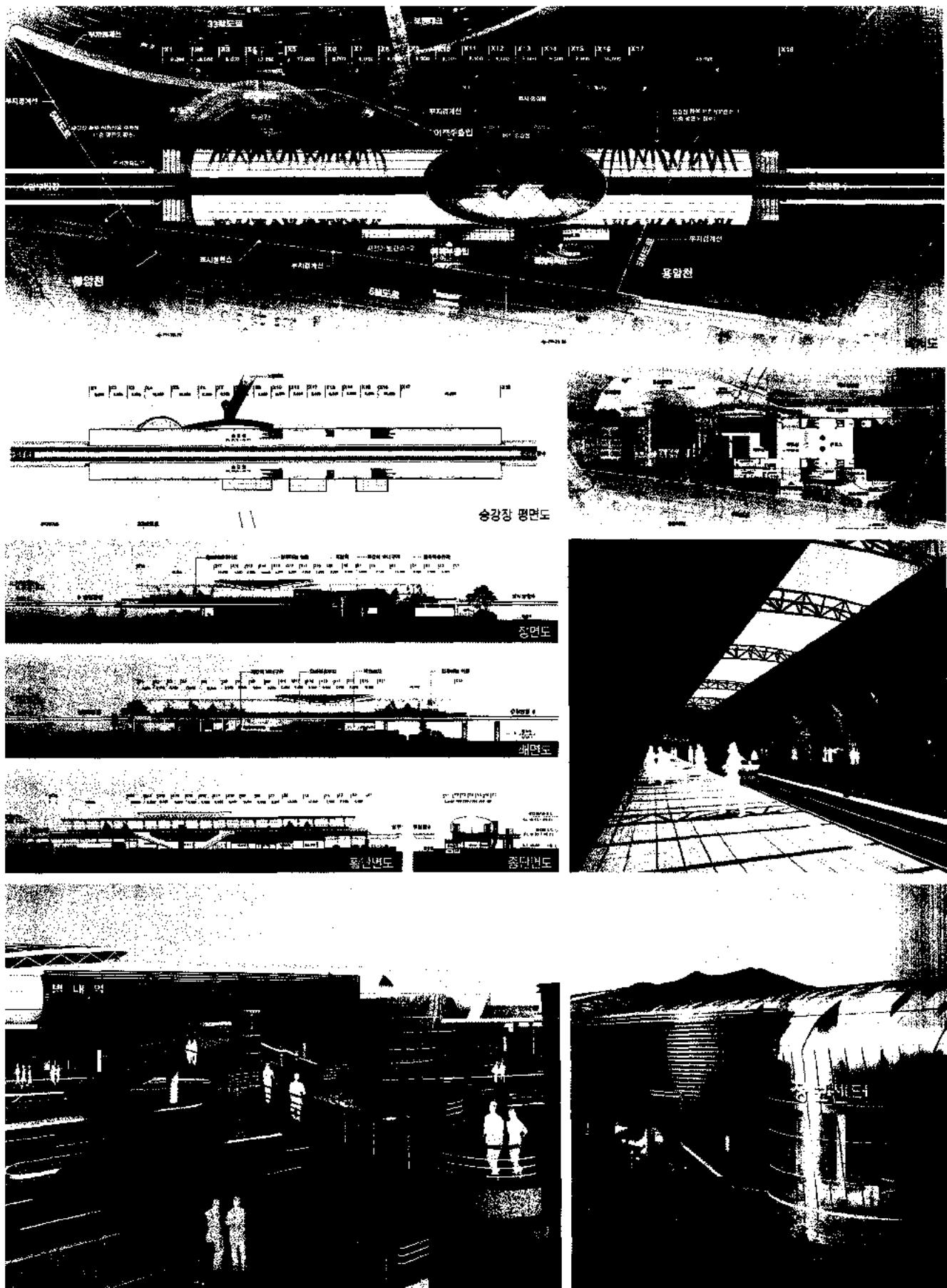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기존 경춘선 철로변 위로 늘어서있던 나무 그림자의 기억은 새로 신설된 콘크리트 교각 위 승강장 구조물위로 다시 드리워지고 드리워진 나무와 나무사이로 내려 쏟아지는 햇살은 어렸을 적의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기억속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지열/태양/풍력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방식
- 승강장 흙지붕에 추적형 태양광 발전설비 채택
- 태양광 소변감지기/태양광+풍력 조합형 LED가로등
- 투수성 바닥재 포장/녹색주차장 설치
- 자전거 주차장에 부설탈의실인 샤워실 설치
- 자연환기 및 채광 도입한 대합실 및 콘크스
- 빗물을 이용한 우수설비 채택으로 조경 및 수공간 용수 활용 ■





설계경기 | Competition

모바일융합기술센터

Renovation of Mobile Convergence
Technical Center

당선작 / 김인기 경연·민병직
(주)현대중합설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구미시 산평동 188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상대정화구역,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6,766.00m ²
건축면적	14,215.66m ²
연 면 적	7,218.16m ²
건 폐 율	18.51%
용 적 률	9.4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구미시청
설계담당	현대중합설계_남상철, 박정식, 김정민 NKENC_한린수 사이어쏘시에이츠_김채진, 이찬우

Transformobile Transform for Mobile 모바일을 위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모바일 기반산업을 발전시켜온 구미정보기술원은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한다. 독자적 기술경쟁과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기존건물(구 금오공대 본관)을 리모델링함으로서 새로운 변화에 최적화된 친환경연구시설로 거듭난다.

모바일 융합센터는 'Transform for Mobile_모바일을 위한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 아래 3가지 변화를 담아낸다.

첫째, Transform_Context

새로움을 단아내기 위해 기존의 기억과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context에 새로운 모습을 담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려한다.

둘째, Transform_Green

금오산의 녹지흐름이 단지 내로 흘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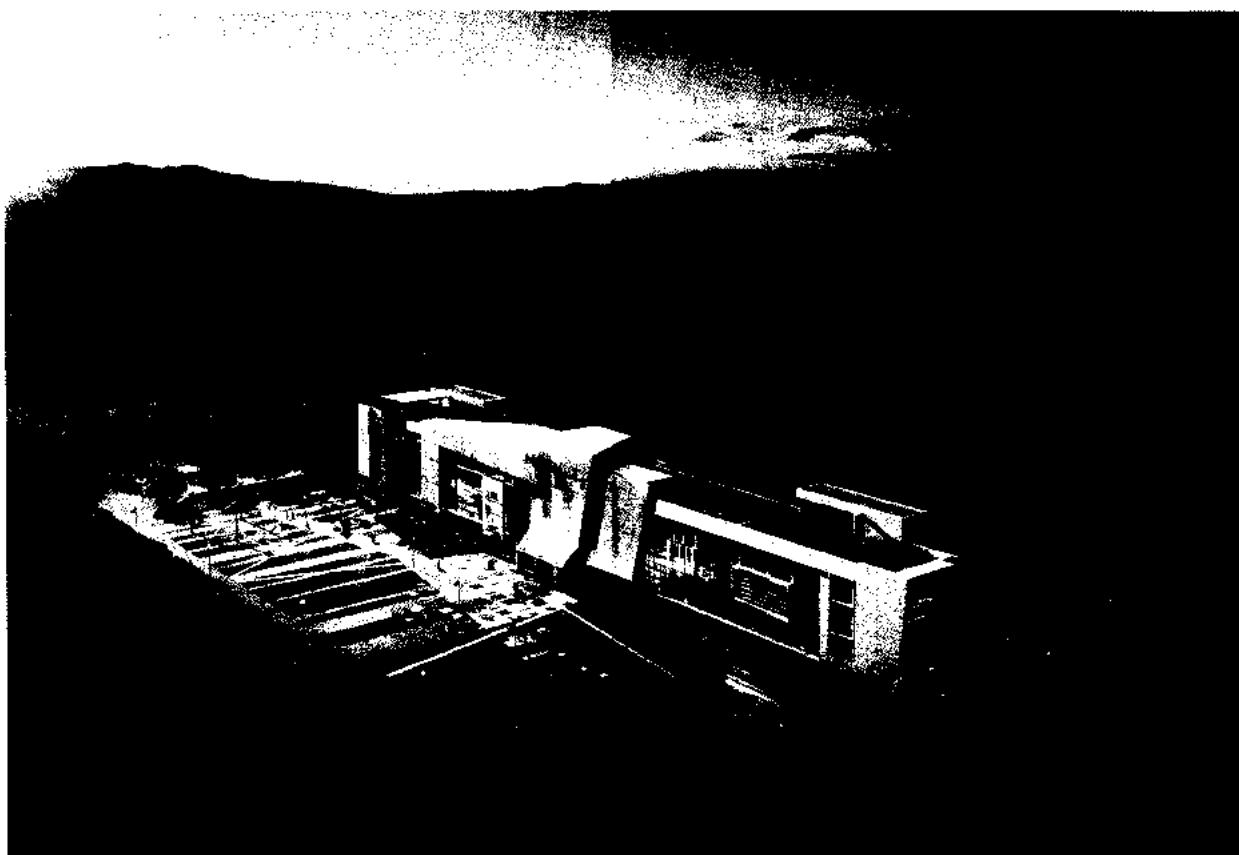
어오고 태양광, 풍력등 자연의 에너지가 단지를 밝히는 미래형 친환경 연구단지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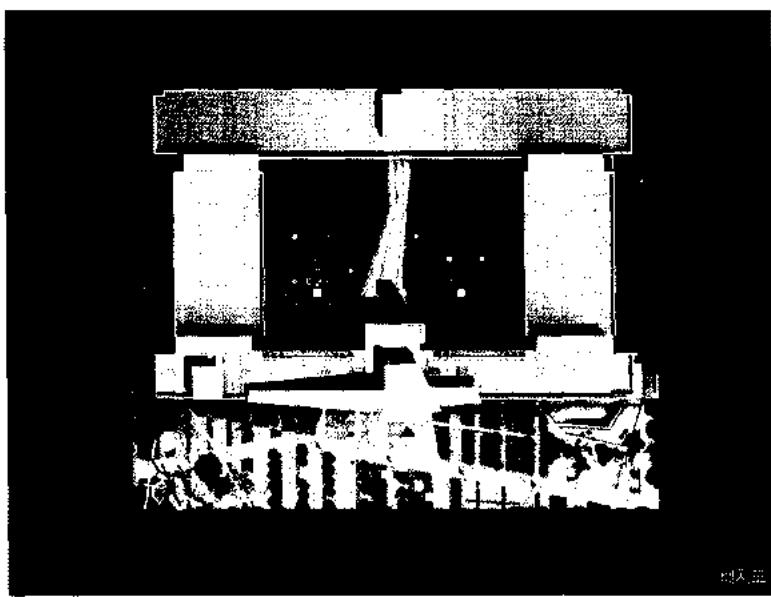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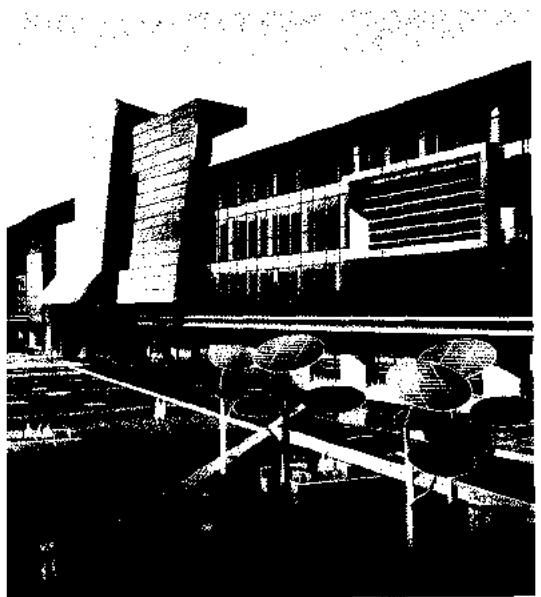
셋째, Transform_Image

시간별, 장소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면의 변화성은 모바일융합기술센터의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모바일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지원과 연구개발지원군의 기능 및 동선의 분리를 통한 시설배치의 합리성 그리고 평면의 가변성과 다양성, 프로그램이 지녀야 할 편의성과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요소를 이용한 꽤 적성의 균형을 다각적으로 제고하여 돌보적인 센터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으로 내적으로는 특화기술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중심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이 담겨지고, 밖으로는 모바일 산업의 지표로 남게 될 시대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희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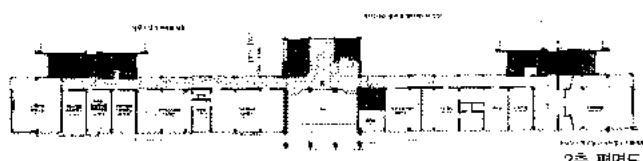




出入口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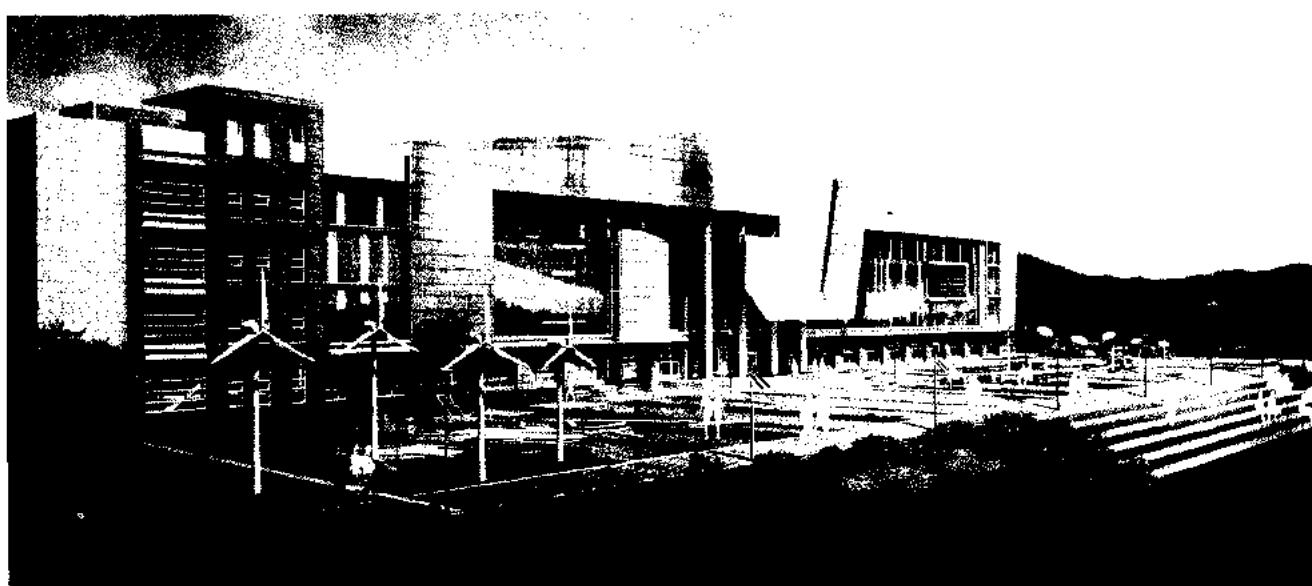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면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

Renovation of Mobile Convergence
Technical Center

우수작 / 소석규 장현
(건축사사무소 텁)
+ 조극래 목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지위치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상대정희구역,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6,766.00m²
건축면적 14,215.66m²
연 면 적 7,234.40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M-TRANS:FORM : 모바일 상징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현재 (구)금오공과대학교 본관이 모바일융합센터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부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지침의 요구면적을 감당하면서 내부공간을 조절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녹녹지 않았다. 우리는 중정과 건물 사이공간의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시각적 흐름을 통(通)하여주고, 새로운 기능을 담아내는 커뮤니티박스(Community Box)의 삽입을 꾀하였다.

이는 내부 이용자들에게는 폐적한 연구 환경의 제공과 부족한 커뮤니티공간을 중정부분 까지 적극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치계획 (구)금오공과대학교 본관 중 일부 전면 동을 기존 건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나머지 건물동과 중정영역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남측 광장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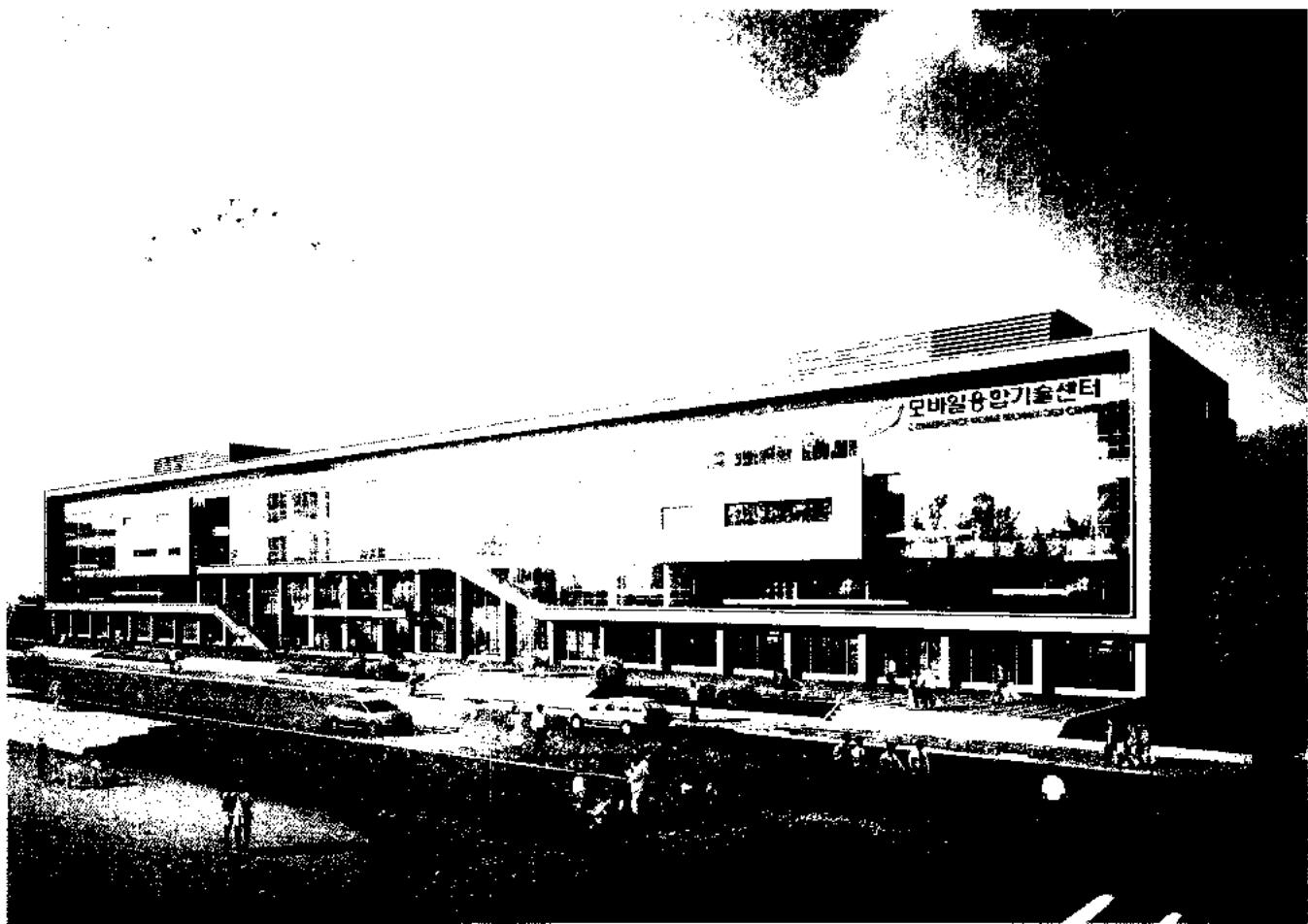
을 조성하여 외부공간과 시각적, 공간적 확장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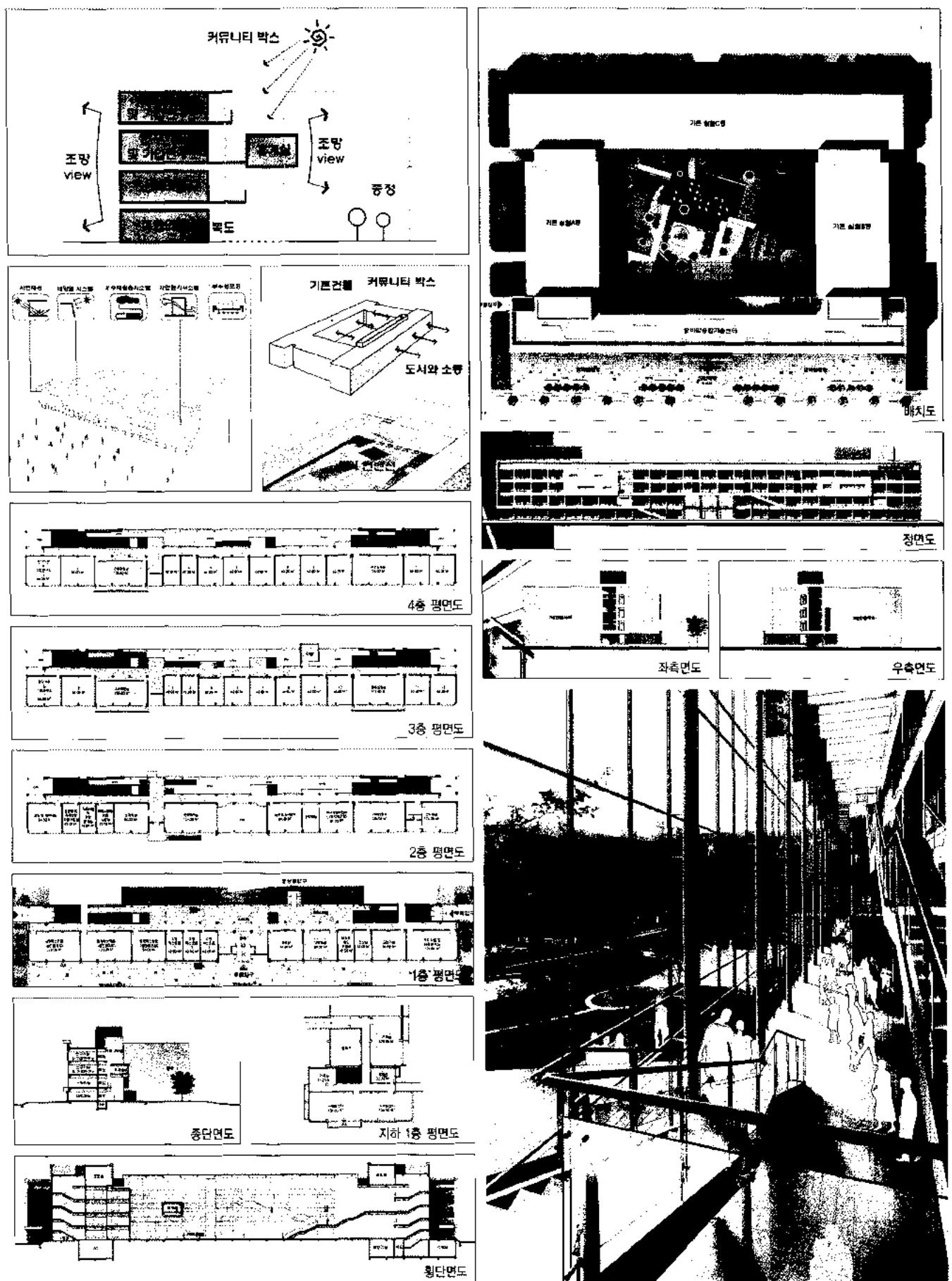
동선계획 중앙홀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수평, 수직적 내부동선을 계획하여 층간 소통의 극대화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평면계획 기존 건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의 공간을 구성하고 중앙홀은 일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보강하여 보다 개방적인 공간감을 제공하였다.

입면계획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입면패턴과 유리재료를 통하여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확장성을 도모하였으며, 복층유리, 금속패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단면계획 수평적으로 내부동선을 계획하여 층간 소통을 극대화하고 중정과 커뮤니티박스의 연계를 통해 내부환경의 폐적성을 도모하였으며, 남, 북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조망을 제공하였다. ■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썼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보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인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실상을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니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다간가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람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축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시문학의 내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리 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주제한 사조를 지난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끌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기 몽olian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어로(迺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el life giving town
2. 미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_桐鄉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 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9.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봉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 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립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황도개경의 비밀 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고풍영향평가위원회 위원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

- Tdegae-Lee Whang and Danyang -

옛 도시의 흔적, 그것은 역사란 박제된 박물관의 전시물목이 아니라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임을 알리는 불씨다.

해를 넘기고 일월중순에 접어들면서 소한이 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대한을 며칠 앞둔 날씨는 절기와 달리 산과 들판에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엄습하기 시작했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서 얼어 죽었다는 말을 절감이라도 하라는 듯 남쪽으로 기울대로 기운 해는 늦게 뜨고 일찍 젖다. 온기 잃은 햇살이나마 서산에 가리우고 나면 추위는; 이내 어둠살과 함께 골골을, 상방리와 중방리 그리고 하방리 마을을 채워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두악산 마지막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듯 이따금씩 긴 울음을 울곤 했다. 단구협 골을 타고 온 남한강바람이 하방리에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성재산 능성이를 스치고 가면 나뭇가지 시달림 당하는 소리와 솔잎들이 훑슬리는 소리가 쉼 없이 퍼져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짹릉 산이 울었다. 소백산줄기에 뿌리를 둔 두악산은 줄기가 길고 골이 깊어서 그런지 계곡을 타고 들려오는 산울림은 둔중하고 기 파장으로 울려나갔다. 세찬 바람



(그림 1) 문제의 내 가닥길 단양읍 1/5000



(그림 2) 네 가닥 불의 모습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울림은 흡사 쇠북소리 같았다. 그러나 여러 가닥으로 얹히고 설친 소리 가운데 낮고 긴 여음을 남기는 그 울림을 세심하게 짚어 보면 두 소리는 엇비슷하게 서로 닮아 있어 같은 소리인 듯했다. 그러나 느낌마저 속일 수는 없었다. 쇠북소리가 귀에 나가와 마음에 닿는 소리로 만들어진 울림이라면 산울림은 가슴을 울려 가슴을 치는 소리, 바로 근원적인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쇠가 울리는 소리와 땅이 울리는 소리의 다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고 인공적인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를 닮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바람처럼, 안개처럼 떠도는 그 소리는 분명히 있으면서도 막상 잡히지는 않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하방리와 상방리에서 사라진 단양의 도시구조를 찾는 일도 그 비슷했다. 나는 어둠 속에 속살을 감춘 두악산 줄기를 따라 밭길을 옮기며 원래 단양을 하방리에 있던 군청 터를 중심으로 윗녘을 상방리, 아랫녘을 하방리, 단양천 건너를 중방리로 한 이곳 지형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방리 일부만 남겨 둔 채 폐허로 변해버린 이곳 지형은 몸으로 읽어 가면 갈수록 그 무상함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지난번 산길을 조사하면서 확인했고 오늘도 이곳 지형을 답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곳 지형은 자연스럽게 지형과 지세를 따라 자리한 집터와 텁발 그리고 길이 어우러진 고을의 모습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헤아려 나든고 정리한 주거지와 택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옛 도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자의 경우 일제강점기까지 전해오던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 그 속에 뇌개 이황이 이곳에 머물었던 시절의 단양읍치 모습이 간직된 본워적인 도시패턴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것은 근대화된 단양읍, 인공적인 기술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 단성면이었다. 삼지어 농재를 중심으로 새로 쌓은 제방을 향한 네 가닥 길만 보아도 이와 유사한 변화의 흔적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가운데 5번 국도와 연결된 향교 앞길과 농재에서 단성중학교 앞을 지나 신우화교를 건너 중방리로 가는 36번 국도는 근자에 새로 만든 길이였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중심부에 자리한 두 가닥 길 중 남쪽 길이 문제였다. 이 길은 원래 실개천이었다. 성재산과 두악산 자락이 만나는 경계선, 작은 계곡에 단양천으로 흘러내린 샘물이 만들어낸 실개천이었다. 두악산의 거센 흐름도 이 작은 실개천을 너머설수 없었음인지 급하게 땅축선 탓에 이 개천을 경계로 상방리 땅은 자연스럽게 턱이 지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현데 누군가 이 개천을 콘크리트로 복개하여 길을 내었던 것이다. 편리성을 고려한 개천 복개로 멋진 풀목으로 변해버린 실개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범속한 토목기술이 이들을 급속히 제거해 내고 있었다. 이곳의 자연과 역사경관을 외면한 채 획일화된 것

대로 공공을 앞세워 이렇듯 단양이란 도시의 장소성을 잠식해간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충주댐이 담수를 앞두고 돈들미에서 성재산 당시 입구까지 줄을 긋듯 둑을 쌓아 하방리 거의 대부분을 썩둑 잘라낸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지형을 수차례 직접 확인하고 겪고 나서야 나는 단성면은 두 가지 도시 패턴이 혼재되어 있었던 곳, 두 가지 문화적 층위가 서로 겹쳐 있는 곳, 바로 단양이란 도시공간은 장소성과 무장소성이 겹쳐있는 치열한 곳이라는 내 나름의 결론에 더 이상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림 3) 복개된 실개천

담장으로 가득한 골목길 안은 의외로 침침했다. 이따금씩 흐릿한 형광등빛이 제각기 시선을 달리하여 열린 대문과 담장 너머로 훌러나왔으나 골목길의 어둠을 사르기에 너무 미안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방불 마지 끄자 침침함은 한층 더 해갔다. 그럴수록 동네는 더욱 고요해져 갔다. 그러나 이런 한겨울밤의 적막함을 갈기갈기 쪻고 나간 것은 두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골목에 접어들면서 불빛마저 밀어내며 음산하고 괴기스러운 소리들을 뿌려대면서 달읍박질하고 있었다. 땅을 훑고 달려온 그 소리에는 흉수에 쓸려가는 아이울음소리, 사람들이 이 살려달라고 야우성치는 비명소리, 짐승의 신음소리, 사라진 고향을 향한 호느낌, 운동장에서 올려오는 아이들의 함성…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한 이백 여보 내려왔을까. 골목 안 위편 언덕에 서있는 삼백년 남짓해 보이는 고목나무에도 문득 이런 냉기가 서려 있는 듯 했고 골목 안 전등불빛이 사그라지는 만큼 추위는 기세를 올렸다.

추위에 민감한 것은 온도계의 수온주만이 아니었다. 약간만 추워도 사르르 찬바람이 바짓가랑이를 파고들어 허벅지를 감돌았고 더 심해지면 등줄기를 타고 올라 시리다 못해 아려오는 통증으로 온몸을 죄어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을 한껏 들이켜 한곳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또 그럴 때마다 사르리져 가던 몸의 열기가 다시 살아 오르는 듯 훈기가 돌기 시작했다. 열기가 일어남은 동시에 통증도 사라짐을 의미했다. 그래, 열기가 일어 내 몸 속에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듯 그렇게, 그렇게 끝없이 일어서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 아닌가, 긴 호흡만 있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은 끝 없이 타오를 것이다. 그 생명의 불씨는, 설사 일시적인 악조건이 닥친다 해도, 내 몸 속에서 그 열기를 지켜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사유적도 설사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이 작은 공간마저도 황폐되어지고 일그러진 채 거친 인공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품고 있는 삶의 불씨임은 분명했다. 그리하여 땔감과 산소만 공급되면 언제 어느 때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처럼 삶의 혼적과 유적은 실증이라는 논리가 공급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잊어버린 과거를, 사라진 시간과 공간과 장소



그림 4) 1987년 수원시 단성면 1/5000



그림 5) 단성면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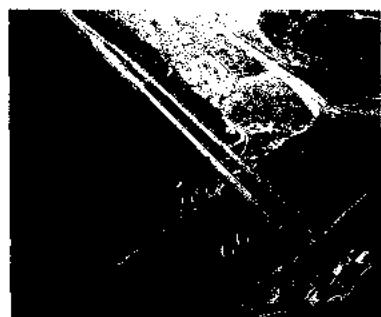
의 의미를 복원해내는 불씨로 이글거리며 타오르지 않던가. 그러나 불씨는 땔감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줌의 재로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 시키는 수동적인 죽매에 불과했다. 하지만 삶을 담는 공간의 역사는 좀 달랐다. 그것은 생명처럼 능동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 항상 자신의 행위로 주변 모든 것을 새로움의 연속으로 만들어 왔듯이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흐르는 물처럼 끊임이 훌러가며 스스로 오늘의 밑그림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 하나 하나마다에 숨어있는 불길 같은 생명의 열정과 그 속에 깃들여 있는 물길 같은 시간의 법칙을 읽어 낼 때마다 역사는 물 한 방울이 끝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를 마침내 시간의 바다에 당도케 해왔고 또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하지 않았던가. 그 바다에서 꿈을 낸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에게 의미로 가득한 세계를, 장(場)을 안겨 주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이제 역사는 더 이상 박물관의 박제된 전시물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로써 존재케 하는 생명의 불꽃으로 자신의 실체를 공간 속에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1985년 충주댐 담수로 단성면으로 변한 옛 단양은 담사 초장부터 도시의 연결고리인 도로의 혼적마저 모두 끊어지고 지워져 자취가 묘연하기만 했다. 눈앞에 옛 도시 단양의 혼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의를 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는 공허함뿐이었다. 불과 삼십년 전만해도 사람들은 이곳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장소의 변화

가 주는 시간과 공간의 단절이었다. 원인은 물론 공공의 이름으로 단양이란 도시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 사람들이 모두 신 단양과 외지로 이주하고 원래 이름마저도 단성면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결과 남겨진 것이라곤 고작 하방리와 상방리 주거지 일부,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곳이 전부였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994년 지도와 1987년 지도, 모두 홍수 때 자료를 수집 편집한 두 장의 지도가 당시 홍수위를 통해 지형의 수평 변이 점을 학인 시켜 주는 바람에 그나마 변화의 폭을 가늠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1994년의 홍수 수위는 대략 130m정도였으므로 가장 낮은 지역이 128m인 단양이란 도시는 하방리가 물에 잠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7년의 것은 대략 140m정도였으므로 충주댐 상시만수위인 141m안 점을 감안해본다면 옛 단양이란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린 물이 새로 쌓은 제방 턱을 넘어 흘러들어가 그나마 표고높이 140m 이상 산록에 남아 있던 상방리 일부 주거지마저 위협할 수준이었다.

충주댐을 조성한 토목기술로 이곳에 있었던 단양이란 도시는 수몰되어 사라지고 없다. 그 도시의 사라짐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일궈낸 터에 대한 친밀함과 배려와 관심을 한순간에 뿌리 채 뽑아냄을 의미했다. 가장의 선(善)에 불과한 공공의 선은 이렇게 소중함을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는 민초들의 삶의 기초를 허물고 있었다. 사라진 장소들은 단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추억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머지않아 박제된 기록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거대한 공공의 선으로 등장한 공룡 같은 충주댐 담수로 제일 먼저 찾아온 불리적인 변화는 조상대대로 이용했던 단양의 물길이었고 눈에 보이는 제일 큰 변화는 수변 접근성이었다. 단양천, 이것과 깊은 관계를 냈음을 산길, 만약 그것들의 연관성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이런 도시 중심부에 수변 교통로를 지난 단양 읍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터에 뿌리를 내라고 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정한 삶의 터를 만들어온 모습은, 아니 그에 관한 약간의 힌트만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없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장소와 인연을 맺고 싶은 것이 사람의 뿌리 깊은 욕구가 아닌가. 하다못해 이를 없는 품도 심지어 잡초까지도 모두 자신의 터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마당에 그마저도 없는 것은 정작 사람이었다. 이런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기술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획일화 된 공간과 장소에 내 스스로를 주조(土潮)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도전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외적인 것을 항상 일상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하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현실은 예속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언제가 나의 삶을 담아줄 최소한의 공간과 장소마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우선 내일 아침부터 당장 내가 찾아나서야 할 곳은 사라진 산과 물의 도시 단양의 수몰 현장이었고 그곳을 답사하며 그것의 옛 모습을 재구성해 내고 그 행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밤하늘의 별밭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했다. 교교한 달빛이 새로 만든 우화교 건너 상방리 돈돌미 계곡 새밭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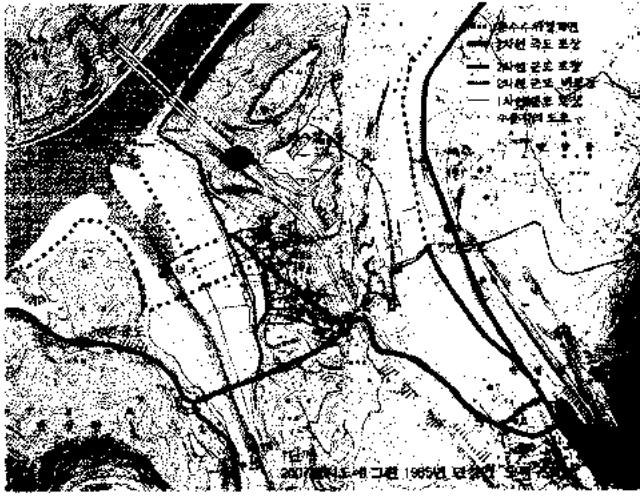
길은 산길에서 시작하여 도로로 매듭을 지었다. 산길이 모든 길의 뿌리였기 때문이다.



(그림 6) 갈수자, 단성읍

잠에서 깨어보니 신 새벽이었다. 토마루로 난 장지문이 희미하게 밝아 와서 문을 열어보니 앞마당에 겹겹이 숙무(宿霧)가 그득했다. 밤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방에 군불을 지펴준 안주인에게 고맙다는 아침인사라도 할까 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마음을 고쳐먹고 숙소를 나와 서랫바람 속으로 길을 나서고 말았다. 차를 숙소에 버려두고 잔길음으로 놋재를 너머 우화교를 건너 우측 길로 방향을 틀자 아직도 이른 아침이었다. 보통이 밤자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중방리 들녘으로 내려섰다. 낮게 깔린 아침햇살에 반사된 거무칙칙한 뱀밥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뱀밥은 마치 누가 초콜릿 크림을 발라가며 판판하게 두드려 덧대어 손질이라도 한 듯 이곳 지세를 자연 경사 그대로 두텁게 드려냈다. 간혹 일직선으로 뻗어간 도로의 흔적은 서로 아귀를 맞춰가며 뱀발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고 질편하게 펼쳐진 뱀발 사이로 뚫린 길에 실한 느낌 하나 없는 건물 기초와 바닥, 계단의 콘크리트 잔재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다. 마른 갈대줄기와 잡목으로 가득한 뱀밥 여기저기에 땅껍질이 얹어 부풀어 오르며 들뜬 얼음장들이 창백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냉기 가득한 하방리 뱀밥에 눈을 닦고 있던 나는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망연히 떠올랐다. 단양이란 도시는 강 하구에 자리한 까닭에 도시를 구성하는 통로, 도로는 산길과 물길이 한데 어우러지며 발달해온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단양이란 도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이유는 물론 인위적인 것들이 가변성이 큰 것임에 반하여 자연적인 것은 영속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속에 자연적으로 동화된 퇴계 이황의 자취가 많이 녹아 있음지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그 흔적을 찾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혹시 단양천을 조사하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항공사진을 본다면…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닐까. 아니 단순히 그 가능성만 확인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방리만 뒤져보더라도 이 추축을 뒷반침해줄 만한 균거는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가정과 시도는 나름대로 충분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우선 산길의 흐름을 조사해보면 상방리는 중방리와 하방리보다 가장 험하고 깊은 두약산 남쪽 자락을 의지하고 마을이 펼쳐진 까닭에 구 단양에서 마을의 시점이 세일 높은 해발 132.2m 능선 위에 자리했다. 여기서 산자락을 따라 서향으로 늘어 올라선 이 마을은 그나마 좁은 평지나 경사가 덜 급한 비탈만 있어도 사람들은 밭을 일구었고 밭과 밭 사이 두렁을 내었으므로 길은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졌다. 산길이 마을길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가장 뚜렷이 남아 있는 상방리, 밭두렁 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약산 정상으로



(그림 7) 가 옛 단양읍 도로 흐적 찾기

꼬리를 감춘 산길은 산경사가 가파르면 완만한 호흡을 찾아 산자락을 돌아 고갯마루를 찾아갔다. 단양읍을 질러온 5번국도가 놋재를 채 벌어나기도 전에 단성파출소 앞에 서면 산으로 오르는 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가택인 단성중학교 그리고 돈돌미에서 두악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아무튼 세 가닥 산길은 조금이라도 경사가 완만해지면 지름길을 찾아 곧바로 산세를 거슬러 질러 오르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산세가 급해지면 완만한 곳을 찾아 길을 돌아가는 산길의 월리는 한결같았다. 이렇게 산길과 마을이 이어지는 밭두령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면 두악산 중턱이 가지를 활짝 벌린 소나무 숲 사이로 이리저리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두둥실 떠 올랐다가 가라앉곤 했다. 그런 탓인지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찾은 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휘머리를 지난 사나위 가락을 타는 것 같았다. 호흡은 길 따라 거칠게 휘몰아쳤고 완만해지면 심장이 터질 듯 몰아지던 호흡도 잊어들었으므로 사람들은 산길을 걸으면서 산의 호흡에 자신을 맞춘다고 했다. 평소 무심코 들었던 그 소리가, 오늘 따라 택리지에도 없는 이 말이 제법 그럴싸하게 느껴졌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 일차선 도로인 이 길을 따라 단양군청 자리(현재 파크호텔)를 뒤로하고 배불데기를 지나 이십 여분 차도를 따라 걸어 오르면 단봉암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 그곳에서 왼편으로 가파른 산길을 잡아 오르면 두악산 정상을 향한 산 오름이고 오른편 평지 길을 택하면 단봉암길이다. 단봉암에서 삼십여 분 좁은 산길을 걷다가 살구나무 맥이에서 왼편산자락 길을 치고 오르면 두악산 정상으로 가게 된다. 놋재에서 단봉암 삼거리까지 원래 밭두령 길이었던 이 길은 1980년 활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산길의 월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길이다.

이제 산길은 전국토의 8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모든 길의 월형이자 뿌리였다. 그래서 산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월형을 저장하고 있는 문화 은행이었고 산길은 태곳적 단양이란 도시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의 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한데 이 길이 산방리 마을 가까이 내려오면서 놋재 근처 해발 185미터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밭두령을 따라 요리저리 꼬불거리던 길에 사람들의 발 때가 묻게 되자 넓어지고 다듬어졌다. 그것 이해발 160미터 정도로 내려오면 골목길로 변했고 비탈에 선 경작

지는 텃밭으로 공터로 변해 갔다. 이제 길은 더 이상 논두렁 밭두령 길이 아니라 대문과 대문을 잇는, 집과 집을 잇는 골목길로 변하면서 거의 등고선을 따라 이어졌고 등고선과 등고선을 잇는 경사진 곳에 계단과 램프로 연결된 골목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산자락이 해발 150미터에 이르면서부터 경사가 더 완만해지게 되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산자락 경사를 가로 지르는 또 다른 길이 엇대어져 격자를 이루면서 여태껏 보이왔던 외줄기 산길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와 매무새로 길과 길의 관계를 드러냈다. 놋재에서 하방리로 이어진 세 가닥 길은 모두 한결 같이 우화교 방향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길들은 과거 언젠가 모두 우화교와 연결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성재산 당시 길과 하진리 물길이, 놋재길과 중방리를 연결하는 우화교 길이, 상방리에서 돈돌미를 지나 삼선암으로 가는 길이, 이들은 모두 각각의 절점을 짹을 지어 이으면 최단거리였다는 점이다. 걸음으로 이루어진 감각과 경험의 측량의 범위를 넘어선 깨닭이다.

산길의 변화, 그 속에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배어 있었다. 그들이 공들이고 일궈온 산비탈의 밭, 그 밭을 경계 짓는 밭두령 길 그 위에 수없이 얹룩진 농민의 밭결음과 땀, 이들이 그들만의 삶을 구별 지어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삶을 의미 있는 터로 조성하고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람들이 상방리 사람들이었다. 상방리는 이러한 흔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퇴계 이황은 우화교를 건너지 않았다. 그가 말을 타고 건넌 곳은 나들목이었고 우화교의 뿌리이자 단양사람들 삶의 중심이었다



(그림 8) 중방리에서 본 우화교 유적

나는 지금 이렇게 자연의 일부로 되어버린 패턴을 지난 산길과 물길 그리고 개울 나들목의 이음새를, 양력과 음력의 차이와 함께 우화교 교각 잔해 위에서서 제일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가 산업화 대중화 될수록 양력을 사용해야 하는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력으로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루 일의 정리에 대한 기능적인 효율성에 대한 근시안적인 집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창자가 비비꼬이는 것을 느끼게 했으나 추세가 추세인 만큼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 개인뿐 만아니라 정부 역시 해마다 벌린 저울질이었고 계산이었다. 어느 것이 더 근수가 나갈 것이며 어느 쪽을 써야 잇속이 있을 것인지를 따져야 할 정부로서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이 작은 문제를 결론지어야 할 그야말로 중대한 시점에 처해진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저울 눈금이 아무리 저울질 해보았자 물건을 달 때처럼 속 시원하게 딱 정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양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듯하여 그쪽으로 쓸리면 다음 순간 음력 구정이 민속명절이라 더 정취가 있는 듯했고, 해마다 저울눈금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당장 세상판세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양력이 근수가 더 나가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읍력은 당장은 식은 보리밥 신세에 불과한 듯 했지만 역사라는 바닥에 오래 남아있기로 치자면 양력보다 근수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나가는 것은 분명했다. 또 운력을 사용한 시대의 이야기를 양력으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아제 달포만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남한강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얼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꽁꽁 얼기 시작했고 단양천도 덩달아 풍풍 얹어 올랐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물소리는 죽어갔다. 이처럼 천지간에 물소리가 끊기는 것은 여름 가뭄하고 일 년 한 해 동안 딱 두 번 있는 셈이다. 마을 아이들은 중방다리라고 불렸던 이 다리 아래에서 얼음 배를 만들어 뱃놀이를 했고 대보름이 되면 망우리 둘리기(쥐불놀이)를 했다. 아무리 겨울 추위가 매섭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방구들을 차고 있지만 않았다. 강바람을 헤치며 한사코 얼어붙은 강가로 나왔다. 하루 원 종일 강가에 붙어살았던 아이들에게 강 얼음이 한창인 남한강과 단양천변은 그나마 한 겨울의 지루함을 달랠줄 그들만의 스릴과 놀이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투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가로 세로 대충 3~4미터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마지막 노라도 짓듯 작대기를 노 섞어 저으면서 그 차갑고 깊은 단양천변을 나름대로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 하며 평화 위험스런 뱃사공 놀이를 하곤 했다. 그러나 뱃사공의 위험을 뿐내기엔 강바람이 워낙, 추웠으므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얼음배위에 잔술가지를 차뜩 쌓아 놓고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속에 하나같이 몰래 집에서 가져온 감자며 고구마를 가끔은 잡아온 개구리를 구워 먹으며 삼삼오오 둘러앉아 블레 숨겨온 술찌끼미며 소주를 마시곤 했다. 얼음위에 지펴놓은 장작불, 입안에서 술술 녹아들어가다 삼키면 삼킬수록 뜨거운 맛을 더해가는 노릿노릿 구워진 고구마와 감자, 남몰래 마시는 소주 맛, 이 모든 것이 대조적인 것들이 어우러진 얼음배 놀이는 소년들에게는 환상적이리 만큼 스릴 넘치고 순수한 시골 서정이 깃들여진 겨울놀이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입 언저리에 숯가루를 바른 듯 타다만 고구마와 감자껍질에서 묻은 까만 가루가 얼굴전체로 얼룩지며 퍼져 갔다. 아이들은 숨 막히도록 불어오는 그 어지러운 겨울 강바람을 얼어붙은 물을 구부린 채 초점 잡하지 않는 눈으로 별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웃곤 했다. 어지러운 강바람 속에서 흔들거리는 얼음 배를 아이들이 강가로 옮겨 놓을 생각이 들 즈음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배는 녹아내려 아무리 힘껏, 필사적으로 배를 강가로 몰아가려해도 결국 깨지고 말아 대부분 아이들은 그 차가운 강물 속에 빠지지가 일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까지 물에 빠지면서도 서로, 쳐다보며 박장대소를 하며 강가로 나오는 것이 이곳 아이들이었다. 풍풍 얹어 젖은 옷을 말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는 십중팔구 화가 난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로 엄마는 다듬이 방망이질을 아이들에게 해대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두들겨 맞을지도 모를 두려움에 햇살 누터운 우화교 주변에 쭈그리고 앉아 다시 화톳불을 지피고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훌쩍 벗고 아이들은 옷을 말리는 데 반해 이곳 고마들의 얼음배 놀이는 좀 달랐다. 넷가에서 겨우 내내 얼음 타기 놀이를 하던 고맹 이들도 서서히 녹을 즈음 두꺼운 얼음 가운데에 구멍을 낸 후 길고

봉통한 막대로 노를 만든 다음 얼음 배를 만들어 타고 편을 갈라 상대편의 배를 부수는 치열한 해상 전을 치르는 놀이를 했다. 이 전쟁의 종말은 상대방의 배가 부서져야 끝이 났으므로 물에 빠진 패잔 병은 비참하게 옷이 모두 젖어 추위에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리 추위도 단양천 우화교 근처에 모인 아이들의 얼음 배 놀이는 한겨울이 다가도록 지칠 줄 몰랐다. 얼어붙은 강대로 빙판이 되었고 가을걷이가 끝낸 넓은 중방리 눈은 눈대로 상방리 밭은 밟대로 누구네 논밭 구별 없이 온통 바어 있었으니 이곳 아이들에게 그만한 겨울 놀이터가 따로 없었다.

그러다가 읍력 정월에 가까워지면 어느덧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는 입춘을 맞이하면서 남한강 얼음이 끊리기 시작하면 단양천은 소리 내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겨울 잠자던 벌레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즈음 사람들은 해마다 대문 기능이나 대들보 혹은 천장에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이라고 써 붙였다. 상방리 농가에서는 보리뿌리를 뽑아보고 그해 농사가 잘 될지 어떨지를 점쳐기도 했다.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이 보름을 지나게 되면 읍력 정월 대보름이다. 달마다 보름의 있으나 그날만은 이곳 사람들은 우화교 위에 보름단이 두둥실 떠오르면 쥐불놀이와 달집을 태워가며 달맞이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달빛에 따라 일년 농사를 미리 점치는 일들이 총각들의 둘싸움과 처녀들의 자신밟기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인지 쥐를 쫓는다고 논둑이나 밭둑에 놓는 불을 놓아 먼저 끈 동네의 쥐가 진 동네로 몰려간다는 쥐불놀이가 깡통 둘리기로 바뀐 것이다. 성급한 아이들은 보름을 이삼일 앞두고 대낮부터 불붙은 깡통을 빙글빙글 돌려대기 시작했다. 그 깡통은 분유통 정도면 적당한 크기였는데 철 깡통에다가 망치하나로 수많은 못 구멍을 깡통 밑면과 옆면 아랫부분에 여러 개 뚫고 옆면 윗부분에도 몇 개 뚫은 간단한 구조였다. 허데 깡통에 구멍을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돌릴 때 사람이 많이 들어와 쥐불통에 솟아 불이 잘 붙었다. 깡통과 연결된 철사 줄은 깡통에 손을 내렸을 때 깡통이 바닥에 약간 끌림 정도가 좋았다. 그리고 깡통 안에 들어가는 솟은 불쓰시개를 밑에 깔고 나무를 적당한 크기 잘라 불을 붙인 다음 자연스럽게 깡통에 들어갈 정도로 부지깽이로 깨어 넣어 약간의 불기 있는 솟을 넣고 돌리면 불은 불어 올랐고 세게 돌리면 불릴수록 획획 소리를 내며 빨간 동그라미가 밤하늘을 선명하게 수놓았다. 달을 향해 환을 지어 일어서는 수많은 불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 가지 모두 참여하는 달의 잔치이자 불의 축제였다. 그래서 우화교의 정월 대보름 불놀이는 자신을 밟은 처녀들이 땅의 음기와 달맞이로 달의 음기를 흡족 받아 워신을 했다면 모두 모두 힘을 쓰는 아들 넣기 바라는 염원으로 이어졌고 한해의 농사가 풍년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림 9) 1985년 단양을 찾기와 우화교

이렇게 기울어져간 겨울은 절기의 신비로운 번갈이로 한꺼번에 엎어져갈 것이다. 이런 절기의 변화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숨결의 변화를 맨 먼저 깨닫

는 것은 땅이었고 살아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지기(地氣)에 목숨 줄을 대고 있는 나무였다. 옛날부터 “우수 경침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처럼 우수(雨水)를 지나면서 눈은 비가 되어 내렸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개울 물소리와 함께 땅에 봄기운이 솟아올랐다. 음력설을 고비로 이렇게 절기가 달라졌음을 제일 먼저 간파 한 것은 우화교 다리 유편 개울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드리 고목이었다. 그 나무는 자연의 변화를 신기할 정도로 잘 드러냈다. 비록 속이 모두 불에 타 텅텅 비어 말라 죽어 있어도 이듬해 입춘이 지나면 어김없이 잔가지에 음이 트기 시작했다. 경침이 지나면서 해묵은 가지가 사이사이로 피어오르는 예외 없는 새잎의 푸르름은 정말 경이로웠다. 처연한 생명의 아름다움에 놀란 것은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벗 삼아 살아가는 무속인들 까지 찾아와 제를 지낼 정도였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에게 고목 등걸이은 전쟁놀이의 진지로 더욱 인기가 있었다.

보름이 지나면서 완연해진 봄기운과 함께 새해의 발돋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얼었던 강물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우화교 근처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고 마을사람들 가운데 견지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주로 다리 위쪽과 한참 아래 넓은 남한강 합수머리에 바늘을 흘렸는데 주로 다리 위쪽에선 아이들이 물속 돌 밑에 있는 꼬내와 흔하디흔한 파리를 미끼로 쇠리와 파라미를, 남한강에선 어른들이 잠자리와 메뚜기를 미끼로 강피리와 마자를 낚았다. 읍내 장날이면 마을 어른들은 팔 길이만한 물고기를 새끼줄에 주렁주렁 주둥이를 꿰어 어깨에 들려메고 시장에 내다팔곤 했다. 아이들이 잉어인 줄로만 알았던 그 고기는 누치였다. 그 당시엔 누치란 어종을 아이들이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코 훌리기들에겐 그저 커다란 물고기는 모두 다 양 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양천과 우화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양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광범위한 사



〈그림 10〉 옛 우화교 신사비 1754년 제작

적(私的)인 시간의 구조가 깃든 장소였다. 그들은 아직도 우화교가 있는 단양천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동안 얹눌려왔던 기억들이 세찬 바람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쇠복소리 같은 산울림처럼 북바쳐 올라 가슴을 울려 가슴을 치는 애달픔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이기도 했다. 단양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이맘때만 들리는 산울림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단양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부터 오랫동안 자리해온 곳이기도 했다.

찌릉 또 산이 울었다.

하지만 아무리 소백산줄기에 뿌리를 둔 두악산 줄기가 길고 골이 깊다 하더라도 그 계곡을 타고 들려오는 그 둔중하고 긴 파장의 산울림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마지막 봄기운이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 들불이 될 것이다. 절기의 변화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름처럼 피어오른 실날같은 궁금증은 대체 교각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우화교 이 다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놓여진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퇴계 이황선생이 이곳 현감으로 부임한 1548년 정월, 그는 과연 이 다리를 건넜을까. 신작로 까지 넘쳐오른 햇살을 밟으면서 이 생각에 몰두한 나는 뭔가 확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쫓겨 걷기에만 열중했다. 신작로에 박힌 돌이나 길가의 마른 풀에는 서릿발이 하얗게 돋아 있었다. 겨울이 밀려가고 있었으나 안개는 신작로와 단양천을 따라 허물어 내린 방죽에 갇힌 듯 강바닥에서 올라와 중도리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멀리 아슴하게 넓은 안개 밭 속에서 금을 그어놓은 듯 새로 놓은 우화교가 드러나 보인다. 들판에 끼인 안개는 겹겹이 쌓아면서 다리교각을 향해 묵직하게 파어올랐다. 비감함으로 가득한 이곳에 왜 수물기념관을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림 11〉 폐허가 된 중방리

8각 모임지붕의 콘크리트 한옥 이층 건물인 단양군 수몰이주기념관 앞마당에는 4개의 유물이 옮겨져 있었다. 대부분 암각자가 새겨진 돌덩이였는데 그중 하나가 충

청북도 유형문화재 80호인 우화교 신사비(羽化橋 新事碑)였다. 높이 114.5cm 폭 58cm 두께 16cm인 이 비가 바로 조선 영조 29년(1753) 단양 군수 이기종이 단양천에 우화교라는 돌다리를 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리 옆에 세운 신사비였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자그마한 비석 후면은 상당부분 마모되어 육안으로 판독 불가능한 글자도 여럿 있으나 다리를 설치했던 건립년도는 1753년이었고 당시 참여한 사람과 목수 토수 석수의 이름까지 암각되어 있다. 경상도에서 죽령을 넘어 서울로 통하던 중요한 교량이었던 이 다리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울창한 숲이 우거진 두악산과 금수산 줄기를 받은 말목산이 바라보이고 깊고 맑은 단양천 위에

비친 다리를 건너는 것이 마치 신선이 하늘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자신이 신선인 듯 착각한다고 해서 우화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리는 퇴계 이황이 이곳 현감으로 부임한 지 약 이백 여년이 지난 뒤에 지어진 교량이었다. 퇴계 이황이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이곳 우화교 터는 나들목에 불과했다. 그는 말을 타고 우화교가 있던 자리의 단양천을 건넜음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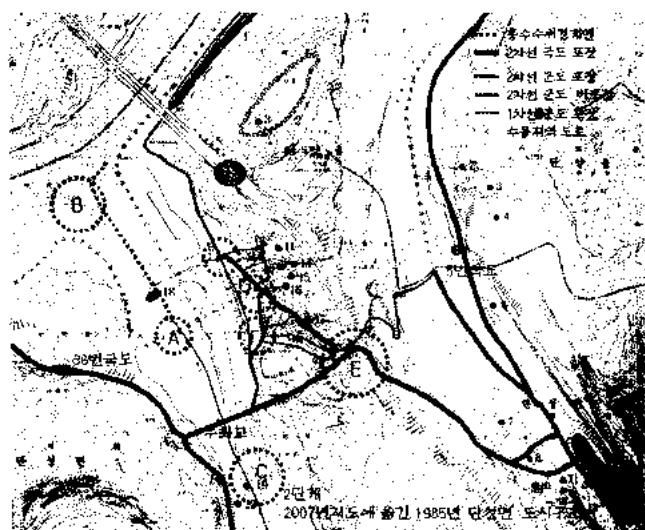
상방리 나들목 담사

그동안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싸였던 우화교에 대한 궁금함이 벗겨졌으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좀 더 선명해졌다. 당장 손댈 일은 폐허가 된 단성면내에서 산길과 연계된 단양을 내부 도로 모습을 밝혀줄 불씨를 찾아내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퇴계 이황이 현감으로 있었던 옛 단양이란 도시의 분포를 밝혀낼 표준자료를 확보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우선 남한강 물길과 관계 깊은 곳이라면…나루와 포구를 말했다. 또 산길과 상방리와 하방리 그리고 중방리를, 중방리와 상방리를 서로 연결했던 통로였다면 단양천에 있었던 개울 나들목을 말했다. 과연 물류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단양읍의 포구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또 조선 후기 이후로 중방리와 상하방리에서 왕래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우화교 하나만으로 충분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 퇴계 이황의 시대 이곳 사람들은 하나의 나들목으로 족했던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단양군 수물이주기념관 앞마당에 있는 4개의 유물 가운데 3개의 암각자가 새겨진 돌덩이만 보아도 그랬다. 또 하방리와 상방리 단양천에 쌓은 이천 여보에 가까운 제방 흔적만 보더라도 분명 여러 곳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개울 나들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향한 수많은 궁금증이 솔밭처럼 일어섰다. 그러나 아무튼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은 읍내부 도로 네트워크를 찾는 일은 포구와 개울 나들목을 찾아내는 일에서 비롯될 거라는 점이었다. 나들목은 걷는 시대 Walking Distance가 중요했던 시절, 지천이 발달했던 우리나라 마을과 도시구조를 밝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성과를 이루어 짐작컨대 단양천의 여러 나들목 가운데 유일하게 다리가 놓여진 우화교는 수레와 우마차를 이용한 물류이동로였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실로 이루어 본다면 나룻터와 포구 그리고 개울 나들목을 찾아내어 산길과 연계성을 밝히는 일은 우리선조들이 강을 따라 이동하고 내를 건너 산길로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온 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더구나 읍내부 도로의 원초적인 형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이제 단양이란 수물도시는 폐허에 불과했으나 기억속의 그곳은 이런 것들이 숨쉬고 있는 엄연한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도시임이 확실했다. 그 실마리를 찾아내려면 먼저 단양천과 개울 나들목을 함께 조사하여 도시의 맥을 잡은 다음 남한강 수로와 포구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변화의 중심지인 상방리와 하방리를 답사하는 것 보다 갈수록 단양천을 직접 걷으면서 중방리에서 상방리

를 바라보며 두 곳을 잇는 개울 나들목을 조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쉽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발걸음을 되돌려 옛 우화교 터로 다시 돌아온 나는 단양천 개울 가를 따라 중방리 일명사 절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퇴계 이황선생이 농사를 위해 만들었던 보(洑) 복도소(復道沼)를 원편으로 바라보며 길을 잡았다. 김광대(吉光臺) 암각자가 있었던 그곳을 빠져나가자 바로 갈대가 아직도 찬 서리에 들풍등성 젖어 있는 돈풀미 개울가에 들어섰다. 이곳은 발세 익은 길이었으나 발걸음이 새로 지은 우화교 교각을 지나면서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엊저녁에 불다님은 찬바람이 아직도 기운이 남았는지 해가 이미 동편 슬금산 능선을 냈거나 남쪽 소백산 줄기 연화봉을 향해가고 있었으나 단양천가에 불고 있는 그 바람은 여전히 차고 냉기마저 돌아 있었다. 그러나 더 차갑고 매서운 것은 차라리 계절 따라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을 상대로 일으키는 땅 바람이었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듯이 충주댐이 완성되어가자 제일 먼저 불어 낙진 바람은 땅 바람이었다. 수불지역 보상과 이주 바람. 그 바람이 차례로 단양 수불예정지역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바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거둬 줄만한 것들이 없었다.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에 인구가 꾸준히 줄어오던 것과 똑같은 형국이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람은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세로운 곳, 신단양으로 관광바람을 앞세워 몰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바로 수불지역의 총 호구 수 5,294호



(그림 12) 단양의 도사 결점



(그림 13) 노래난 제방 흔적

26,960명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2,565호 12,748명, 이주 대상 호구이자 인구였다. 충주댐 담수와 이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턱없이 줄어들기 시작한 단양 인구는 조사결과 1978년 충주댐공사 계획이 확정된 다음부터 1986년 이주가 완료된 사이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만 해도 일만 사천여명이나 되었고 수몰된 경작지는 전 경작면적의 10%나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 당국은 쓴 입맛을 다셨을 것이다. 그건 군 재정수입의 진짜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버렸다는 뜻인 동시에 댐과 관련된 일로 군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빼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뒤늦게 놀란 일은 어떤 곳은 도시와 마을 전체가 수몰된 곳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청풍과 단양 읍내이었다. 청풍이란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충주댐과 근접해 있었던 탓 이었으므로 어떤 면으로는 당연했다. 그러나 단양읍은 달랐다. 상 시민수위가 141m로 설정된 까닭에 최저 표고높이 128.7m인 하방리와 최고 134.2m인 상방리가 모두 수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과 단양읍내 11개리 상주인구 14,141명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9,206명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 호수로 말하면 총 호수 2,835호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861호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다. 그들 가운데 농업관련 호수 248호를 제외한 1,613호, 87%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업 공무원 회사원 기타 직업을 가진 2차 3차 산업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살았던 단양읍은 인구 구성 비만 보더라도 이 무렵 이미 도시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인 셈이다. 이들은 모두 한강하구의 수해를 막기 위하여 댐을 건설해야 했던 정부 당국이 그 당시 내 걸었던 솔로건, 전력난 해소와 관광 명소 건설이라는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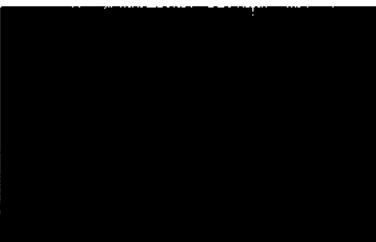
그런데 이곳 군 당국을 뒤늦게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충주호 주변 기상 이변으로 수해발생빈도가 증가했고 남한강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해 진 일이었다. 갈수기(渴水期) 호수길이 32km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25km가 건천화(乾川化)되자 뱀으로 변해버린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남한강은 백사장의 아름다움을 자랑 하던 그런 모습의 옛날 강이 아니었다. 또 저수지와 수로로 변한 남한강은 철마다 수위조절로 단양수석이 유명했던 이곳 석벽마저 삭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이곳을 관광명소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관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동산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했으나 빠듯한 이주 보상비만으로는 그 바람을 불러 일으켜 개발 이익을 쟁기기는커녕 새로 이주할 곳에 집을 짓고 생업을 마련할 터전조차 마련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단양이 수몰되기 이전에 단양군청과 단성중학교를 이주할 때와 같이 쌍값에 논밭을 형질 변경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이점을 간파한 정부는 그 바람을 이용하여 이 지역을 새로운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람들을 신 단양이란 도시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양사람들이 정작 잃어버린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였고 결에 살던 고향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지녔던 인간적인 삶은 기념비적인 관광 사업에 가려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났고 그나마 남아 있던 진정성과 장소성마저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당국은 자신의 혼이 깃든 삶의 터를 팔면 관광이란 황금을 갖는다고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며 목청을 둑아 떠들어댔으나 폭풍처럼 물려와야 할 관광바람은 끝내 불지 않았다.



(그림 14) 단양천 하구 합수머리

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우화교 교각 터에서 돈돌 미에 이르는 불과 1,300여 보에 불과한 짧은 구간에 무려 다섯 군데나 되는 나들목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 단양천의 공간적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선 강이라고 하기엔 폭이 작은 이 물줄기는 개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하지만 이곳으로 황정산, 도락산, 용두산, 사봉, 덕질산, 두악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두 모여 들어 사시사철 남한강으로 흘러내렸다. 그물이 남한강과 만날 즈음이면 힘이 부친 나머지 단양천은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과 모래를 풀어놓은 까닭에 여울진 합수머리엔 늘 물 흐르는 소리가 있었다. 소리 없이 흐른 것이 강이라면 변화무쌍한 소리를 내며 노래하듯 흐른 물이 개울이었고 낮은 소리로 규칙적인 템포와 박자를 잡는 것이 바다였다. 흐르는 물 가운데 유독 소리를 낼 줄 모른 것이 강이었다. 강은 소리 없는 물줄기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합수머리에 여울진 소리가 있는 단양천은 강이 아닌 게 확실했다. 오히려 큰 개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큰 개울도 갈수기가 되면 바다이 하얗게 속살을 드러냈고 줄어든 개울물이 그 사이를 비집고 흘러 내렸다. 큰 개울이 실개천으로 변한 탓에 나는 물길을 걸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5) 단양천 합수머리



(그림 16) 복도소와 마당비워 부근

사실 개울의 매력은 가면 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너른 소(沼)가 있어 고인물이 흘러내렸고 주변에 바위가 많아 아름다웠다. 그물이 여울지며 흘러내리면 물 흐르는 소리는 소의 깊이만큼이나 깊어졌고 얕으면 얕은 만큼 물리 바위에 부딪치며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는 명랑하기 가지한 소리는 가히 일풀이었다. 그 많고 다양한 소리가 중

방리 앞녘 들판 앞을 지날 때 만해도 강바닥에 질편한 강돌에 부딪치는 소리로 단양천물은 손끝에 닿을 듯 귓가에 칠랑거렸다. 이 물을 거슬러 밟고 우화교 다리 교각터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충주댐 담수로 단양수불지역 기념관으로 이전 된 탁오대가 있었다. 이 바위에 퇴계 이황선생 앉아 발을 씻으며 이름 지었다는 탁오대 자리를 중심으로 두개의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나들목 A와 B이다. 이를 건넌 하방리와 상방리 사람들은 외종방을 지나 계란재

를 너머 수산리로 나아가 청풍으로 갔으며 중방리 사람들은 농재를 향했다. 여기서 한 이 백여보 더 거슬러 오르면 돈돌미와 중방리를 잇는 2개의 징검다리 C, D 나들목이 있었다. 돈돌미, 이곳은 벽항궁촌(僻巷窮村)이었다. 얼추잡아 40여호 될까. 그런 집들이 두악산 산 끝자락에 추녀를 내라고 남작 옆드려 모여 살며 가파른 산비 알에 일궈놓은 화전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동네였다. 여기서 동쪽으로 오십여 보 더 거슬러 가면 퇴계 이황 선생이 복도소를 막아 저수지를 만든 보, 복도별업이 나왔다. 이 세 개의 나들목이 산길로 농재를 향한 길이었다.

새로 만든 우화교 다리 밑을 지나자 두악산 소금부지 봉우리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선다. 이곳에 들어서면 합수머리 그 낭자했던 물소리도 사라지고 계곡의 물소리마저 숨죽은 듯 귀에서 멀어져 갔다.

갈대숲 사이로 희미하게 올려다 보이는 노송사이로 애음길이 한 가닥이 고리를 물고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 길이 중방리에서 일명사지로 가는 옛길이다. 복도소 끝자락부터 중방을 일명사지 앞까지 유독 큰 바위 작은 바위들이 뒤섞인 바위 벌판이 질편하게 전개된다. 그 바위 끝에 커다란 마당바위가 자그마한 소를 만들고 있는데 마당처럼 넓은 이 바위에서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를 풍년을 비는 제를 지냈고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냈다. 돌밭 질편한 개활지를 거슬러 바로 내를 건너 산길로 접어들면 작은 보름 큰 보름을 넘어 대잠리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 산길을 백하지 않고 너를 따라 돌밭을 걸어 한 굽이 물길을 돌아 물고리들을 지나면 물골에 닿게 된다. 또 굽이쳐 하급이 솔숲 가득한 계곡 사이 돌밭을 더 걸어 오르면 억새와 갈대 흘어지는 계곡 저만치 펼쳐지는 개활지 위편으로 3층 탑이 있었던 절터 단배미가 보였고 그곳 살짝 냇물이 회 돌아친 곳 너머로 겹등소(이무기)가 나왔다는 소로서 주위바위가 검고 옛날에는 깊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와 물맛이 기막힌 냉천(冷泉)이 서로 이웃해 있다. 여기서 계속 봄굽이를 거슬러 오르면 노솔가지 가득한 산등성이를 끌어안고 펼쳐지는 소선암계곡과 솔밭 그늘한 대잠리 하선암의 절경을, 그리고 가산리 너머 도락산을 끼고 펼쳐지는 단양팔경(丹陽八景) 중 계곡미의 진경을 이루는 상선암, 중선암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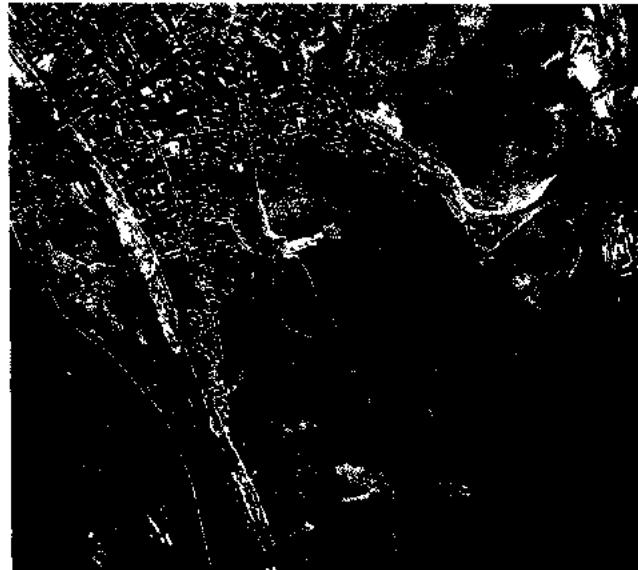
이런 까닭에 단양천 물줄기는 단양이 그저 단양이 아니었던 것 처럼 이 개울들도 그저 개울은 아니었다.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만지며 놀다 싫증나면 품고 내리던 그들을 버리곤 강불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었다. 밤이면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줄도 알았고 낮에는 구름을 품어 색깔을 널 줄도 알았던 물줄기였다. 단양천은 단양의 뱃줄이자 역사의 시작이요 맥박인 셈이다. 단순히 산간벽지 소읍 변두리를 떠돌며 흐린 낮 빛으로 지나가는 어떤 때는 살아 있음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채 떠밀리고 또 떠밀려 서쪽으로 서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물줄기는 더 더욱 아니었다. 이 물줄기가 자신의 가슴속 품은 수많은 날들의 이야기를 마침내 수없는 선비들의 발걸음이 되게 했고 그들의 꿈이 되게 만든 개울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이 개울이 사라진 것이다. 그 쉬 없던 흐름이 멈추게 된 때문이었다. 머물게 된 개울은 소리를 잃어버렸고 스스로 시간의 바다이자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강도 아닌 것이, 더더욱 개울도 아닌 것으로…

하지만 불과 사십년 전 만해도 A, B, C, D, E 다섯 개의 나들목을 통해 개울을 건너 중방리 모든 길은 농재를 중심으로 두악산과 성재산을 향해 묘하게 결쳐있었다. A와 B 나들목은 주거지를 끼고 농재로 연결되는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C와 D 그리고 E 나들목은 골목길과 밭누렁길 사길로 변화되며 농재로 연결된 길이었다. 이들은 모두 산길과 함께 절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 사실은 읍내 도로 패턴이 어떻게 작은 고을 단양의 중심부를 관통해 남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단양천변에 여러 개 나들목을 절점으로 노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들을 한가디로 요약한 갑작스러운 이 질문으로 생각이 분분해졌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방리 모습과 이 질문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C,D,E 나들목과 현실은 너무도 괴리가 커나. 아예 모습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므로 생각 할수록 변화의 크기와 강도는 심했다. 그 간극이 의미하는 변화도 사실 토지 이용의 변화과정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추측과 상상에 불과한 가설들이 억측으로 까지 벗어나면서 무성해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방리와 두악산 산록 사이를 끊어내는 단



〈그림 17〉 1980년 단양 황공사진



〈그림 18〉 1970년 단양 황공사진

절이 생긴 터에 이곳에 살았던 50~60대 계층이 아니면 외지인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태어나 줄곧 살고 있는 30대는 어느 누구라도 과거의 이곳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곳 산길의 언형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하기 힘들었다. 그것을 가려낼만한 사건은 결국 1985년 농재에서 새로 지은 우화교를 잇는 길로 단양군청과 단성중학교 사이를 가르며 지나는 도로 개설로 나타났다. 당시 당국은 이 도로를 내려고 상방리에 축대를 쌓고 옹벽을 세운 결과 두악산 신록에 신재해 있던 산길이 모두 잘라져나가면서 그 유구했던 흐름마저 끊어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상방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러자 상방리의 원형에 대한 관심은 이 도로를 왜 개설하게 되었는가에 쏠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런 사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물론 충주댐 건설로 단양읍내가 수몰되자 현재 남아 있는 상방리 5번국도와 중방리를 지나는 36번국도 그리고 9번 국도를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헌데 문제는 1980년 항공사진을 검토해보자 이 도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데 있었다. 이 사진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보자 그 무렵 상방리 농재 근처에 새로운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단양군청사와 단성중학교였는데 두 시설물은 기능적으로 상호연계성은 전혀 없었다. 단지 두 건물 부지 사이로 밭두렁길이 한 가닥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다. 바로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길의 선형이 현재 농재를 향해 달리고 있는 36번국도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들목 길 가운데 세 가닥이 단성중학교 부지 모퉁이에 집결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중방리 나들목을 거쳐 농재로 향하는 상방리 산길의 교통 절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언제 생겨난 것일까.

단양군청사¹⁾가 농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 상방리에 세워진 것은 1974년이었다. 그전까지 단양군 청사는 하방리에 일제 강점기 세워진 목조 단층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1972년 대홍수로 군청사가 침수되자 상방리 이곳 단성중학교 동쪽 능선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단양군청사 상방리 이전은 단성중학교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적인 안목보다도 홍수로 인한 침수를 피해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빙터를 찾아 세워진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1974년 이전 까지만 해도 단양군청자리는 논밭으로 존재해 있었던 셈이다. 그 모습을 1970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자 관심은 곧 사그라지고 말았다. 더 본원적인 원인을 단성중학교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관심은 이 학교가 생긴 이유가 어떤 것인가로 옮겨졌다. 이 일을 조사하는 과정 역시 산길과 개울 나들목의 연관성

을 찾는 순서에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았다. 다만 집고 너머 가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학교와 군청을 한 구역에 몰아둔 것은 토지이용 계획측면에서 볼 때 용도가 어울리지 않아 아귀가 맞지 않는 황당한 배치였다. 아마 당시 당국도 급하게 쫓긴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정리했지만 이일을 하는 동안 줄곧 마음에 걸렸다.

파연 공립중학교인 단성중학교는 언제 왜 상방리에 생긴 것일까. 현재 남녀공학인 이 학교가 개교한 것은 1969년 3월 15일이었다. 그러나 그 줄기는 원래 1968년 12월 3일 6학급 설립인가 받아 이듬해 이 자리에 개교한 단양여자중학교²⁾이었다. 하지만 그 학교 역시 뿌리는 하방리에 있었던 단양중학교³⁾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45년 5월 1일 단양공립 공업전수학교로 인가를 받아 단양초등학교 부지에서 개교한 이 학교는 1945년 11월 단양공립 공업초급중학교로 승격되면서 6.6.4제 학교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년 뒤인 1947년 3월 1일 단양초등학교 부지에서 독립한 이 학교는 하방리 260번지로 교사를 이전하여 독립된 캠퍼스를 확보하였다. 이후 1949년 5월 1일 단양중학교로 학칙 변경하고 1950년 5월 단양공업중학교(4년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51년 8월 31일 교육법 개정으로 단양중학교로 개편되면서 학제가 6.3.3.4제로 바뀌면서 3년제 중학교로 운영되었다. 다시 1955년 6월 15일 영춘 분교장을 설립, 1964년 3월 6일 영춘 중학교로 승격 분리하였고 1969년 3월 15일에는 다시 단양여자중학교를 분리해낸 것이다. 때문에 단양여자중학교의 뿌리는 하방리 단양중학교에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상방리 산길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단성여자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부터였으므로 1969년 이전 이곳은 산길이 원형 그대로 있었던 셈이다. 이제 그 산길을 찾아내려면 1970년 이전 지도가 필요했고 그 속에 기록된 산길을 정리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산길의 변화유형을 통해 단양을 의 도로패턴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가 확신처럼 생겨났다.

농재를 바로 경냥한 두 가닥 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닥 길은 단성중학교 건물부지에 막혀 밭두렁 길로 우회를 해야 했다. 덕분에 이 세 가닥 길은 돈돌미에서 들어와 성재산을 향한 등고선 길과 만나 택지주변을 맴도는 골목길로 성격이 변한 것이다. 단양군청의 상방리 이전과 단성중학교의 신설로 세 가닥 산길이 고샅으로 꽂목길로 성격이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이전에는 나머지 세 산길도 모두 중방리 사람들과 삼선 수석로에 살던 산촌 사람들 이 농재를 너머 기차를 타려고 갔던 사용했던 길이었으므로 이 길은 사실 농재와 연결된 산길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보다 원초적인 단양읍의 형태는 1970년대 단양의 모습에 있었던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때 단양모습을 1/5000지도에 복원하여 조선시대 도시 모습을 역산해 찾아내는 일이다. ■

1) 1914년 3월 1일 설치되었다.

2) 1984년 10월 31일 교명 변경인가를 받아 1985년 3월 1일 단성중학교로 교명 변경하였다.

3) 단양군 단양을 하방리 260번지에 있었으나 1985년 5월 13일 충주댐 건설로 도전리 222번지로 교사 이전하였다. 1994년 5월 13일 과학관을 1996년 7월 16일 강당을, 2000년 10월 18일 금식소 및 사격장을 준공하였으며 2003년 7월 30일 과학관을, 2003년 10월 20일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다. 2004년 10월 5일 발명공작실을, 2005년 5월 1일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및 역사관을 개관하였다. 교훈은 '당당한 사람'이며 교목은 주목, 교회는 철쭉이다. 남녀공학 16학급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에 있다.

도시계획과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나타난 미국 덴버시의 새로운 도시상*

New Visions of Metropolitan Denver embedded in Urban Plans and Design Guidelines

도시계획수립과 관련 법령들은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도시 구 성원, 관련 이해집단들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어 계획과 법제 들 간에도 완벽한 일관성과 시기성을 찾기가 어렵다.

덴버시와 카운티(이하 덴버시)의 경우에도 여러 장기계획과 단 기계획들이 지역구성원들과 개발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립 개정되었고 이는 계획들과 법제간 불일치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도 충돌하게 된다. 근대이후 자동차주주의 교외중심 도시개발에 의해 양산된 도시들에 대한 비판이 199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도시와 지역미래상에 대한 설립 요구들이 일어난다. 덴버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속에서 경제와 사회 문제 등을 포함한 범분야적 지역적 미래상을 설정한 '덴버 종합계획 2000'을 수립하고 이후 10여년에 걸쳐 새로운 지역별 비전과 계획 전략들을 설정하여 기존의 소지역 도시계획과 조정법규, 새로운 균형주구 법정 도시계획들을 대체적으로 정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미국 내에서도 훌륭한 평가¹⁾를 받고 있다.

또한 덴버시의 도시계획들은 최상위 계획인 '덴버 종합계획 2000'과 통합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인 '덴버 청사진', 도시

법령인 조정법규, 토지분할법령, 매개계획인 범도시계획, 일반 개발계획, 소지역계획, 균형주구 계획 등 40여 지구의 도시계획들과 최하위 계획인 17자구의 도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이르기 까지 모두 시기차를 가지고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도시의 미래상과 가치를 구현하며 실천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나 공공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혹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련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제정되고 심의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도시계획들과는 관련 없이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가로시설물이나 보도패턴 등의 한정된 분야만을 규정하여 도시를 이미자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도시의 미래상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덴버시가 이루어온 일련의 성과들인 여러 도시계획들과 법령,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상호구조와 연관 관계, 또한 상하위 전략들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적 미래 가치와 실천적 전략, 규제 항목 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알아보자 한다.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김소라,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5호, 2010년 5월>에서 발췌, 변집하였다.
1) 미국 뉴욕 칼리지 건축학과 교수인 존 윌리엄슨(June Williamson)과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건축학프로그램 디렉터이며 뉴어버니즘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엘런 던翰 존스(Eljen Dunham-Jones)는 2007년 개최된 17회 UNH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의 하나인 '교외 재활용하기' 원고에서 덴버를 미국내 가장 홍보하고 혁신적인 도시 부흥 사례로 꼽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덴버의 도시변모에서 오늘의 미국 도시가 얻어야 할 교훈이 매우 크다고 역설하였다.

목 차

1.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의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도시상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Urban Plans and
New Visions of Metropolitan Denver

2.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들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Plans and Design Guidelines of Denver in
USA

필자 : 김소라,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by Kim, So-ra

김소라는 흥익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의 우일 종합건축사무소, 미국 뉴욕의 Gwathmey Siegel&Associates

Architects와 뉴저지의 ArcanGiovino Architects 사
무소에서 총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뉴욕주
등록 건축사이며 미국건축사협회(AIA) 정회원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도시디자인 관련 연구로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
인'과 '도심시대 생활 디자인 기본주제 및 실천방법'



2.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 The Urban Plans and Design Guidelines of Denver -

서언

지난 회에서 살펴본 도시 상위 계획들 중 '덴버 종합계획 2000'은 덴버카운티에서 향후 20년 동안 다루어야 할 사회, 경제, 도시 분야의 시 주요 정책 등을 포함한 범분야적 장기계획으로 2000년대 이후 덴버시 도시계획의 가장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의 실천계획들을 제시한 '덴버 청사진'은 통합적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도시 분야의 최상위계획이다. 현 미국도시의 비어가는 도심을 재생시키고 개인 교통수송수단인 자동차에 의존하여 끝없이 확산되는 교외를 과거의 커뮤니티 체제로 시키기 위한 근린주구(Neighborhood)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엄격한 용도지구제 대신 지구 내 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하고, 용도에 따른 개발 밀도가 아닌 변화지역과 안정지역설정에 따른 장소별 특징 강화와 차별적 개발밀도 조정을 설정하고, 도시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용 도시법규인 조닝법규와 토지 분할 법령, 각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제도에서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 지침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장소별 하위 도시계획들이 일반개발계획(GDP; General Development Plan), 소지역계획 (Small Area Plans), 디자인 가이드라인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등에서 고려하여야 할 세부 전략과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데, 금회에서는 '덴버 청사진'의 기본 목표와 계획 지침들이 범용도시법규들과 하위계획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덴버 청사진'과 토지이용 규정에 관한 법규, 제도의 관계

용도, 밀도, 배치 등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현재의 수단으로는 조닝법규와 토지분할법(Subdivision Ordinances and regulations), 디자인 가이드라인(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과 문화재 지정(Landmark Designation)과 배치도심의 제작(Site Plan Review)가 있다.

덴버 청사진과 조닝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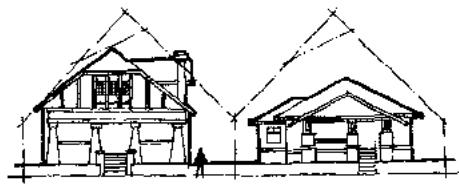
'덴버청사진'에서는 조닝법규에 반영되어야 할 실천전략을 용도, 조닝지도, 개발지표, 세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우선 용도에서는 조닝지구(Zoning District)안에서 그 성격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물용도의 용어 개정을 제안한다. 식료품점은 현재 상업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몇몇 주거지역(R-X, R-S-4, R-O, R-1, R-2, R-3)에서는 위치하기 불가능하였으나, 용도가 아닌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소매 상업용도가 주거지내 위치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며, 현재 드라이브-쓰루(Drive-Through) 식당이 허용되었던 지역에서는 이의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도용어를 새로 개정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즉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용도의 건물이 자동차로만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보행권역 혹은 자전거 이동 권역 내에서는 허용하여 좀 더 작은 스케일의 커뮤니티 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용도지구에 의해 에이커당 건립가능한 주택호수가 정해져 있는 현재 조닝법규의 밀도규제에서는 장소특성별 밀도조정 –즉 다른타운의 고밀재생과 교외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저밀도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닝지도를 변화지역과 안정지역을 동시에 표기하며 새 밀도지표를 추가 개정하며 이를 위한 기본골격을 제시하였다. 즉 새로운 용도지구와 적절한 개발밀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발지표(Development Standards)는 기존의 연면적, 높이제한, 건축후퇴선, 주차장설치기준, 상업지역의 옥외 광고 외에도 새로운 조닝법규에서는 주차장위치, 조경면적, 부피제한, 주거지와 비주거지 사이의 완충이라는 4개의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옥외주차장 규모를 감소시키고 주차장 위치제한에서는 주 보행로와 건물사이에 옥외주차장설치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자동차보다 용이하게 하며 주보행가로에서의 경관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전의 자동차 이동을 우선시 한 개발지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조경면적 개발지표는 저밀도 주거지에서는 최대 건폐율과 최소 조경면적설정을 통하여 충분한 조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건축선 후퇴가 크지 않은 상업지나 고밀도 주거지에서의 조경타입은 소규모 광장 등 도시형 등으로 지침을 세워 장소별 특징에 따

본 도심 옥외공간을 조절할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지역에서는 조경공간과 옥외공간이 도시백락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도록, 즉 인접 조경과 옥외공간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부피짜한 예

부피제한지표는 인접건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고 인접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위 그림은 거리의 10피트 높이에서 45각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부피제한 사례이다.

주거지와 비주거지 사이의 완충지표는 안정 지역 내 소규모 상업 시설이 협용되면서 새롭게 필요해진 지표로 식재를 통한 완충, 담장과 팬스의 부명도 자정, 상업지역의 배달이나 서비스 동선이 주거지와 연접하지 않는 배치, 건물 높이 변화 시 스케일 완화, 업무지구와 주거 근린주구사이의 박공지붕디자인 유도와 광고규제 등을 소지 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발지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재사용, 중산층 주택 개발과 공공광장 등 공공에 기여하는 개발이 포함된 경우 개발지표들의 완화나 증가를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개발에서 공공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와 같은 기본 틀을 가지고 조닝법규가 개정되어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3번의 주민공람을 거쳐 마지막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조닝코드는 맥락위주의 6가지 조닝 범위; 교외(Suburban), 도심경계(Urban Edge), 일반도심(General Urban), 도심센터(Urban Center), 다운타운(Downtown), 특별맥락(Special Context)으로 나누어 허용용도와 개발지표를 제안하며 기존의 법령 문구 형식 외에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덴버청사진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심의 제도

현 조닝법규에서는 하나의 조닝규제를 받는 대지들이나 여러 개의 조닝지역의 특별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 특별구역(Special Zone)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계획(Plan)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 공청회와 시정부 관련 부처의 승인과 시의회 승인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R-1, R-2, R-2-A, R-2-B or R-3 지역 내에서의 특별 계획은 반드시 건물 간의 인동거리, 전면건축선 후퇴, 차량진입로, 건물 폭, 건물 높이, 건물 길이, 거리에서의 건물 배치 방향, 건물 진입구 방향, 건물 입면에서의 디테일 등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디자인 심의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계획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기준과 지침을 담은 디자인가이드라인(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을 수립하고 심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새 조닝코드의 최종안에서는 9항 특별맥락과 지구, 4절 중복지역 맥락(Overlay Context), 3호 디자인 중복 지구(Design Overlay District)에서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심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근린 주구계획(Neighborhood Plans)등에서 제시된 토지용도와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저밀도 주거지와 인접한 상업용도 개발이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디자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안에서 지정된 디자인 중복 지구는 모두 16개 지구²¹⁾이다.

'덴버 청사진'에서는 안정지역내의 용도중복지구 설계기준은 주거지의 차고디자인, 창문과 둘, 현관과 주변 매력, 조화로운 건물 디자인 카테고리의 범주에서 디자인 표준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폭이 긴 주택 차고지의 문이 주된 경관이 되지 않도록 주택차고지의 문은 건물의 주된 패사드면에서 후퇴하여야 하며 차고문의 폭 또한 전체 입면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여야 하며 가로에서

(표 1) 덴버 청사진에서 제시한 블록토지이용 지표 예

	위치	개별임도	주거 임도	해양 혼용임도	크기 (에이커)	도로설계표- 교통수단
다운타운 지구	치역 내 다운 타운은 히 콧 나운을 히 콧	신축 연면적 평균 300m ² 경우에 따라서 는 1500m ² 이상	신축으로 정부 에이커 당 75m ² ~150m ²	시투스, 소매상 업, 호텔, 주거 시설 유동과 상공용도	1400	교통량 반 이상 이 비자용, 광 행, 전자상, 화 승용 차량
고용 지구	주간식도로와 환승차역 근처	200%~300%	주거용 건물 불가	시투스, 칭고, 상세소업	10~300	버스, 트럭
상업 지구	철도변, 주요 간선도로변, 공항근처	신축연면적 20%, 역사적 용도일 때 75% 까지 상향	스기, 전문 지상 상가조업, 종교인, 청교도	500 ~2000	개인 차량이주, 근로자들을 위 한 내종고동서 카드, 트럭, 설 기 구설 등이 두 로설계기준	
혼합용도 지구	다운타운 근 처, 지역 센 터, 경관천역 근처	100%~150% 경우에 따라 상향화용도	20호~50호/ 에이커, 경로에 따라 상향화용 도(수지 빙수, 하중)	경제조업, 시무 소 소매점, 주거 시설 유동과 상공용도	50~300	보행, 차량이동 의 주요 활성

〈표 2〉 조달법규에 반영되어야 할 개발지표 예

개발지표	다운타운 차구	고용지구	산업지구	총활용도 지구	도심주거 지구
최대 연면적 활용	X	X	X	X	X
최소 연면적 활용	X				
코너부지 부과제한 여부					
일조권과 오른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빌딩스케일 조절 의무	X			X	
높이 제한					option
부지 내 측안, 주변 간통선 후퇴 여부				option	option
최대 건축 허용선 준수(건물을 보도 기까이 위치시키는 것)	X	X		X	X
부속 건물 길장				X	
분기형 터보+가로수 터로 딥개방 녹수대	X	option	option	option	option
연접형 보도				X	
분기형 보도 - 가로 녹지대		option	option	option	option

* notion은 한사사나 심의자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자의 결정사항이 아님

1) Denver, Colorado, Code of Ordinances /TITLE II - REVISED MUNICIPAL CODE/Chapter 59 Zoning/ARTICLE VIII. - SPECIAL ZONE LOT PLANS FOR PLANNED BUILDING GROUPS (See 59.616-59.623)

2) 지정된 16개의 디자인 중복 지구는 아파라운드, 디운타운, 벤루브여, 케피탈힐/업타운, 체로키재개발, 체리그로브지구, 체리그로브지구, 도심센터, 휠로라도센터, 멘버디자인지구 멘버게이트웨이 데비운니언에셋 게이트워드 드림시티 광활한 트리아일렉트 스텝플랜트 입지이다.

폐쇄적인 입면이 되지 않도록 가로에 면한 창문면적비율을 규정하여 가로에서의 경관을 내부 공간의 요구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덴버 청사진'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대한 의도와 전략은 도시법령과 계획의 가장 하위서류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반영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디자인 심의가 필요한 지역은 소수로 물리적 경관이 매우 중요한 몇몇 지역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체리크릭 북지구(Cherry Creek North)와 다운타운 B-5(Downtown B-5) 지구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디자인 심의제도 외에 배치계획 심의제도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혼합용도지구 일반개발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 3〉 '덴버 청사진'에서 제시한 하위도시계획 설계기준 기본 틀

설계기준	다운타운 지구	고용지구	산업지구	혼합용도 지구	도심주거 지구
보행자 스케일 입면과 도시 맥락 디자인 여부	X			X	X
주 보행도로에서의 입구성	X	X	X	X	X
건축 스케일 요소 허용 여부	X	X	X	X	X
블록 개발 - 퍼시드에 면한 연속적인 아케이드나 소매상들의 연속적 정면성		X		X	
보행자 보호나 입구성을 위한 치양허용 여부	X			X	
집합주택의 지상층 창문 - 지상층 레벨을 가로 레벨보다 높이기 위한 계단이나 후퇴형 현관 허용 여부	X			X	X
넓은 지상층 창문이나 빈번한 출입허용 여부	X			X	X
보행자가 건물 인출 보기 위한 창문 투명도 요구 여부	X	X		X	X
보도사용, 육외 의자, 거리 노점 허용 혹은 권장여부			X	X	
건물 주 층에서의 편애나 유사 용도 허용 여부	X			X	option
공공영역에 면한 주차장 길이 제한 여부	X	X	option	X	X

덴버 청사진과 토지분할법령

토지분할법령은 대규모 필지를 분할 할 때 필요한 법령으로 이 법령이 규제하는 범위는 길, 블록, 단위필지이다. 덴버시 대부분은 잘 정비된 일정 크기의 길과 필지로 이루어진 그리드패턴의 블록이 엄

격하게 적용된 도시이다. 스테플تون과 게이트웨이는 이제까지 분할된 적이 없던 토지로 새로운 개발과 함께 덴버의 도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는 토지분할이 필요하며 지역의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도시운동'에서부터 시작된 덴버 고유의 유산인 가로와 보도의 특징³⁾을 계승할 수 있는 거리를 위한 토지분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덴버의 블록분할은 용도와 상관없이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은 블록 내에 주거와 상업 활동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 슈퍼블록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밀도 조절을 통하여 최대 블록크기를 여전히 기존 덴버 시 블록 크기인 600피트X600피트 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블록크기는 그대로이나 에이커당 주택 수나 일자리수 밀도를 높이면 같은 크기 내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덴버 청사진'의 밀도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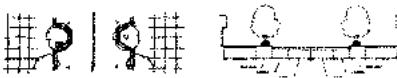
하위 도시계획 - 소지역 계획/ 일반개발계획 / 디자인 가이드라인: City-wide Plans, Small Area Plans, General Development Plan,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소지역계획은 장소중심의 계획으로 현재 조닝법규에서 특별계획조항을 근거로 설립되는 특별계획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특별계획들의 제정절차가 모두 다르고 계획안의 내용이 조닝법규와 충돌되기도 하며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범주와 항목이 모두 달라 절차와 규정범주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특별계획들은 새로이 개정되고 제정될 계획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소지역 계획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소지역계획들은 작게는 10에이커에서부터 크게는 4,500에이커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스케일에 따라 세 가지의 범주인 지구(District), 주구(Neighborhood), 회랑(Corridor)으로 나누고 있다. 덴버에는 현재 총 79개의 근린주구가 존재하고 대부분은 주거지이다. 이중 근린주구 계획이 제정되거나 진행 중인 곳은 17곳⁴⁾이다. 근린주구는 덴버시의 새운 도시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자동차 이동거리에 의한 스케일이 아닌 보행이나 자전거에 의한 이동이 가능한 크기의 커뮤니티로 근린주구

3) '아름다운 도시운동' 시절 때 대대적인 식재가 이루어진 데에 덴버에는 아주 오래된 가로수와 잔디로 인한 녹지 폐가 보도와 도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덴버의 복합도로정책에도 보존하고 응용하여야 할 유산과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덴버의 거리경관 특성을 유지한 매인 스트리트 도로 디자인 그림

4) 제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주구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Congress Park Neighborhood Plan, 1995 /Athene Park Neighborhood Plan, 2000 /Baker Neighborhood Plan, 2003 /Barnum & Barnum West Neighborhood Plan, 1986 /Capitol Hill and Cheesman Park Neighborhood Plan, 1993 /Cherry Creek Neighborhood Plan, 2000/Golden Triangle Neighborhood Plan, 1998 /Highland Neighborhood Plan, 1986 /Jefferson Park Neighborhood Plan, 2000 /Lower Downtown Neighborhood Plan, 2000 /Park Hill Neighborhood Plan, 2000 /Villa Park Neighborhood Plan, 1991 /Overland Neighborhood Assessment, 진행 중 /Sunnyside Neighborhood, 진행 중 /Platt Park Neighborhood, 진행 중 /Elyria Swansea Neighborhood Plan, 진행 중 /La Alma&Lincoln Park Neighborhood Plan, 진행 중/Northeast Downtown Neighborhoods Plan, 진행 중

단위의 주민교류, 이를 위한 적정한 공공시설, 학교, 상업용도 등의 허용은 '덴버 종합계획 2000'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소단위 계획 중심의 커뮤니티 정신 고양을 위한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구계획은 균린주구보다 더 큰 지역으로 센터지구나 다운타운 지구, 캠퍼스지구 등이 있고 역 주변 지구계획은 혼합용도개발을 유도하면서 지구계획수립이전에 일반개발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을 먼저 수립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총 10곳의 지구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제정되었다⁵⁾ 회랑지구계획은 길이나 강변, 고속도로변, 경전철이나 버스노선 주변 등 선적인 요소가 강한 지구를 그 자리적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싸우스 브로드웨이 회랑(South Broadway Corridor)계획과 브루스 랜돌프 애비뉴(Bruce Randolph Avenue) 계획이 있다.

소지역계획들은 표준화된 과정을 통하여 제정되게 되는데 새로이 입법화된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4〉 소지역 계획 절차 흐름 짚자

단계	세부진행
공동체 참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시공무원 워크숍 ▼ 시민자문회 결성을 통한 정기적 회의 ▼ 정기적 회의결과 주민 보고 (신문과 편지, 메일, 홈페이지) ▼ 공청회 ▼ SWOT 보고서 작성 (워크숍, 회의, 공청회결과를 반영한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한 보고서) ▼ 계획법위경계와 소지역 지정 ▼ 소지역계획의 목적 규정 (시와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 계획과정에 대한 논의 ▼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관계자 설정 공공 참여 전략 설정
1단계 : 배경과 소개	
2단계 : 계획액학 세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버종합계획의 전략반영 · 덴버 청사진과 그 외 관련된 법 도시계획 반영 · 덴버종합계획의 부속계획으로 승인된 소지역 계획 반영 · 교통, 도시디자인, 하수 등 관련특장보고서 반영 · 주정부와 연방정부 정책 반영
3단계 : 미래상 설정	10년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의 중장기 미래상
4단계 :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동향추이 · 환경의 지속성 · 토사용노와 조닝 · 주택 가격, 타입, 자가비율 등 · 지역유산 · 이동성 : 가로 유형과 크기, 길이 등 · 균린주구 : 주구 내 주요한 이슈 발굴 · 예술과 문화 : 문화시설 분포
5단계 : 계획 권장사항	계획지구의 개념계획에서 권장한 사항 권장사항의 목적과 목표, 이슈의 형태로 서술 시민 책임 부분 서술
6단계 : 계획 최종안	크게 규제측면과人文부 차원형식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에서 서술 주민 공남시간 사전 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일반개발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은 혼합용도 지구 내에서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려는 사업에 대한 계획지침이다. 10

개의 일반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⁶⁾ 대부분이 배치도 심의 대상지역이다. 개별 부지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표 5〉와 같은 범주와 지침을 가진다.

〈표 5〉 일반개발계획(GDP)의 항목과 표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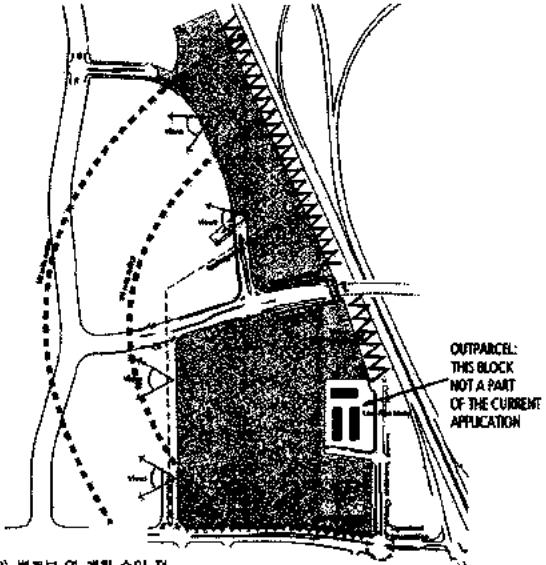
단계	세부진행	
기구별로 분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은 가급적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전형적 크기는 300' x 600' · 단 도시이용이나 주변 기로와의 연계, 환경적 요인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형모양과 다른 크기의 블록을 제안할 수 있어 최대 블록크기는 900'x1980' 초과불가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연결이 모든 방향에서 가능 · 건물 전면설은 보행기로방향으로 옥외주차장을 가릴 수 있도록 계획 	
주차장 위치 와 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등선을 방해하지 않을 것 · 주변 길들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 	
보행자 그늘	1/2미터~1/4미터마다 제공	
서비스골목	주거지, 상업지 등의 서비스 동선을 위한 일자, L자 혹은 T자형의 서비스 풀목을 블록단위로 확보하여 기로에서의 경관을 보호하며 보행자 위주의 환경유지	
건물입면과 재료		
교통	다양한 교통수단 옵션 제공	
하수/상수/우수계획	덴버 청사진의 교통체계기준 준용	
유밀리티 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밀리티 위치 · 반드시 지하화 · 지역경 · 기로수와 공존 	
공개공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일관된 가로녹지 계획 · 최소 5' 폭 보도 · 10' 폭 가로, 선형녹지 · 대지 경계선에서 2' 폭 유밀리티 존 · 18' 폭 분리 차로 구역 · 12' 폭 이동차로 	
옥외공간비율 율화	GDP 구역 내의 R-MU-30(단독주택지구) 옥외공간 설치 비율은 조닝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10%까지 원화	

이 지침을 가지고 배치도 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게 되며 이후 지구의 크기에 따라 균린주구계획이나 바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벨르뷰 역의 일반개발계획은 배치계획 심의를 통하여 GDP 승인 후 바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으나, 콜로라도 스테이션 일반개발계획은 도심 센터 지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후 상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일반개발계획에서 규제하는 내용들이 가구별로 분할 방법과 건물의 전면성, 주차장 위치, 하수, 상수, 교통 계획 등의 인접 블록과의 관계와 연계성 상에서의 큰 골격을 정하는 반면(그림 2, 3)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 대지내의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설계지침들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가이드라인들이 다루고 있는 설계지침의 대상은 서로 유사하며 단일 대지 내 동선과 배치, 건물 디자인, 조경과 옥외디자인, 옥외 광고물 등을 규정한다.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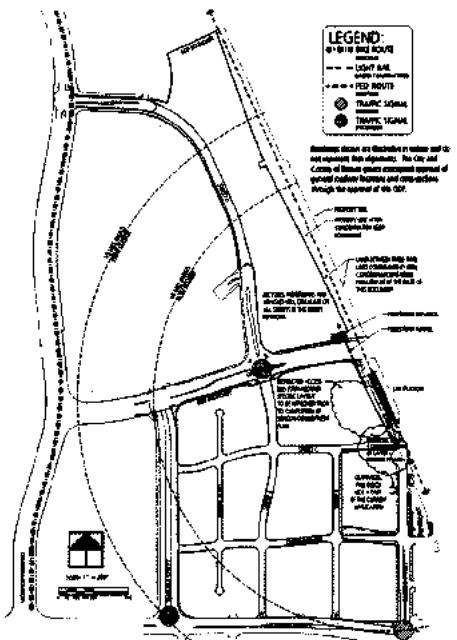
대부분 덴버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규제하고자 하는 항목아래 규제의 목적, 디자인 표준, 디자인 지침으로 나누어 서술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돋고 있는데 실제 디자인의 표준과 지침에는

5) Civic Center District Plan, 2005 /The East Colfax Plan, 2004 /Downtown Area Plan, 2007 /Louisiana Pearl Station Area, 2007 /University Park Small Area Plan, 2008 /Mayfair Town Center, 진행 중 /Shattuck District Plan, 진행 중 /Denver Union Station, 진행 중 /Uptown Healthcare District Plan, 2007 /Yale Station Area Study, 진행 중

6) 덴버시 일반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새로 생긴 부지들과 역주변지역이다. High Point GDP/ 9th & Colorado GDP/ Cherokee GDP/ Colorado Station GDP/ Denver Design District -DDP GDP/ Gates East GDP/ Lowry Vista GDP/ Denargo GDP/ North Stapleton GDP/ Denver Union Station GDP



(그림 2) 벨루뷰 역 계획 승인 전



(그림 3) 승인된 벨루뷰 GDP: 옥외공간계획

맞지 않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진출입과 동선'의 항목아래 규제를 하는 목적은 '대지내로의 자동차 진출입 동선이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 동선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규명하고 디자인 표준으로는 '도로에서의 대지 내 진입부 및 차로가 거리와 직각이 되도록 한다.'로 설계지침으로는 '1) 대지 진입차로는 공공토목국에서 허용한 폭보다 넓어서는 안 되며, 2) 진입차로는 거리교차로나 가구의 코너부분과 가까이 위치할 수 없으며, 3) 건물들과 다른 용도간 차로는 반드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가로에 노출된 주차장 건물' 항목을 살펴보면 그 목적은 '1) 공공영역에서의 주차장 건물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2) 차량소음과 헤드라이트 불빛, 주차장 건물과 관련된 기계설비등의 거리 영향을 경감시키며 3) 주차장건물과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꾀'

〈표 6〉 콜로라도스테이션 디자인가이드라인 내 규정하는 항목

범주	항목
대지등신	사동차 진출입과 동선 보행자 진출입과 동선
대지계획	일반 가로경관 디자인-공공기로 일반 가로경관 디자인-시로 건물위치, 방향, 용도 : 건축선 요구사항 보행자 활동용도 요건 주차장 위치와 디자인 : 옥외주차장 주차장 건물 서비스 동선 및 유틸리티 옥외 공간
건물디자인	건물마스와 형태 건물 특성 : 재료 · 개구부 · 입면구성 건물 입구 : 보행자 진입과 입구 · 차량 진입과 입구 건물 액세서리 건물 서비스 및 유틸리티 가로에 면한 주차장 건물
조경디자인	조경 일반요구사항 조경요소 표준 모장요소 표준 멘스 차폐막, 담장과 난간 조경시설물 표준 옥외공간 조경 : 광장과 가로경관 확장 · 메인스트릿 옥외공간 · 유수 지역 주차장 조경
대지와 건물조명	주차지 조명 : 옥외조명 · 건물조명 건물단위 광고 지구단위 광고

하고 4)주차장의 혼합용도 특성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위한 디자인 표준으로 '1) 새로운 주차장건물이 거리와 면하는 입면은 직각이어야 하며 주차램프는 보이지 않도록 한다 2) 스판 드릴 패널이나 적정높이의 벽을 사용하여 주차된 차의 경관이나 헤드라이트가 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지붕층 주차 조명은 25피트 높이 이하로 제한한다 4) 주차장 건물의 조명은 공공기로와 사로로부터 가려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지침으로는 '1) 가로에 인접하는 주차장건물의 매스, 형태, 건물 특성은 건물과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 2) 건물 내부조명의 광원이 거리에 현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며 개구부 주변에는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3) 건물의 내부조명이 외부거리에 현휘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아래 불투명재료를 건물의 입면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콜로라도 스테이션 가이드라인의 특성은 일반개발계획(GDP)과 지구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장소적 범위가 동일하여 가이드라인 내에 상위계획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다른 덴버의 가이드라인들의 장소적 범위가 통상적으로 지구나 근린주구 일반개발계획 구역 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 소규모 특정장소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여러 법정 도시계획과 법령들의 가장 하위 서류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규제항목 대부분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사적재산권보다 우선시하며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상위계획들에서 제시하였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도 그 목적

에 맞춘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성한 점은 주목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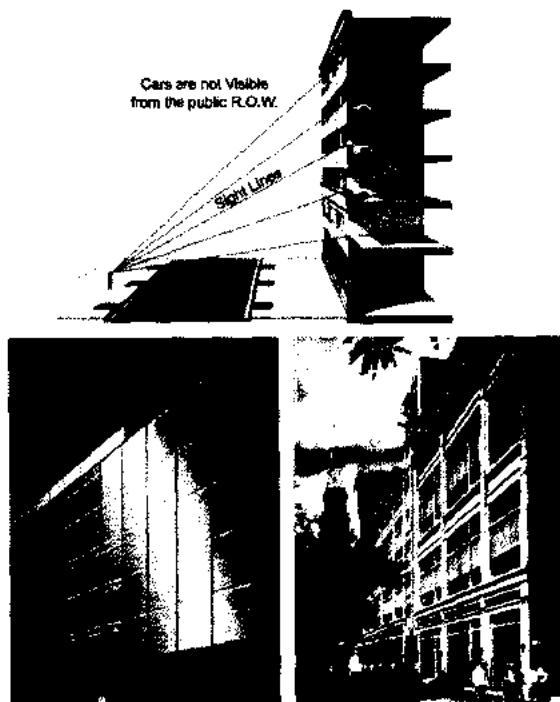


그림 4) '가로에 면한 주차장 건물' 항목 아래 예시온 디아이그램과 사례사진

결 론

지난 회와 금회에 걸쳐 살펴본 덴버시의 도시계획들이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목표와 전략은 엄격한 용도 지역제를 적용하는 조정제도 하에서 양산된 자동차중심의 교외의 재개조와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의 생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근린 주구내 혼합용도를 협용하는 것과 장소특성을 중심으로 덴버시 전체의 밀도를 재분배하여 토지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산발적이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제정되는 여러 지구계획들의 제정 절차를 표준화하되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주도아래 지역의 미래상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하위 계획 즉 소지역계획들의 전략의 주안점은 크게 보행자 위주의 가구블록크기 설정과, 지구 내 차량 동선계획, 혼합용도 내에서는 주거지와 기타지역 간의 완충공간 계획, 가로에서의 경관 조절을 위한 규제 등으로 결론지어진다. 가장 하위계획이며 가장 소규모 범위를 엄격히 다루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며 가로에서의 시각적 경관 조절과 가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며 광고물과 가로시설물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등 여러 도시계획들이 지자체마다 달리, 혹은 같은 지자체내에서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산발적이며 자업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현 우리의 도시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한 우리 도시의 미래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를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한계가 드러나거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계획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2000년 이후 덴버시가 이루어온 일련의 성과는 단지 그 결과물의 내용만이 아니라 시정부, 개발업자, 지역민,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관계자들 서로 다른 이해집단이 오랜 기간 소통을 통하여 합의와 공감아래 하나의 비전 아래 여러 도시 분야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냈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도시는 단기간 내에 일부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영원하지만은 않은 소비되고 소진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림 및 표 출처

그림 1.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그림 2, 3. Bellevue Station T.O.D General Development, Matrix Design Group, City Submittal, 2005

그림 4. Colorado Center Urban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TRYBA Architects,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8

표 1, 2, 3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참고문헌

1. City and County of Denver, Denver Comprehensive Plan 2000,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0

2.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3. Colorado Station GDP, Davis Partnership Architects,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8

4. Colorado Center Urban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TRYBA Architects,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8

5. Bellevue Station T.O.D General Development, Matrix Design Group, City Submittal, 2005

6. The New Zoning Code Final Draft. 자료출처:
<http://www.newcodedenver.org/>

7. Denver, Colorado – Code of Ordinances, 자료출처:
<http://library.municode.com/index.aspx?clientId=10257&stateId=6&stateName=Colorado>

남산과 한강사이에서 만나다

Meet at between Namsan and Han river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2010 CITY OF GREEN



김금진 / 정회원, (주)산히 건축사사무소
by Kim, Geum-jin, KIRA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KTX를 타고

올해는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5월 13~14일 서울에서 열렸다.

옛 본협회 건물에서 지 순 선생님과 첫모임을 가진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째가 되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라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얼굴들이 보이지 않으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지다보니 참가자가 많아서 몇 해 전부터는 선착순 80명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신청 첫날 수 시간 만에 종료되어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놓았지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구제되어 참석 할 수 있었다. 후문에 여러 회원들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1년 동안을 기다린다고 하니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은 당연 한가 싶다.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회원에게 참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나는 광주에서 KTX 첫차를 탔다. 어릴 때는 새벽바람도 좋더니만 이젠 일찍 서둘러서 어디를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을 보면 나이 탓일까. 이를 둉안 사무실을 비우려니 정리할 일이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어가는 데도 일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서둘러 기차에 올랐다. 마음의 짐을 광주에 남겨 놓은 채 눈을 감았다. 기차에서 아주 달게 잠을 자고나니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울역 앞에 모여 있는 회원들과 짧은 인사를 했다. 광주회원인 박신남 건축사와 반가운 회원들이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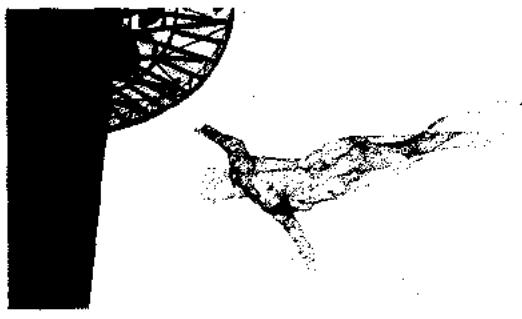


정기총회 단체사진

마침 선거 때라 모 연예인의 낚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몇몇 회원들은 악수를 했다며 자랑도 했다. 우리는 2호차에 탑승했다.

N서울타워에 모르다

버스는 남산을 향해갔다. 이번 대회주제인 「남산과 한강 사이에서 만나다」라는 아주 매력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남산에 도착하여 간단히 비빔밥으로 시장기를 달랜 후 남산케이블카를 탔다. 발밑 남산의 푸른 나무들을 어슬렁어슬렁 지나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인 N서울타워에 다다랐다. 지금은 이름이 「N서울타워」가 되었지만 아직도 남산타워가 입 안에서 맴돈다.



서울 타워의 빛의 명소

케이블카에서 내려 몇 발자국 밟길을 옮기니 한쪽 정자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응기종기 모여 점심 먹는 모습이랑 사진사 아저씨의 카메라 들고 다니는 모습, 젊은 연인들의 미소와 연세 드신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푸릇 나무들만큼이나 여유로워 보인다.

명소가 되어버린 타워주변의 펜스에 빽빽이 매달려있는 '사랑의 자물쇠'들이 맹세를 다진하듯 야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하늘에는 '빛의 영혼'이라는 프랑스 유명작가 세르ック 르보르뉴의 조형물이 공중에 메달려 남산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니 흐린 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강의 다리들과 많은 건축물들이 빼곡히 서 있다.

전망대 내부벽면에 한장 한장 사연이 세겨진 아름다운 타일하녀 루우프테라스, 전망앨리베이터 흘의 아름다운 천정조명, 또 일명 '하늘 화장실'은 남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화장실로 전면유리창에 소품 같은 세면대가 화장실이라기보다 휴게실처럼 잘 꾸며져 있어 꼭 들판을 볼만하다.

회색빛 돌담위의 담쟁이덩굴과 조금 높은 듯 한 목재계단을 정장 차림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인도스님들의 편안한 미소가 울창한 녹음 빛과 어우러져 눈부신 길을 비춰주었다.

남산 국악당에 가다

N서울타워를 뒤로하고 최초의 국악공연장인 남산 국악당이 있는 낙산골 한옥마을에 도착했다.

넓은 한옥마을 마당에는 공연 관람자들이 모여 있고 유치원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국악당은 전통민가 보다는 한 단계 높여 공공권위의 형식이 도입되었고 대지의 흐름을 따라 위계별로 건물의 지붕이 충첩되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여 건축되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국악당내 감독님이 처음엔 사용상의 불편한 점을 주목조목 열거하면서 설계자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계 과정에서 꼭 반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내부공연장은 한옥으로 꾸며진 여유롭고 아늑한 380석의 공연장으로 객석보다 낮은 무대와 우물천정의 설치로 음향기기가 없더라도 라이브가 가능하고, 뒷마당인 화계가 아름답게 꾸며진 신이내린 건축물이라 극찬하였다.

덧붙여 국악당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생활 속에 접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국악당 감독님과 함께



한옥마을 앞 단체사진

미래의 섬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를 보다

남산을 벗어나 숙소(코트야드 베리어트 호텔)인 타임 스퀘어로 향했다. 이번 대회의 드레스 코드는 '섹시 앤 드레시'로 Green색 의상을 입도록 약속했는데, 아뿔싸 새벽에 서두르다보니 상의만 가져왔다(치마는 깜박). 그래서 재킷 속에 그런 상의만 입고 라운지에 내려가니 모두 볼만하다. 넷진 그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발톱메니큐어니, 깃털장식이니, 목걸이, 이어링, 보자까지 그런색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버스를 타고 총회 장소인 한강변의 수상건축물 마리나 제페(Marina JeFFE)로 향했다.

퇴근시간 전이지만 길이 막혀, 막간에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어찌년 그렇게 말들을 잘하지 비포터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청산유수들이었다.

자기인생의 삶계명을 말한 회원이나 나이를 과일로 표현한 회원, 또 학위를 운영하는 회원 등 기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를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 복적지에 도착했다. 마리나 제페의 위치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도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 월드컵 열기와 함께 TV광고에 나오는 해안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한강플로팅 아일랜드의 3개의 섬이 건설되는 현장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꽃의 이미지인 플로팅아일랜드(제1섬: Island Vista 반개한 꽃, 제2섬: Island Viva 꽃 봉우리, 제3섬: Island Terra 씨앗)를 테마로 설계되어 건설 중이었다. 지금은 골조 공사 중이고 일부는 지상에서 골조가 형성된 후 수면에 정착하여 공사중인데, 한강의 수심과 First Floor Plan 기준점 때문에 어려운 점도



1. 행사장 풍경 2. 청암노인요양원 후원금 전달 3. 지 순 선생님 건배제의 4. 원정수 교수님과 함께

있다지만 섬들이 준공된다면 한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마리나 제페의 정기총회

1부는 우리회원만 참석한 스텐드 총회를 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한여성건축사회 황정복 회장님의 개회사와 이재림 전회장님의 격려사, 이아희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끝나고 전임 회장님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은 신임감사인 김희경 회원이 선출 되었다. 두 번째 안은 내년 전국여성건축사 대회가 광주광역시로 선정되었다. 제주도도 추천되었지만 20차를 위해서 남겨놓기로 했다.(사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내심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황정복 회장님의 다 알아서 하신다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렇더라도

내년 대회 때의 불거리를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겠다. 총회를 마치고 창밖으로 멀리 한강다리가 보이는 윗층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2부는 황정복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축사에 조정식, 남경필 국회의원님과 환영사는 이덕수 서울특별시 부시장님, 격려사는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후원금은 청암노인요양원에 전달되었다.

황정복 회장님의 반 강요인 듯 대회 협찬 약속과 여성건축사의 일에 대한 참여를 다짐 받을 때마다 만찬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듣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팠다. 겨우 축하 말이 마무리되고 지 순, 원정수 두 분 건배제의를 마지막으로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야 창밖에 서 모터보트소리가 나고 다리에서 비추는 한강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만찬이 끝난 후 3부는 원정수 교수님의 워크숍이 있었다. 우리 여성건축사의 영원한 큰언니이신 지 순 선생님과 부군인 원정수 교수님과 함께 참석하셨다. 사실 원 교수님의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뵙는데 마음씨 넉넉한 이웃아저씨 같은 친근한 얼굴이다. '부부건축사가 함께한 건축의길 50년'에서 많은 작품의 주안점과 에피소드를 들려주시고, 특히 여성의 설계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다. 올해 건축인생 50주년을 기념 책자로 발간하셨는데, 200권이 넘는 책자를 일일이 서명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휴대하기 편한 책자의 내용 중 두 분이 아주 다르지만 닮았다는 문구는, 외모는 다르지만 건축에 대한 열정은 같다는 뜻이 아닐까 혼자



16차 스텐드 총회 중



수상 파티장에서

생각해본다.

워크숍 마무리에서는 지순 선생님의 눈치를 보시는 듯 하면서도 하실 말을 다하시는 모습이 여느 부부랑 다를 바가 없어 정겨워 보인다. 후학 양성에 열정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 후 총회를 했던 곳으로 내려왔다.

유식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물위에 흔들리는 불빛과 검은 슈드를 입은 아름다운 싱어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노랫소리 그리고 잔속의 붉은 빛 와인이 출렁이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다. 싱어 노래에 따라 L·O·V·E를 외치고, 능숙한 남자 진행자의 진행으로 퀴즈 맞추기와 오늘의 최고의 드레스 그린 퀸을 뽐는데, 무대에 나온 회원들이 망설임 없이 현란하고 섹시한 몸동작에 모두들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내빈들도 참석하여 멋진 브루스도 추며 즐거움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손에 손을 잡고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며 마무리를 했다. 오늘 하루는 길지만 멋진 날이었다.

야침 7시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깼다. 비즈니스 호텔이라 넓지 않지만 욕실과 전신의 벽면이 전면 유리라 황히 내다보이므로 사용 시 블라인드를 쳐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시각적인 협소함은 감소된 것 같다. 맛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호텔사진 몇 장만 찍었을 뿐 태임 스웨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제 행사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2동의 오피스빌딩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할인점 등 대단위 복합시설물인 Time Squire를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여의도 선착장으로 향했다.

한강유람선을 탄다



한강 유람선 안에서

시원한 바람과 물결을 가르며 달려가는 유람선에서 유익한 시간을 기졌다. 서울에서는 여성건축사의 권리와 사회참여의장을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대전, 충남에서는 바자회나 독거노인돕기, 음악회 등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여성건축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 부산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여성건축사들이 봉사를 했는데, 이젠 다른 일과 연계되어 업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노력하는 것이 내심 부럽고 대단하다. 많은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들으며 뚝섬에 도착했다.

뚝섬의 전망복합문화시설 '자벌레'에서

유람선에서 내려 뚝섬을 조금 걷다보니 교각을 감고 있는 멋진 건물이 보였다. 일명 '자벌레(J자형)'로 불리는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및 전시 휴식공간으로 한강 공원화사업인 전망복합문화시설이다. 현장에는 대학컨설팅의 노효근 감리단장님이 나와서 친절히 현장을 안내해 주었다. 뒤에 알고 보니 나와 함께 대학 1학년을 다녔던 분이었다.(참 세상 좋다)

원통형의 외관이 알루미늄 패널을 비둘듯이 갑아 시공 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외피에 구멍이 뚫려있지만 내부에 빛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한다. 내부는 편의시설과 레스토랑이 구획되어 있고 전시공간이 오픈된 기다란 통로에 작품들이 전시 되어있는데, 거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전시공간의 활용에 적절한 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한강 만수 때를 고려해 건물의 높이를 정하고 지면엘리베이터와 자벌레 본건물의 상부 연결부위를 open시켜 물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면 한강주변의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은 한강 수심을 고려해야 한다. '자벌레'는 외관이 아름답지만 높다란 콘크리트 기둥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또 거대한 입처럼 보이는 통로 끝의 전망이 아파트 벽면이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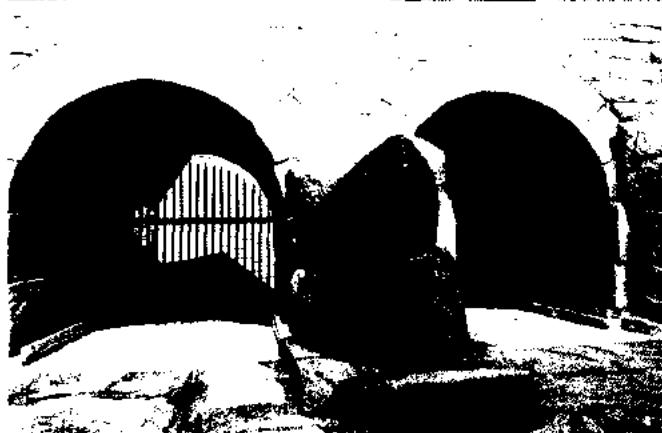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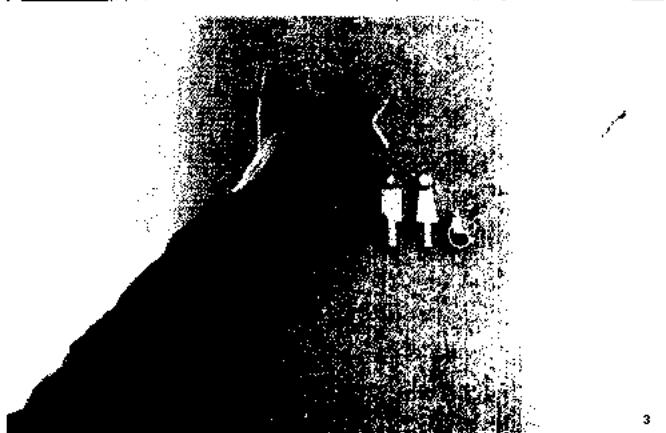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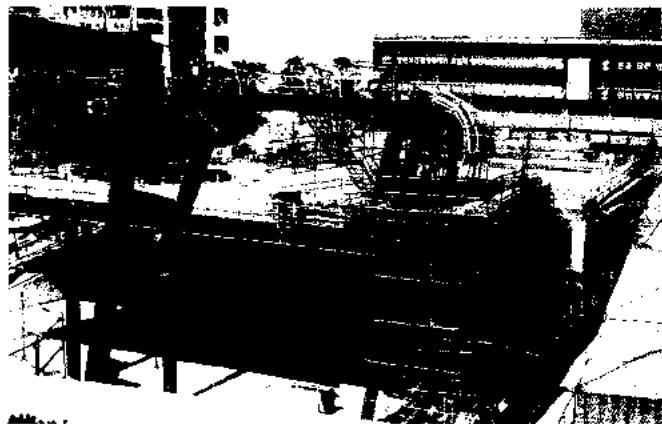
채선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신선한 야채를 적신 샤브샤브와 시원한 맥주가 갈증을 달래주었다.

모임 때마다 자주 뵙던 선배언니들이랑 테이블에 유쾌한 식사를 했다. 공숙 언니는 목포여중 선배님이라니(역시… 참 세상 좋다),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에 가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세계디자인 허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파크 현장에 도착했다.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2010에 프로그램의 기반구축의 하나로 지하 하디드의 지명현상 당선인인 환유의 풍경은 '환유'는 특정의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적 표현을 의미하며, 또한 '풍경'은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고자 했다. DDP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며 마치 여자의 하이힐처럼 섹시하고 매력 있는 건축물로 2011년 말 준공예정이다.

시공사인 산성의 안내로 홍보관에서 동대문운동장의 초기모습부터 현재의 건설과정까지 벽면과 절을 들은 후 옥상에 올라 동대문



1. DDP 건학 2. DDP현장 관조 공사중 3. 자하하디드 회장실 표시 4. 이간수문

디자인 플라자의 공사 중인 모습을 보았다.

DDP에는 전시·컨벤션홀, 디자인 박물관, 디자인 전문 전시관, 정보교육센터, 디지털아카이브 디자인 체험관, 디자인&미디어랩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철골조공사 단계지만 외피로 시공되는 곡선형의 4만5천여 장의 알루미늄 외장 패널이 BIM작업과 MOCKUP으로 관리된다고 한다. 현장 소장님의 안내로 먼저 개방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으로 향했다.

조금 걷다보니 옛 서울운동장의 조명탑과 성화대가 멋지게 남아 있지만 옛날의 뜨거웠던 함성이 들리는듯 했다. 보행로주변의 잘다듬어진 푸른 잔디 가장자리에 이어진 낮은 담장으로 복원된 옛 서울성곽을 따라 가면 이간수문에 다다른다.

두개의 수문 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삼각형의 뾰족한 돌덩이는 밀려오는 물길을 갈라 잘 빼져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놓았다고 하니 조상들의 지혜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축구장과 야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군사훈련과 치안을 담당하던 하도감터 등 아의 유구전시장 공간도 깔끔하게 조성해 놓았다. 길게 늘어진 계단을 내려와 기념관으로 들어섰을 때 유선형의 벽체에 설치된 밀려 조각들 때문에 순간 입구가 막힌지 알고 깜짝 놀랐다. 건물내부는 바닥을 빼고는 수직, 수평이 하나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체라고 하니 시공 상의 어려움이 가히 짐작된다. 화장실 내의 위엄 있는 높다란 칸막이문과 세면대위의 기우러진 거울하며 화장실 근처의 경사진 원형기둥에 높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화장실

표시 위치까지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공정도 변경 없이 설계자의 의도라는 한마디에 일이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의 설계현실에 비하면 내심 부럽다.

600년의 세월이 담긴 유물들과 미래디자인의 결정체인 DDP가 함께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앞으로 과거와 미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DDP를 마지막으로 전국여성건축사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버스시간이 쫓겨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남산과 한강을 뒤로한 채 서울을 빠져나오며 세계디자인도시에 걸맞는 또 하나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DDP의 커다란 아름다움을 더욱 둘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물어나는 풍원과의 어우러짐이 아닌가 싶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화색빛 건물들도 남산의 푸르름이 있어 숨을 쉬는 것 같다.

이번대회 중 DDP나 플로팅아일랜드는 다소 공정률이 낮아 아쉬움이 남아 완공 후에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다. 일박이일의 짧은 일정에도 견학코스랑 행사일정들이 퍼펙트하게 짜여져 아주 즐거웠다. 황정복 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며 특히 마리나 제페에서의 아름다운 시간들은 쉬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2011년 17차 대회는 광주에서 됩겠습니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4월말

인원	2인 이하 사무소						3인 이상 사무소						총 면적 사무소										
	2인 이하			3인 이상			4인			5인 이상													
	인원	회원	면적	인원	회원	면적	인원	회원	면적	인원	회원	면적											
합계	5,271	5,271	108	216	10	30	5,389	5,517	1,628	1,628	250	500	63	189	24	96	26	177	1,991	2,550	7	7,380	8,107
서울	904	904	28	56	3	9	935	969	877	877	143	286	42	123	12	48	15	93	1,088	1,427	6	2,023	2,396
부산	466	466	17	34	2	6	485	506	95	95	19	38	3	9	0	0	3	28	120	168		605	674
대구	416	416	21	42	3	9	440	467	80	80	21	42	3	9	1	4	3	15	88	130		528	597
인천	267	267	2	4	1	3	270	274	58	58	8	16	0	0	1	4	0	9	67	76		337	352
광주	199	199	1	2	0	0	200	201	40	40	6	12	3	9	2	8	0	0	51	69		251	270
대전	239	239	6	12	1	3	246	254	36	36	8	16	4	12	1	4	1	17	50	85		296	339
울산	176	176	6	12	0	0	182	188	19	19	1	2	1	3	0	0	0	0	21	24		203	212
경기	718	718	3	6	0	0	721	724	234	234	19	38	3	9	2	8	1	5	259	294		980	1018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02	209
충북	206	206	4	8	0	0	210	214	29	29	5	10	0	0	2	8	2	15	38	62		248	276
충남	228	228	1	2	0	0	229	230	44	44	6	12	1	3	2	8	0	0	53	67		282	297
전북	237	237	4	8	0	0	241	245	21	21	3	6	2	6	0	0	0	0	26	33		267	278
전남	183	183	0	0	0	0	183	183	7	17	2	4	0	0	0	0	1	5	20	27		203	210
경북	349	349	5	10	0	0	355	361	35	35	4	8	1	3	0	0	0	0	40	46	1	385	407
경남	400	400	7	14	0	0	407	414	27	27	3	6	0	0	0	0	0	0	30	39		437	447
제주	112	112	0	0	0	0	112	112	10	10	1	2	1	3	0	0	0	0	11	13		123	125

건축사회법 회원현황

구 분	회원수						면적 면적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준회원	
회원수	5,517	2,590	86	8,117	100.0%	23	
비율	68.05%	31.95%	1.08%	1,020	12.2%	2	
사무소수	5,389	1,991	-	7,380	100%		
비율	73.02%	26.98%	-	8,107	10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517	2,590	86	8,117	
비율	68.05%	31.95%	1.08%	1,020	100%
사무소수	5,389	1,991	-	7,380	
비율	73.02%	26.98%	-	8,107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5회 이사회

2010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특별회원 입회 시행의 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 안건으로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동호회 활동비 지원의 건,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특별회원 입회 시행의 건
 - 입회신청자 53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아래의 내용대로 시행하되, 입회일자는 오늘 날짜로 보하기로 함.
 - ▷ 입회비 및 월회비 : 없음
 - 단, 건축사법 및 정관개정 이후에는 소정의 월회비가 부과되며, 이 이후에 가입되는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월회비 모두를 징수
- 제2호 :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건축계의 힘을 키우고자 현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을 한국건축단체총연합회로 확대발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FIKA 정책 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동호회 활동비 지원의 건
 - 동호회 지원금 500만원과 한중일 축구 대회 자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에는 사후평가를 통해 동호회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 기타사항

- 설계도서에 자재표기를 의무화 하는 문제와 각 시도 도시계획 심의시 제출되는 친환경건축자재 사용내역서 작성기준 상의 문제점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행정위원회

제2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및 제규정 개정방향에 관한 건
 - 정관개정 방향에 대해 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건축사법 개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우선 현행 정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함.
 - 행정위원회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 기로 하며, 차기 회의는 5월 28일(금)에 개최하기로 함.

■ 제3회 행정위원회

제3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정관개정 방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7개 의제를 선정하였음.
- 1) 회장선출문제 2) 회장의 임기 3) 이사회 선출문제 4) 위워화 문제, 통폐합
- 5) 시도건축사참여, 협회의 조직과 구성
- 6) 사무국을 포함한 조직 7) 건축사들의 위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명시
- 제2호 :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건
-회장의 선출방법인 직선제 및 간선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제3호 : 회장의 임기에 관한 건
-회장의 임기(2년/3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제4회 행정위원회

제4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4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제3회 회의때 선정된 7가지 의제 중 다음 3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위원회 명칭 및 구성
> 사무처 구성 및 직제개편에 관한 건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6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자 변경 동의서(지자체) 첨부 요청 시행방안에 관한 건
-최태성 위원이 2010년 6월 6일까지 1차 초안을 정리하고 위원장을 거쳐 협회 사무처에 전달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사후 설계비 집행의 실효적 방안에 관한 건
-관련법령(건기법)의 사후설계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

고, 관련기관에 집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대토론회 주제 및 안건 제안에 관한 건
-토론회제와 초청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각자 연마하여, 2010년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 제4호 : 설계용역업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의견 취합에 관한 건
-건축물의 적정설계비 확보방안(한국설비 기술협회 입형택 사무국장 발표 및 토론)

■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6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010년 친환경위원회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좋은 실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 포럼(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 포럼(세미나)의 전문성과 실제사례 등 체계적 준비를 위하여 단기적 계획보다는 산업대전 기간 혹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친환경위원회 위원 자체교육 활성화에 관한 건
-친환경위원회 위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
-남홍 건설의 누수하자 조사를 위해 '10.6.16일 담수를 하여 '10.6.18일 조사하기로 함.
 - 제2호 : 회관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
-회장실 타일 보수공사는 원인규명부터 실시한 후 보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회관베란다 난간 도장공사는 밤주기준을 명확히 하여 밤주기로 함.
 - 제3호 : 협회 예식사업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건
-감당사용료로 현행대비 25% 인상과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계약조건을 통보 토록 함.
 - 제4호 : 지하주차장 비단 균열 및 대강당 음향 개선 방향의 건
-지하주차장의 근본적인 균열보수는 Saw-cutting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강당 음향개선은 공사의 범위 및 입장지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추진도록 함.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
- 협의회 회의 및 건축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 '낙안읍성 1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고 민규암 국제위원장이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신정철 회장과 장소선정에 관해 협의하기로 함. 차기 회의 개최 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서(김재성 사무국장) 회의에 참석하여 개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회의일자는 협의회 참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1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로 변경하여 개최함.

■ 제2회 친환경위원회

제2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핸드북위원회는 전일이 아닌 11월 3일 (수) 오후에만 개최하기로 함.
- 국토해양부에 참석자 추천 및 참석요청 공문을 송부하기로 함.
- 제3호 : 아시아국가 및 태국, 라오스 교류 추진에 관한 건
- 태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에 관해서는 UIA 포럼 참석 후 초청에 대한 감사와, 본 협회에서 올해 개최 예정인 전국건축 사대회에 태국건축사협회 Thawejit Chandarasakha 회장을 초청하고자 하며, 한국건축산업대전에 태국 회사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는 공식 서신을 송부(5.12)하였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우선 기다린 후 차후 추진 방향에 관해 모색하기로 함.
-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IA 국제포럼 참석 시 라오스 건축·구조기술인협회로부터 제안된 본 협회와의 교류 추진에 관해서는 본 협회에서 라오스 건축·구조기술인협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라오스에서 송부(5.11)한 MOU 초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체결 제안에 수락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기로 함.
-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아시아국가와의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개방 정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의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제2회 회원교류위원회

제2회 회원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안) 제정에 관한 건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
- 등산동호회에 700만원(500만원, 200만 원 분할)을 지원하고, 마라톤동호회에 300만원(200만원, 100만원 분할), 미술

동호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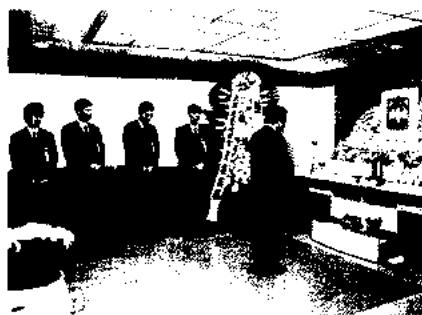
■법제도 관련 위원장·담당임원 합동회의

법제도 관련 위원장·담당임원 합동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감리 분리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안을 다음 회의까지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 회원설문조사(대안선택, 진행과정, 문제점 등 설명)와 토론회(시도건축사회 별)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협회(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 제2호 : 법인 건축사사무소 설립규정 신설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안을 다음 회의까지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 회원설문조사(대안선택, 진행과정, 문제점 등 설명)와 토론회(시도건축사회 별)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협회(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에 관한 건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신설하되, 건축사법 제28조제1호(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호 : 건축물 관리법(안) 축조심의에 관한 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우리 협회 12대 회장 김두섭 고문 별세



우리 협회 제12대 회장을 역임한 김두섭 고문(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건축)이 지난 5월 17일 별세했다.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과 임직원은 5월 17일 장례식장인 강북삼성병원을 찾아 고인의 놓을 기렸다. 장례식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협회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장자는 이천시 설석면에 위치한 국립 이천 호국원이다. 향년 82세인 故 김두섭 고문은 평양공업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국내 건축사 1세대로, 건축사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협회 신인기 상근부회장 이임식 개최

建築士協會 常勤副會長

2010. 5. 27.



우리 협회 신인기 상근부회장의 이임식이 지난 5월 27일 14시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임식에는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역대 고문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신인기 상근부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기간 중 최영집 회장님을 비롯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건축사와 협회를 응원하고 적극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락 전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우리 협회 상근부회장 취임



이용락 전 대한주택공사 부사장(시진·59)이 우리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지난 6월 1일 11시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최영집 회장과 역대 고문 및 임직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일환 과장과 정진일, 김태곤 사무관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이용락 상근부회장은 취임식에서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연구·고민하고, 오랜 공직생활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협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력〉

- 1951년생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
- 미국 미시간대학교 건축·도시계획대학 건축학 석사
- 제14회 기술고시 합격
- 건설부 건축과 서기관
- 駐사우디 대사관 주재관
- 신공항시설과장
- 건축과장
- 악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항시설국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우리 협회,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7일 건축사회관에서 사단법인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석면관리 향



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안종주 회장 및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와 전국석면환경연합회는 앞으로 석면관리 조사연구, 해체 제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 협회 회원 서울 종로구청장, 안산 시장, 원주시장에 각각 당선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협회 회원이 사상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3명이 당선됐다.

김영종 회원(김영종 건축사사무소)은 서울시 종로구청장에, 김철민 회원(주.안산 종합건축사사무소)은 경기도 안산시장에, 원창복 회원(주. 건축사사무소 예원)은 강원도 원주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24명의 건축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지역별로 서울 3명, 부산 2명, 대구 1명, 경기 3명, 강원 5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3명 등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명이 당선됐다.

건축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건축사들의 당선을 통해 건축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과 함께 이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 서울시 종로구청장 김영종(김영종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장 김철민(주. 안산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원도 원주시장 원창복(주. 건축사사무소 예원)
- 시도의회 의원
 - 대구시의회 김화자(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 충청남도의회 김석곤(건축사사무소 공간)

• 시군구의회 의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우창수(종합건축사사무소 부인)
- 강원도 춘천시의회 김혜혜(분도 건축사무소)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김진구(아기밥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박진만(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노경윤(주. 토마 건축사사무소)
-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이천수(예공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김성태(도시 건축사사무소)

제2차 APEC 등록건축사 등록증 및 ID카드 수여식



제2차 APEC 등록건축사 심사 및 등록 추진과 관련, 등록 완료된 제2기 APEC 등록건축사의 등록증 및 ID카드 수여식이 지난 5월 25일(화) 오후 1시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2기에는 총 42명(명단: 본지 57페이지 참조)이 등재됐으며, 제1기 APEC 등록건축사의 축하 속에 제2차 APEC 등록건축사 등록증 및 수여식이 진행됐다.

제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강변축구

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건축사축구동호회 20개팀, 약 400여명이 참석해 기량을 겨루었다. 이를간의 열전 끝에 우승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차지, 통산 3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됐다. 준우승은 충북건축사축구동호회가, 3위는 강남건축사축구동호회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최우수선수상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장인 심상봉 건축사(주.에이디그룹 건축)가, 최다득점상은 충북건축사축구동호회 이재삼 건축사(주.팀텐 건축)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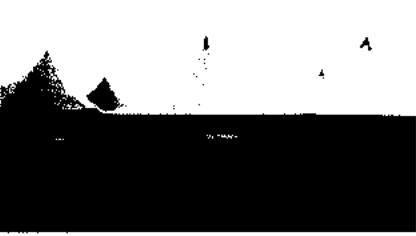
차기대회는 9월 경 서울 송파건축사축구동호회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0 강원도 건축사대회 개최



강원도건축사회(회장 전찬홍)는 지난 6월 5일 원주 양궁장에서 회원 및 건축직 공무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강원도 건축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축사대회에서는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 건축사 회원들 간에 친목을 다졌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 가족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는 지난 5월 18일, 20명의 회원과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건축부서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희망의 마을'에서 상반기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붕을 형성하는 복조 트러스제작 공정과 벽체 조립작업 공정 공사가 진행됐다. 충남건축사회는 사랑의 집짓기 자

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을, 봉사자에게는 나눔의 보람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건축사회는 지난 5월 20일 충남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신입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충남건축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또 앞으로 건축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 받도록 노력해야함을 재차 확인했다.

신우식 회장은 "건축사회의 위상제고와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충남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 수원건축사회 전우회 한마음연수



경기도건축사회(회장 백승천)소속 수원지역건축사회(회장 황정복)는 지난 6월 12일 건우회(회장 박영필-수원시설공사과장)와 건축사, 공무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영월에서 한마음연수회를 개최했다.

전우회는 수원시 관내 건축직 공무원의 모임으로 수원지역건축사회와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함으로 건축사와 건축직공무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건축행정에 관한 간담회와 동강래프팅, 친교의 시간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모든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마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건축디자인 공모전

학생건축디자인 공모전 (ARCASIA Students'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2010)이 '어린이 도서관 (Children's Resource Centre)'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에서 격년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와 이카시아

포럼(ARCASIA Forum)을 개최하는데, 이번 2010년도에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시 학생잼버리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내 건축학과 3~4학년 재학생이며, 건축 부지는 자국의 공공 공원(Public Park)의 한 부분을 선택해 부지 면적 2000~2500sqm이내로 계획하면 된다.

공모전에 당선된 학생들은(회원국 당 2명)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공식 대표로 초청될 예정이며, 당선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주요 일정

- 대한건축사협회로 작품 제출 : 8.25(수)까지
- 대한건축사협회 심사(2개 작품 선정) : 9.15(수)까지
- ARCASIA 위원회에 선정된 작품 통보 : 9.20(월)까지
- 선정된 작품 파키스탄 송부 : 10.1(금)까지
- ARCASIA 위원회 최종 심사 발표(파키스탄) : 10.25(월)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9층 국제협력팀
- 우)137-877
- 전화 : 02-3415-6826~8 (담당: 조지혜)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김정식 회원, 미국건축사협회 명예특별회원(Hon. FAIA) 수상



김정식 회원이 미국건축사협회 명예특별회원을 수여 받았다.

디자인캠프 문방 디엔피 회장이자 목천문화재단 이사장인 김정식 회원은 지난 6월 11일 AIA에서 개최한 '2010 National AIA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에 참석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Hon. FAIA를 수여받았다.

미국건축사협회 명예특별회원은 미국건축사협회(AIA)가 미국의 건축사들에게 수여하는 명예 상으로 건축사의 건축설계, 교육, 기술, 환경,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개별적 공적뿐만 아니라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건축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AIA가 지향하는 목표와 맞는 국제적인 건축사에게 수여된다.

국내 Hon. FAIA로는 김수근, 이광로, 장석웅, 원정수, 이경희, 승효상, 황일인, 이상림, 민현식, 조성중, 뷔춘수, 김진균 등이 있다.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 당선작 발표, 서정일 '루이스 칸의 도시건축' 수상


심원문화사업회가 주관하는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서정일 교수(사진)의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의 도시건축'이 영예를 안았다.

서정일 교수는 200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면

서 루이스 칸에 대한 연구와 체험을 통해 박사 학위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을 통해 당선 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6월 18일(금) 오후 3시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학제적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줄지어 유명을 달리한 건축가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상이다.

• 문의 : 심원건축학술상 운영위원회, 02-2235-1960

21세기 녹색건설포럼 창립총회

대한건설협회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8일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녹색건설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권연하 이사가 포럼 위원자격으로 참석해 의결을 개진했다.

21세기 녹색건설포럼은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따라 정부, 기업 간의 협의체 마련 지원으로 구성, 분기별로 1~2회 개최 예정이며, 앞으로 녹색기술 정보보급, 정책이슈 발굴 및 녹색성장 활성화자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 개최될 포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 및 공간국제실내건축상 공모

월간 SPACE는 올해의 공간대상 공간국제 학생건축상/공간국제실내건축상 공모요강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건축상은 '작은집에 대한 탐구'을 주제로, 면적 16m²를 초과하지 않는 공간의 정육면체 4개 규모의 건축 공간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내건축상의 주제는 '잊혀진 시간의 회복'이다.

건축과 실내건축이 동시에 치러지는 올해 공간대상은 오는 7월 1일 공모주제 워크숍이 열리며, 7월 31일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작품 접수를 10월 5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수

상작을 오는 1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공간사옥 소극장에서 동시에 전시한다.

• 문의 : www.space-prize.com

KCC, 물가안정대상 수상



KCC가 한국물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제5회 물가안정대상' 최고상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KOC는 제품 원자재 구매, 제조공정, 개발, 생산, 판매 등 전 생산공정에서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탁월한 경영활동과 연구실적으로 제품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KOC는 친환경적인 제품 품질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 있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시장선도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KOC관계자는 "보는 생산공정에서의 원자재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물가안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CC, 실리콘 홈페이지 개설

KCC가 '실리콘 전문 홈페이지'(www.kccsilicone.co.kr)를 개설했다.

실리콘은 '돌에서 뽑아 낸 석유'라고 불리며, 흔히 두고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말한다. 실리콘이 태양광이나 반도체용 웨이퍼에 주로 사용되며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간안내

KCC 실리콘 홈페이지는 KCC 회사 소개, 실리콘 이야기, 제품 소개, 고객지원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리콘 이야기'에는 실리콘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실리콘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조방법이 나와 있고, 경화기구와 실리콘 응용 등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반인은 물론이거나 전문 지식인들 조차 실리콘에 관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쉽게 얻어 갈 수 있도록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한 해설이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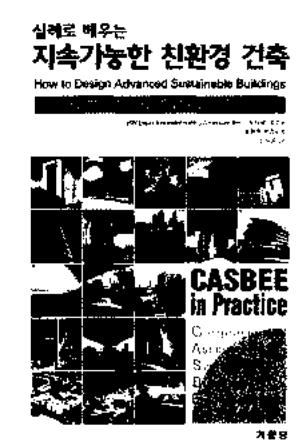
이와 함께 '제품소개'에는 실리콘을 이용한 제품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사진자료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낙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품명 검색과 용도별 검색을 따로 두고 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비로소입니다

본지 2010년 5월호(통권 493호) 58페이지 설계경기란의 '한국전력공사 신사역'의 당선작에 컨소시엄사인 '(주)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누락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실례로 배우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건축



무라카미 슈조 저, 손원득, 박경순 역

| 276쪽 | 기문당

이 책은 종합환경성능평가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건축물종합환경성능평가시스템)에 의해 친환경건축물의 요소기술과 에너지절약기법 및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소개와 성능평가 사례에 대해 소개한 서적은 다수 있었지만 이 모두가 소개된 책은 많지 않다.

역자는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건축환경성능평가, 에너지절약 요소기술의 분석 및 컨설팅을 현업에서 수행하면서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이해부족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건축물 및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번역, 출판한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 greenhome plus 핵심기술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연구단 저

| 1206쪽 | 기문당

신간 '저 에너지 친 환 경 공 동 주 택 greenhome plus 핵심기술'은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연구단이 지난 4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 성과 중에서 핵심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을 Site, Building, System 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제 건축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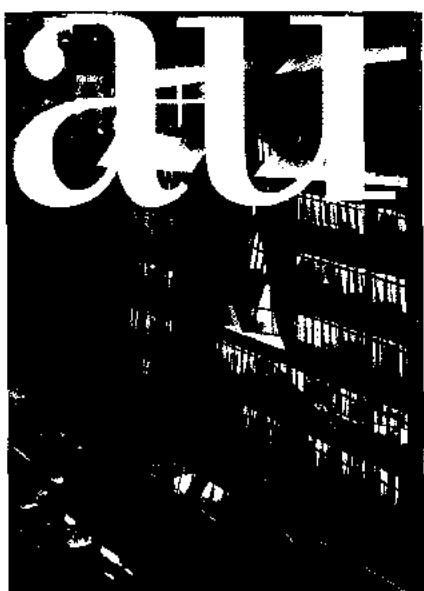
- 문의 : 02-2295-6171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u
ARCHITECTURAL
RECORD

a+u



새로운 방향성: 뉴욕의 지속가능성과 테크놀로지

High Line, 한때 과거의 유산으로써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버려졌던 화물 운송용 고가철도가 2009년 새로운 공원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 사회공공시설과 야생 식물간의 대조는 도시와 'Green: 자연' 간의 완벽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듯 보이며 뉴욕 시의 역사를 상기시켜 준다. 주변 지역에는 호텔, 패션 브랜드 오피스 및 회사 사옥 등이 완공되었고, 유명한 건축사가 디자인한 고급 콘도미니엄들이 곧 완공될 예정이다. High Line의 두 번째 단계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1년 오픈 할 예정이며 뉴욕 시는 세 번째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뉴욕의 지속가능성과 테크놀로지이며 이러한 것들은 High Line과 그 주변 빌딩들뿐만 아니라 The Cooper Union and Barnard College의 새 학술 연구 빌딩과 Museum of Modern Art 증축 프로젝트 및 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Beekman Tower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번 호부터 A+U는 '지속가능성 연구'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이 시리즈는 도시, 건축과 직면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통

향을 보고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Adam Yarinsky가 최근의 많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뉴욕 시의 상황을 보고한다. 이번 호는 또한 미국 동부 해안과 뉴욕 시에 자리를 잡은 젊은 건축사 그룹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을 소개한다. Daisuke Hirose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예견한다.

'디지털 장비를 건축적 교육에 채택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는 디지털 장비가 실험적 용도가 아닌 실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이 친환경적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 환경과 기술은 동진의 양면과도 같다. 기술적 도움 없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실은 아마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Polshek Partnership Architects

The Standard New York

New York, New York, USA 2004~2009



Andre Balazs Properties Standard 브랜드는 특징적인 건축 스타일이 없다. 각각의 호텔들이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 브랜드는 그들만의 context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그들만의 context를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정평이 있다.

Todd Schliemann은 The Standard New York을 설계하면서 이 권한을 잘 활용하였다. 호텔은 부정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 호텔은 도시의 공과 사의 구분을 흐릿하게 하며 떠 있는 형태가 그것을 떼어낸다. 동시에 호텔 그 자체를 거리의 활동 속에 몰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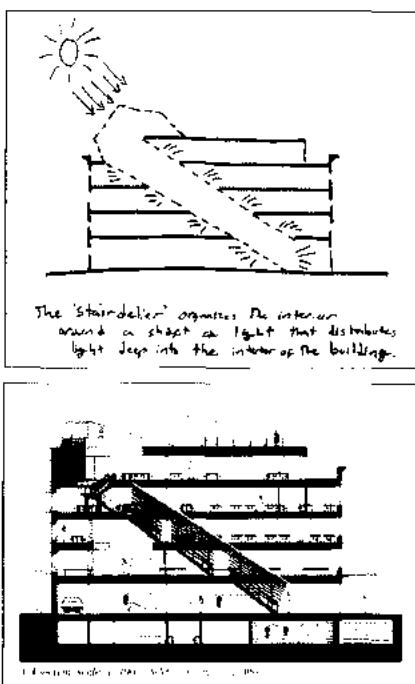
18개 층과 204,500 평방 피트의 337개 룸을 가진 호텔은 2009년 완공되었고 맨해튼 도시 서쪽 끝의 활기찬 지역인 Meatpacking District에 위치한다.

한때는 버려졌던 고가철도이나 지금은 새로운 공원에 본래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High Line(A+U 현재 호)과 호텔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하게 된 것은 디자인 덕분이다.

The Standard는 복합성 안에 건축적 컨셉과 구조적 컨셉을 혼합시키고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극명한 차이를 통해 도시적 context를 활용하였다. 각각 격자 형태의 거리로부터 분명하게 빌딩을 분리시키는 형태의 조각 같은 기둥들은, 지상 57 피트 높이로 건물을 들어올리고, 수평적으로 변경된 산업적 풍경이 그 아래를 통과하고 자연광이 거리를 비추게 하였다. 두 개의 빌딩 슬래브는 '경첩을 달고-(hinged)', 각지게 하여 도시 격자와의 차이 및 주변 지역보다 위로 부양된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빌딩 재료 poured-in-place, board-formed concrete and glass 의 병지는 뉴욕 시의 특성을 반영한다. 콘크리트의 모래 같은 품질은 개량된 유리와는 대조를 보인다. 콘크리트 격자는 연속된 커튼 월의 평평한 면에서 통합된 두 가지 재료인 극도로 투명한 무색투명의 유리(water-white glass)가 필요로 하는 섬세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 외부의 벽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탈피하여 불투명함을 투명함으로, 사적인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정하였다.

WORK Architecture Company
Diane von Furstenberg Studio
Headquarters
New York, New York, USA 2004~2007



또한, 일련의 3차 프리즘 거울들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계단을 이루는 크리스털로 둘러보낸다. 빛을 비추는 작용 이외에도, 크리스털은 구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계단의 그물망 난간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더 나아가 빛의 통로의 물리적 질을 보강해 준다.

외부에까지 이르는 빌딩의 새로운 실내 삶의 표현으로써 '스테어들리에'는 주변 지역에 인식 가능한 신호의 기능을 하는 펜트하우스에서 끝이 난다. 다이아몬드 같은 구조는 계단을 따라 있는 공용 'voids'의 마지막 부분이다.

'스테어들리에'의 통합과 비현실적인 질과는 대조적으로 각 층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각각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특별함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2층을 쇼룸에서 연회 만찬 홀로 즉시 변형할 수 있는 반면에, 1층의 가게는 거의 가구들로 디자인되었다. 'wrap wall'이다. 바로 유비쿼터스 wrap wall dres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로비에서부터 평면 상 시선으로 가게를 나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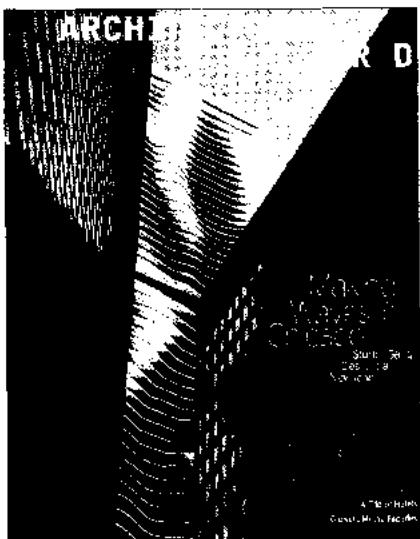
Meatpacking District의 두 개의 역사적 빌딩에 인접하여 위치한, 패션 디자이너 Diane von Furstenberg(DVF)의 새 사옥은 가게, 로비, 쇼룸과 개인 거주공간과 같은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부터 가장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다. 랜드마크적인 파사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6층 규모의 빌딩이 세워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자연 채광을 건물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WORK Architecture Company는 하나의 상징적 제스처를 제안하였다. 빌딩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빛의 통로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주 가능한 결합 '스테어들리에(stairdelier)'로 생각하였다.

계단(Stair)과 샹들리에(Chandelier)의 혼합인 스테어들리에는 일련의 두 배 높이의 공용 'voids'를 연결하는 한편 채광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계단의 꼭대기에서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일광 반사 장치 거울이 태양 빛을 전송하여 통로 아래쪽까지 비추도록 한다.

김동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by Kim, Dong-bum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표지는 Chicago에 Studio Gang이 새롭게 만든 아이콘이며 곡선의 형태를 뽐내는 건물 Aqua이다.

Project 섹션에서는 이 Studio Gang의 Aqua, Shim-Sutcliffe Architects의 Integral House, 그리고 Rogers Stirk Harbour+Partners의 Maggie's Centre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1-10 Studio의 Amangiri Resort, Kuwabara Payne McKenna Blumberg Architects의 The Study at Yale, 그리고 Kengo Kuma and Associates의 Opposite House에 대해, Books 섹션에서는 'Looking for Answers Beneath the Skin'이라는 주제로 The Making of a Building: A Pragmatist Approach to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Narrative: The Formation of Space and Social Meaning, 그리고 Smart Surface and Their Application in Architecture and Design의 세 권의 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The Making of a Building: A Pragmatist Approach to Architecture: by Albena Yaneva, 2009

건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사로 하여금 큼라

이언트,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공공을 위해 수차례 디자인하고 또 디자인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야만 한다. 영국 Manchester School of Architecture의 강사인 Albena Yaneva의 이 책은 Metropolitan Architecture(OMA)가 2004년 New York의 Whitney Museum of Art의 증축부분의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2001년에서 2004년 저자는 OMA의 Rotterdam 사무실에 민족지학자로서 파견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대 건축의 인류학에 대해 연구하고자 건축사를 인터뷰하고 OMA의 무질서하기로 유명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이 책은 유일하게 모델을 만들고 사진을 사보았고 농업자들을 만나는 일 등에 있어 건축사의 음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의 스승인 프랑스 사회학자 Bruno Lator는 저자가 보기에는 고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작은 형태가 사회적인 건축이 되어 가는 과정과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이 그 주변에 불어넣어주는 힘, 건물을 둘러싼 사회, 역사, 경제적인 측면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독자들은 저자의 아이디어의 비약으로 인해 이 디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학구적이고 단조로운 스타일로 쓰여진 이 책은 우리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진 다음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한다.

●The Nature of a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 by George M. Woodwell, Island Press, 2009
Smart Surface and Their Application in Architecture and Design: by Thorsten Klooster, 2009

건물의 외피란 무엇인가? 건축의 입장에서 외피란 건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스키니거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평면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이자 신소재 연구자인 저자 Thorsten Klooster에게 외피는 훨씬 복잡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끝없

이 작은 '나노'의 수준까지 재료에 대해 조사했다. 저자는 우리를 오즈의 마법사과 같이 건축의 외피라는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다.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외피, 우리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외피,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스스로 회복되는 외피, 자체를 깨끗이 만들거나 열과 냉기를 밤들어내거나 역동적인 건축형태를 만들기 위해 형태를 바꾸는 외피 등 다양한 건축재료를 소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터부아에서 개발된 진보된 기술과 이것이 건축제로써 융용된 사례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와 이론이 연결된 예제들도 제시하고 있다.

■ Project

Aqua, Chicago / Studio G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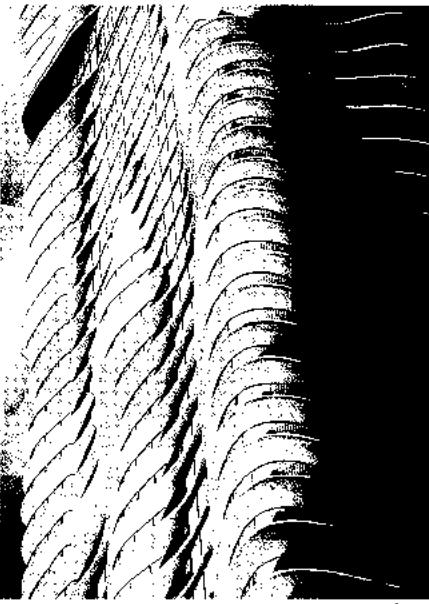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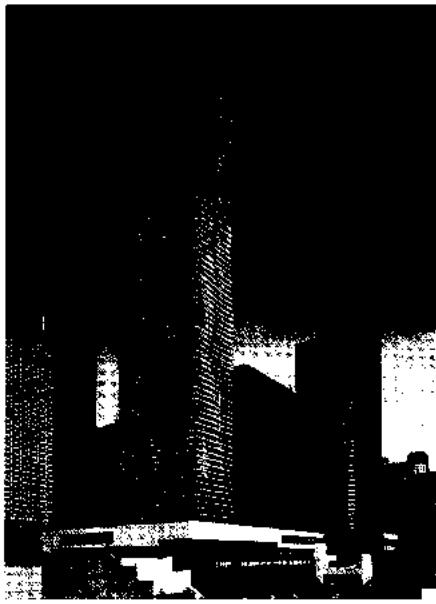
Studio Gang은 Chicago의 마천루에 새로운 높이의 건물을 하나 더 창조해 낸다.

시카고의 마천루들은 기술적인 완성도, 기능적인 표현에서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면은 다소 부족하다. 이번에 Studio Gang이 설계한 Aqua는 감각적인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흰색의 발코니는 주변의 단조로운 건물들과 원천히 대조를 이룬다.

이 82층의 건물의 조망은 남쪽으로는 Millennium Park, Art Institute of Chicago가, 북쪽에는 Chicago River와 Hancock Center가 멀리 보인다. 또한, 이 건물의 특징인 흰색으로 된 곡선 형태의 발코니는 Michigan호와 그 주변을 둘러싼 랜드마크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인 Magellan Development Group의 Jim Loewenberg와 Studio Gang의 대표 Jeanne Gang은 Michigan호 끝에 있던 Illinois Central Railroad가 있던 위치에 이 82층의 건물을 함께 계획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쪽에 물이 보이는 전망과 더불어 남쪽에는 시카고 모더니즘의 억격함을 볼 수 있는 Millennium Park, Art Institute of Chicago가 보인다. 또한, Aqua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적 형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Bertrand Goldberg의 Marina City(1964)의 두 개의 원통형태



Aqua

의 트윈타워를 많은 발코니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 있다.

이 곳에 사는 사람 모두가 불규칙한 곡선 형태에 불박이 형태로 되어 있는 가구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건축사는 물결치는 듯한 형태를 직선형태의 콘크리트로 감싸 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이 건물의 직교로 교차하는 코어부분은 Chicago의 그리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떻게 37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 소규모의 커뮤니티 센터와 주택이었던 이 건축사사무소가, 또한 여자 건축사가 해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개발자이자 MIT에서 교육받은 건축사인 Loewenberg는 Chicago에서 있었던 Frank Gehry의 강연에서 건축사 Jeanne Gang를 만났다. 그는 Skidmore, Owings & Merrill과 같은 마스터 플래너를 포함하여 그의 계획에 합당한 유명건축사들의 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초고층건물을 한번도 작업해 보지 않은 젊은 건축사”에게 기회를 줄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University of Illinois, Harbard's Graduate School of Design, 그리고, Zurich에 있는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ETH) 출신인 건축사 Gang은 보다 실용적인 각수성으로 제안을 했다. Loewenberg는 그녀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경험이 한번도 없음에 대해서는 별

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클라인트이면서도 전문 건축사였기 때문이다.

Magellan은 이 건물의 발코니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건설비용은 줄일 수 있었으나 겨울에 있을 열손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건축사 Gang은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시카고의 지역난방과 이 아파트의 자연 환기, 그리고 여름의 햇빛의 차단 정도, 그리고 효율적인 유치창의 사용과 같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에너지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쉬운 것은 좀 먼 거리에서, 혹은 흐린 날씨에 이 건물의 곡선형태는 직선처럼 납작하게 보이며 화이트 콘크리트는 어두워 보이고 호수처럼 디자인 된 유리창은 불규칙하게 무언가를 베어낸 듯한 형태로 보인다.

보기 위한 기계로서(타워에서 도시를, 혹은 도시에서 타워를 보듯), 또 시각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매혹적이나 보다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Maggie's Centre, London / Rogers Stirk Harbour+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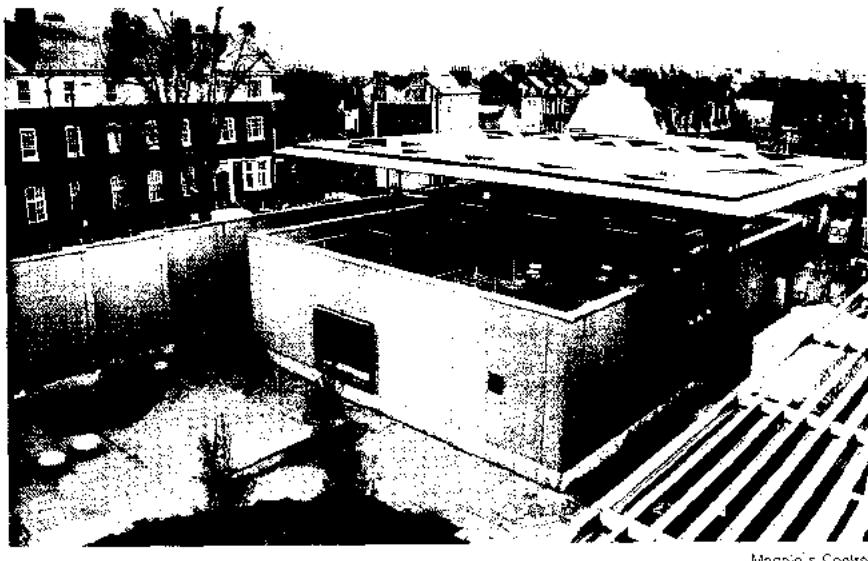
이 새로운 센터는 다른 곳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편안함을 암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988년 Maggic Keswick Jencks라는 이름을 가진 한 특별한 스코틀랜드 여인은

유방암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엄마였고 중국의 조경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하는 학자였으며 세계 여행가였고 디자이너이자 비평가인 Charles Jencks의 부인이였으며 그녀의 전문분야에서는 성공한 조경디자이너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수술 후 다시 5년 뒤에 암은 재발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간과 뼈, 골수로 암세포가 무차별로 공격해 들어왔다. Maggie는 두 번째 수술에서도 잘 견디어 회복했으나 1995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삶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Keswick Jencks를 돌보던 의사 중 하나가 그의 의학저널에 그녀가 경험한 것에 관한 글을 하나 써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녀의 에세이 “A View From the Front Line”은 암, 수술에 대처하고 치료의 험함에 대한 혼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절망감과 관련된 그녀의 삶에 대한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다. 그녀의 관심은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장소가 매우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주는 곳이어서 이러한 암투병이라는 도전의 기간 속에서 환자들이 느껴야 할 따스함과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다.

Keswick Jencks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가진 것을 가졌다: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열정과 그녀를 둘러싼 주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녀의 삶에 있어 마지막 몇 년간, 그녀와 남편 Charles는 환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차별화된 공간을 계획하면서 함께 일했다. 병원 근처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떤 약속 없이 걸어서 만날 수 있고, 암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나 다른 환자들과 그 가족, 혹은 완치된 환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곳이 그 예이다. 방문자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의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개인 혹은 그룹치료에 참여하고 음식의 영양에 대한 것이나 스트레스의 감소에 관련해서 배우거나 그 외의 다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센터의 디자인은 병원과 같아서는 안되었다. 이러한 장소는 규모가 작아야하고 오픈 스페이스, 일조, 색채의 선택적 사용, 식물, 그리고 조경을 강조하여야 한다. Keswick Jencks의 사망 후 그 첫 번째 Maggie's Center가 Edinburgh의 Western General Hospital 근처에 오픈되었다. 여섯 개의 센



Maggie's Centre

터가 자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전적으로 기부에 의해 건설된다. 센터의 몇 가지는 촉망받는 건축사 Frank O. Gehry와 Zaha Hadid가 디자인한 것도 있다.

Rogers Stirk Harbour + Partners가 London에 계획한 이 Maggie's Center는 새로이 등장하는 장르에 대한 선물과 같다. 이 건물은 Charing Cross Hospital의 북서쪽 구역에 자리하고 있다. 기본 좋은 느낌이 드는 벽돌과 스터코로 된 저층의 이 건물은 매우 정적인 느낌을 준다. 강렬한 주홍색을 가진 이 건물은 한쪽면은 아주 멋지 반면 반대쪽은 극도로 엄하다는 느낌을 준다.

방문객들은 부분부분 낮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중정을 가로질러 센터 건물로 가게 된다.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건물의 남쪽 벽에 있는 배기장치를

통해서이다. 이곳을 지나 90도를 돌고 또 90도를 돌면 잘 숨겨진 출입구를 만날 수 있다. 그 효과는 점차 훈련한 텐던의 도심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동선을 건물의 겸손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고도 한다. 건축사들은 집같이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원했다. 문의 안쪽은, Maggie's Center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 즉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기 위한 간절함을 품고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었다. “Edinburgh에 첫 번째로 설립된 Maggie's Center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데 적어도 세 번은 방설인다는 것과 그리고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실제로 자신이 암환자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Center의 책임자인 Bernie Byrne는 “이 센터는 매우 집같고 보다 인간적인 면이 돋보인다.” 멘트인다. 리셉션 장소가 없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스텝 종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시러 나와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 병원이라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어디에서 병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표시도 없다.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우리는 친구에게 화장실이 어디있는지 물어보

지 화장실 표시를 찾지 않는다.”

아주 흐린 1월의 날씨에도 이 곳은 따스하고 햇빛으로 가득하다. 1층과 2층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2층 벽은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다. 2층의 각 코너는 외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주홍색으로 코팅된 외부 소테고 벽면은 내부에서 창을 통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작나무 패널이 내부에 따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부엌이 1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운데, 티비와 찻잔이 놓여있는 선반, 그리고 커다란 식탁 테이블이 건물 전체의 포인트가 된다. 겨울에는 나무를 때는 스토브가 열기를 더해준다. 암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느끼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이 세 가지 감정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고 Byrne은 이야기한다. 부엌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이 적극적인 환자가 될 것인가 수동적인 환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이곳에 앉아서 자기의 머그잔에 차를 가득 담아놓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을 수도 있으며 환자가 실체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건물은 2009년에 Sterling 상을 받았는데 이 건물의 건축사가 Rogers Stirk Harbour였다는 데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왜냐하면 그는 노출된 케이블과 윤이 나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재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건축사였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이 건물의 디테일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건축사가 하려고 노력했던 건물의 형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Maggie's Center는 작업을 해왔던 긴 시간 동안 이 건축사가 설계했던 작은 건물들 중 하나라고 한다. 오래도록 큰 프로젝트를 다루다보면 이러한 감각을 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작은 규모의 건물도 잘 해결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